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5월 1, 8, 15, 22, 29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27일(음력3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523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6월 시행

군포교 변화 부작용 우려

군법당 모두 조계종 명칭 표기
다른 종단 "활동근거 어디에?"

"군 포교?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군대 얘기는 꺼내지 말아 달라." 최전방 부대 법당에서 7년째 군 포교를 해온 태고종 A 스님은 "군 포교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정부터 냈다. A 스님은 넉넉지 않은 절 형편에도 군 포교를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써왔다. 최근 낡은 군 법당을 개조할 때는 군 장병들이 좋은 여건에서 법회를 본다는 생각에 사찰 불사를 위해 모아 두었던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무엇이 A 스님의 의욕을 이렇게 꺾어버렸을까? A 스님은 "군종교구가 발족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정성들여 키워놓은 자식을 잃어버릴 것처럼 불안하다.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군 포교에 발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군 포교를 하는 조계종 이외 스님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군 포교에서 손을 떼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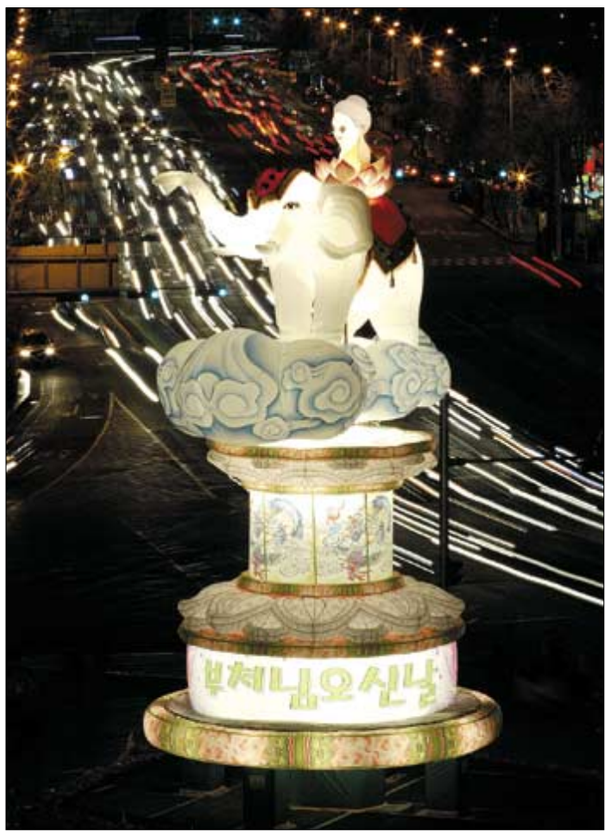
매주 훈련소 법당 법회를 보는 진각종 B 정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종단 기금으로 군 법당을 마련해 국방부에 기부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종단 기금으로 만든 법당에 다른 종단 주지가 파견되는 격이다. 군 포교는 불교계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당을 없어져 버린 것처럼 허탈하다"고 했다. B 정사는 그간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사이가 좋았던 군승들과의 관계도 많이 어색해지는 것 같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조계종은 군종특별교구법을 4월 8일 공포했다. 이 법이 6월말 경 시행되면 현재 각 부대에 위치한 군 법당들은 특별교구의 말사로 통합돼 '조계종 ○○사'로 불리게 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이 140여 명 군법사의 인사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타 종단 스님들의 군 법당 후원은 쉽지 않게 될 게 뻔하다는 것이 스님들의 불만이다.

조계종 소속으로 군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군법사 140여 명, 군법당과 결연을 맺은 사찰은 200여 곳이다. 태고·천태·진각종 소속으로 군 포교활동을 펼치는 인원도 상당수다. 태고종 소속으로는 300여 곳 사찰, 천태종과 진각종만도 각각 수십여 명의 인원이 군 불교 현장을 누비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2면으로 계속



"기쁨과 나눔의 등' 밝았다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2일 서울시청 앞에 '기쁨과 나눔의 등'이 밝혀졌다. 이날 점등식에 이어 '연등음악회'가 올해 처음 개최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4월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앞줄 왼쪽 끝)이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합과 상생 정신을 국민의 가슴에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서 노대통령 메시지

20일 종단협 주최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입니다. 불교가 더욱 융성해져 국민들 속에 더 많이 퍼지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가 4월 2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천만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다.

1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훼손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했다"며 "힘을 합쳐 더 좋게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단협 회장 법장 스님은 기원사를 통해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삼보의 수승한 가피를 받아 국운이 융창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지역과 국가, 민족간의 이기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함께 나누며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현대불교방송이 제작한 '부처님이 여는 세상'이라는 영상물도 상영됐다. 관련기사 4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진각종 제 27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

20일 정기종의회서 선출

70만 진각종도를 이끌 제 27대 통리원장에 회정(서울 밀각심인당 주교) 정사가 선출됐다. 인터뷰 3면

진각종은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37명 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42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제 27대 통리원장에 23표를 획득한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회정 정사는 "전임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진각종이 명실상부한 밀교중흥종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통리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회정 정사는 1951년 경북 출생으로 80년 향가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황경심인당 지륜심인당 주교, 92~95년 제 8·9대 종의회 의원, 97년 통리원 총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98년 99년 회당학원 이사 등을 지냈다.

김원우 기자

제1차 보현도량 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
5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서 입제(관련안내 10면)

本社 5월부터 청운동에서 업무

전화·팩스 그대로 … 책방 여시아문 임시 휴점

현대불교신문사는 건물 신축관계로 2005년 5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소재 상호신용은행연수원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현대불교는 새 보금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언론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무공간의 이전과 관련, 부득이 책방 여시아문은 당분간 휴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통신판매(02-737-0695, 팩스 02-737-0696)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구 상호저축은행연수원)
●**전화·팩스**: 기존의 번호 그대로
●**대표**: (02) 737-8881
●**편집국**: (02) 722-4162

●**약도**





달라이 라마 日서 단독인터뷰 … 7면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정광 스님 / 4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그림·조태호

무여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10 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九龍海樹長珊瑚
玉龍子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국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현스님이 20여년간 길상도를 연구하고 정진 하여 1996년 사찰에 봉행한 제1회 재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大宗師께서 친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당시 대통령 축전으로 축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되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 제10회 대길상도전을 기행 하게 되었습니다. 길상은 불교의 법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제9회 대재전 작품은 대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徽宗의 예서체, 우대 중국황제필법, 謙信의 등서이체, 壽白石 필법 등 古書 작품을 연마하여 書와 예술의 심오한 정자를 성취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현 스님의 力作들로 동참한 1만여 사부대중의 가슴에 무한한 감동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대재전은 그동안 불교계 대표적 문화제전의 한 흐름으로 루터내적 불교발전과 밝은사회 구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4일 봉행된 제9회전 기념대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큰스님께서 대법회에 친혀 임석 소중한 법어를 전하시어 心祝 하였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총주사 주지 정락스님, 파르다 싸라다 레이 주한인도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 롯데그룹 신병호 고문 등 여러분이 직접 법회에 동참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 각계인사 다수가 제9회 재전에 축하의 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石山 玉龍子스님 선친 대길상도는 세계적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국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石山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 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제명의 대도 큰스님을 모시고 10회 재전을 봉행함에 고갑한 법력의 다양한 길상도와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 추사체, 계룡보궁도 등 청설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충년한 세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념대법회 : 2005년 5월 3일(화)오전 11시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작품전 : 2005년 5월 3일~5월 8일(6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동참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경전 등 기념품 증정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심사로부터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511-6210~5, 3443-9871~7 FAX:511-6214
2004년 5,000여명이 동참한 제9회 대재전 기념대법회 장면







참회 · 성명 · 조사 · 기자회견…

"자정하자" 공감속 방법론 모색

'박물관 의혹' 국장2명 권고사직, 신도단체 '비상회의' 제안

조계종의 '자정 바람'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류를 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구성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 조사반은 21일 "총무국장과 재정국장에 대해 직인관리 및 관리 감독 지휘 책임을 물어 21일자로 권고사직(면직) 처리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호법부에 이관해 추가 조사 및 조사 완결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원장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적 절차나 담합의 절차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19일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종도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 "종단차원의 관리 감독 방안까지 폭 넓은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장적)도 19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조사에 중앙신도회측으로부터 박정만 건축사와 김희욱 회계사를 추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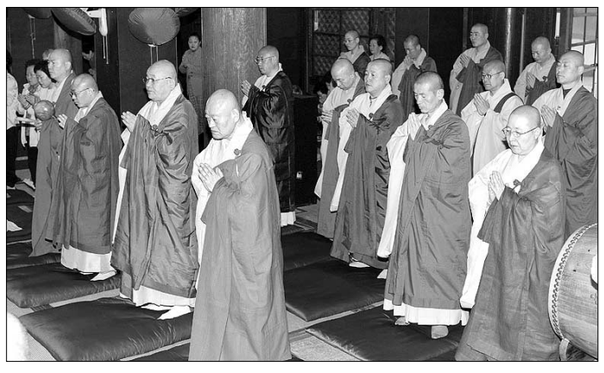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효림)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정규율의 강화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종단혁신을 촉구한다"며 "자정의 대의아래 종립 동국학원에 관한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8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종단 일부의 각종 의혹사건은 "일반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의혹과 도덕적 불감증이 승가에 침윤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1일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규명을 통한 참회와 자정 활동 ▲혁신적 교단자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초 마련 ▲승가정신의 회복 등을 위해 '청정교단 수호 부패근절 비상회의'를 제안했다.

비상회의는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삼보정재 투명하게' '생활가풍 청정하게' '대중위한 열린운영' 등을 모토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상회의는 또 "불교중앙박물관, 동국대, 불국사 건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와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양진수)는 22일 "조사 결과의 발표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 일반직 종무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언사가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정진기도를 하고 있다. 참회정진기도는 1주일간 진행된다. 사진=박재완 기자

봉원사 관련 재판 무기한 연기 '합의'

조계·태고종 대책위 "결론 날때까지…"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계류중인 신촌 봉원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조계종 태고종 봉원사 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에 열린 제1차 전체회의 결과 "본 대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계류중인 봉원사 재판을 대화가 원만한 결론을 보기까지 양측의 합의하에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실무위원으로 각 4명씩 8인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정휴 · 법안 · 장적 · 동진 스님이 태고종은 구해 · 일운 · 월해 · 법현 스님이 실무위원으로 선정됐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불교와 사회의 평화를 위해 조계-태고 양 종단간 대화를 불교 고유의 사고와 방법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와 "다음 회의는 실무위원회 진행과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한다"에 합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조계종측 원택(위원장) · 정휴 · 무관 · 법안(간사) · 동진 · 종수 스님과 태고종측 자월(위원장) · 구해 · 혜공 · 일운 · 월해 · 백운 · 법현 · 법현(간사) 스님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신 · 증축 허용된다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서 결정

2006년 상반기부터 전통사찰에서의 불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4월 22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907개 전통사찰 경내에서의 건물 신 · 증축과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공익용 산지'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하는 한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교환경단체들은 사찰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철주 기자

선수행 지침서 '간화선' 고불식

5월3일 조계사서

조계종 '간화선수행지침서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 <간화선>발간 기념 고불식을 5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당대 종단 선지식들의 감수를 통해 발간되는 <간화선>은 2002년 11월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회출범 2년반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계종 수행의 길'이라는 부제목을 단 <간화선>은 선수행을 시작하는 출 · 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의 기초, 실참, 깨달음과 그 이후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화선>은 산문형식의 서술로 초심자들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고불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편집위원 역할을 맡았던 선원 수좌 스님 등이 참석한다.

조용수 기자

법장 스님 등 자이툰부대 방문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법장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30여 명과 함께 자이툰 부대를 방문,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을 위해 파송된 국군장병 노고를 치하한다. 방문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격려인사와 격려 위문품 전달식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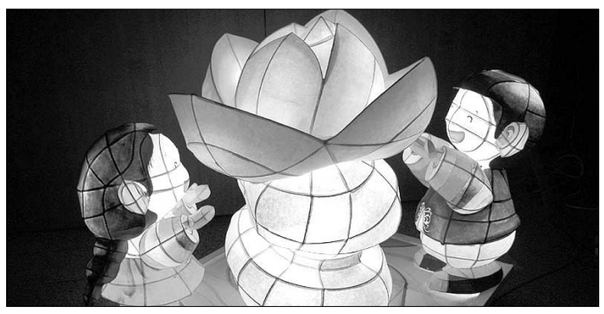
새 교황 선출 축하 메시지 발표

조계종이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축하메시지를 4월 20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축하메시지에서 "라칭거 추기경이 일찌감치 새로운 교황에 선출된 것은 그만큼 가톨릭 내에서 신망이 두터움을 반영한 것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온 인류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조계종은 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도력을 발휘해 인류의 갈등과 고통 해결에,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남동우 기자



개인 창작등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성민제씨의 '부처님께'.

성민제씨 전통등 경연 최우수상

봉축위 심사결과 발표

한마음선원과 성민제씨가 불기 2549년 등 경연대회 단체 행진등 부문과 개인 창작등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제6회 등 경연대회 심사 결과, 단체 행진등 부문 최우수상에 한마음선원, 우수상에 능인선원, 특선에 봉은사 · 진각종, 입선에 조계사가 각각 선정됐다고 4월 19일 밝혔다.

개인 창작등 부문 최우수상은 성민제씨의 '부처님께', 우수상은 이유훈씨의 '산사의 봄', 특선은 강동일씨의 '대가람 연못'과 이보람씨의 '생사 고해를 넘어서', 입선은 안정훈씨의 '만법귀일' 박경애씨의 '도깨비 와당' 박순애씨의 '목어등' 권진순씨의 '연꽃등' 김현수씨의 '청자신수'가 각각 선정됐다.

단체 행진등 부문 시상식은 5월 8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에서, 개인 창작등 부문 시상식은 5월 6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 개막식에서 각각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東大특위 활동 개시

동국대 진상조사특위는 4월 19일 중앙종회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특위 조사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 토진 스님과 장적 도완 정도 본각 스님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동국대특위 소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2시 동국대 재단 前 감사인 박도근씨를 불러 동국대의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 관련한 검찰고발내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용수기자

중앙종회 직능직보궐 성관 스님 당선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직능직(법제) 중앙종회의원에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성관 스님은 1972년 사미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이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포교원 포교국장 선웅 스님은 "군종교구의 발족은 역량이 되는 종단이 우선 군 포교를 체계화시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지 타 종단을 배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군종교구 발족 이후 여러 종단 스님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군불교 관계자도 "군종교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말환 법사(전 군종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종단 군승 파견 문제에 대해 "각 종단 성직자들이 군종교구로 들어와 함께 활동하고 전역 후 본래의 종단으로 복귀하는 것도 추후에 논의한다면 한 방법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임명될 군종교구장과 종단 대표 스님 등 책임있는 사람들이 군 불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조계종이 군 포교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를 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굳이 군 법당을 조계종 소속으로 표현하기보다 인근 사찰들을 후원 사찰들로 묶어 여러 종단들이 함께 지원하는 길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조계종이 군 포교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큰 만큼 전체 불교계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풍진작과 종단기강 확립을 위한 담화

새봄을 맞이하여 봉축불사에 정진하는 모든 종도와 2천만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제31대 총무원 3년차를 맞이하여,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조치한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단적 숙원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됨으로써 교단과 나라 안팎에 그 성과를 회향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도들의 화합입니다. 더불어 승가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단 권위와 기강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총무원 호법부는 내외의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종단화합을 모든 사업의 대 전제로 삼아 모든 종무집행을 해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정한 비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종단화합이라는 근본 기조의 이면에 그간 청산되지 않았던 구태들이 다시금 발호하고, 승가위의와 종단의 권위 및 기강을 해하는 일부의 사례들이 점증하는 한편,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왜곡되어진 여론이 없지 않은 바, 중단 없는 종단발전과 종도권익을 향상케 하기 위해 승풍진작과 종단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는 오늘도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정법홍포에 전심을 다하는 많은 종도들께서 종단과 호법부에 엄중히 요청하는 사항인 것 또한 밝힙니다.

이에 호법부에서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승가위의를 바르게 세우고 승풍을 작흥키 위한 조치로서,** 승려로서의 근본적인 分限 위반행위, 폭언/악담/추어 및 양설로 화합을 깨는 행위, 상습적인 유랑객승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속가 유숙행위 등 수행자로서의 근본 가치와 사회의 도덕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종단권위와 기강의 확립조치로서는** 근거 없는 소문의 남발 및 투서를 일삼는 행위, 종단 내부의 시정절차 없이 사회기관에 제소하는 등의 행위, 종명을 도용하거나 미등록사설사암을 운영하는 행위, 종단과 사찰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종단의 합법적인 종무명령을 이행치 않는 행위, 종무와 관련한 불만으로 중요 종무원에게 부당한 언사를 행하는 행위, 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도 종헌종법이 정하는 최대의 기준으로 엄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승풍진작 및 종단기강확립을 위한 방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이와 관련한 호법활동 현황에 대하여는 매월 정례적으로 종도들 앞에 그 달의 업무현황을 발표해 드릴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도들로부터 보다 나은 호법지침을 수렴해 나가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스님들을 비롯하여 종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49(2005)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 수

‘참선 얼차려’ 시정 요구키로

군법사들 “용어 사용에 문제…불교 수행법 왜곡 우려”

최근 구타 언어폭력 등 군 가혹행위 때문에 군기사고가 빈발하면서 육군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에게 참선으로 얼차려(기합)를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4월 16일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참선 얼차려는 가혹행위를 없애고 사병들의 정신 수양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참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울 수도 있다. ‘참선 얼차려’라고 하지만 스님들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화두를 들게 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진행되는 것은 불교 수행법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 군인들이 참선 얼차려 때문에 불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육군의 참선 얼차려는 참선 얼차려를 일 · 이병에게 20분 1회, 상병 · 병장에게는 20분 2회 이하로 실시하고 있다. 상병과 병장은 군 생활 선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분을 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6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참선 얼차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포교원 담당자들은 “참선 얼차려로 군 가혹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얼차려가 결국 체벌 방법임을 고려한다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군단 쌍룡사 이웅규 법사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취지에 맞게 정신통일이나 정신집중 훈련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법사들은 이런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참선은 정신 수양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불교계의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포교 바탕으로 복지·문화사업 펼 터”

인터뷰 진각종 새 통리원장 회정 정사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열린 제 342차 정기종의회에서 진각종 제 27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회정(悔淨 · 서울 밀각심인당 주교) 정사.

회정 정사는 “진각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며 “포교를 근간으로 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정 통리원장의 취임식은 5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포교사 양성과정 재점검 前 집행부 사업 계승 대북교류 적극 추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에 관심 갖고 지켜봐준 불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각종이 명실상부한 ‘밀교중흥종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국불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27대 진각종 통리원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종교의 가장 높은 가치는 포교입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원장과 의논해서 교역자 양성과정과 신교도 포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재점검할 생각입니다.

또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대북사업과 사회와 직접 만나는 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단 정사님들의 뜻을 모아 불교발전과 종단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01년 진각종 총무부장을 맡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북교류 등 국제사업과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불교계 내외의 기대가 큽니다.

–진각종은 한국불교 내에서도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단입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단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제 불교는 부처님 법을 믿는 단계를 지나 알고 실천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정체성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각종만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불교를 생활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선소감에서 前 집행부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업무를 계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각종의 가장 큰 문제는 통리원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그동안 추진된 업무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선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모두 계승하겠습니다.

▲그동안 출가승 제도와 불상봉안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단내부에 일정정도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상봉안의 경우 현재의 심인당 구조에서는 어렵고, 건물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한다든지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불상봉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조차도 지금은 진각종도들의 대세를 이루지 못하기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출가와 재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종단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의 통리원장 선출방식… ‘콘클라베’와 유사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과정이 가톨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돼 비교가 되고 있다.

진각종은 대정사 대전수 품계를 받은 전원이 통리원장 후보자가 된다. 가톨릭의 경우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모두 교황 후보자이다. 출마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 후보자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투표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 정견에 따른 투표라기보다 그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각종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통리원장을 뽑는다. 교황선출 방식과 비슷하다. 강유신 기자

자연-인간 공존하는 월정사로

5월7일 전나무 숲길 시멘트포장 제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사찰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월정사 일주문부터 월정사 구 주차장까지 전나무 숲길에 깔려 있는 시멘트 포장을 걷어낼 뿐 아니라 ‘숲 속 도서관’을 조성한다. 지난해 월정사 상원사 간 446번 지방도로 포장을 거부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월정사는 5월 7일 오전 10시 월정사 및 상원사에서 열리는 ‘제2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에서 오랫동안 전나무 숲길의 숨통을 눌러왔던 포장을 제거한다. 걷기대회에서는 또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20여리 흙길을 묵언으로 걸으면서 길가에 핀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행사도 함께 펼친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의미도 함께하는 이 대회에서는, 평창군민 108명이 전나무 숲길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삼보일배를 하며, 108m 현수막에 유치기원문 적는 행사도 열린다.

전나무 숲 1500여 평 부지에 조성되는 숲 속 도서관은 월정사 방문객을 위한 명상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곳에서 때로는 작은 음악회가 때로는 시 낭송회가 열리며, 가끔 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다담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남동우 기자



한불부인회 “연등 만들어요”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가 4월 21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개최한 한불부인회 연등만들기 체험행사에 레바논 대사 부인 제나 램말(Zeina Rammal) 여사 등 모두 38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해 연등을 만들고 있다. 한불부인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불어권 국가의 외교관 부인들을 비롯해 상사 은행 등의 지사원 부인과 불어를 구사하는 한국여성들로 구성된 문화교류 목적의 친목 모임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5월중순 실시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순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또 조사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판결에 따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4월 22일 오후 2시 양측의 전문가 1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천성산 환경조사의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최종 서명은 5월 6일에 할 예정.

합의서에 따르면 14인의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며, 분야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이다. 또 조사범위는 과거 조사내용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습지주변 시추조사,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천성산 대책위 대표 지율 스님은 “전문조사업체가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조사실시에 합의한 만큼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신계사 복원 본격 재개

5월3일 남북공동 발굴조사 착수

4월 29일 금강산에서의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신계사 복원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조계종 신계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 · 불국사 주지, 이하 추진위)는 4월 19일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복원일정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첫 사업으로 4월 26일부터 금강산에 연등을 설치해 29일에는 신계사 현지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정 스님과 현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진행한다.

또 5월 3일부터는 조계종과 조불련이 합동으로 만세루와 산신각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불련 소속 발굴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금강산 현지에 도착해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차 추진위회의에서는 추진위 체계를 일부 조정해 현재 130명 중 20여명 내외의 스님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110여명의 스님들은 모연위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만세루 등을 복원할 도목수로는 지난해 대웅전 공사를 담당했던 최현규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올해 예정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 종교인 300여명 결의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300여 종교인들은 4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 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종교인들인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60명의 사형수들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 또한 생명존중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형폐지 및 법령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유철주 기자

낙산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음기도 성지며 관동팔경 명승지 중에 하나인 천년고찰 낙산사의 재난에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웠습니까?

저희 낙산사 대중은 이제야 큰 충격에서 벗어나, 수행이 부족하여 화마를 막아내지 못한 것을 엎드려 참회합니다.

저희 대중은 가슴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국민과 신심 깊은 불제자 여러분들을 접하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한 몸, 한 뿌리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낙산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중은 여러분 마음에 남은 옛 모습 그대로 소박하고 아름답고 기도하기 편안한 도량으로 복원하는데 금생에 성불을 미루고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특히, 낙산사의 심장인 원통보전만큼은 정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기둥 하나, 기와 한 장까지 국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복원하여 누구에게도 고향집 같이 포근하고 정겨운 법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화마가 훑고 간 30만 평의 낙산사 산림은 국민 여러분들이 한 그루씩 심어 일구는 뜻 깊은 마음의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심이 성지라는 금언을 다시 절감합니다. 도량이 거의 전소되는 재난 중에도 일찍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홍련암은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면서 어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믿지 않겠습니까?
낙산사 복구를 헌신해주신 민, 관, 군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낙산사 대중은 '눈앞에 길이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낮에는 삽을 들고 땀흘리며, 밤에는 뭇 생명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낙산사 복원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생의 씨앗을 심는 복밭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정념 합장

만해 체험관 건립된다

홍성군, 30억원 투입
생가터에 2006년 완공

불교개혁과 대중화에 앞장선 스님이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민족시인이면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체험관이 만해의 생가터에 건립된다.

충남 홍성군은 결성면 성곡리 소재 만해 한용운의 생가터 일대에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300평 규모의 '만해체험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일본의 독도망언과 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만해체험관을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성지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만해체험관은 유품전시실을 비롯해 불교사상관 독립사상관 문학사상관 등을 조성해 만해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게 된다. 불교사상관에는 만해의 불교사상을 담은 책자나 각종 기고문 등이, 독립사상관에는 만해의 민족사상이 담긴 저서나 활동 흔적이 담긴 유품이, 문학사상관에는 만해 시와 각종 저작물이 전시되며, 현재 400여점의 유품을 확보한 상태다.

홍성군은 현재 만해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만해 생가터 주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민족시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인 5월에 완공되는 민족시비공원은 만해 한용운의 '복종' 정지용의 '고향' 이육사의 '절정' 윤동주의 '간'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등 광복을 전후해 활동한 민족시인 20인의 시와 어록을 새긴 비를 세워 민족정신을 고취의 중심지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홍성군 문화공보실 박종진씨는 "만해 스님은 꺼져가는 민족혼의 불씨를 지피고 자유와 평화 비폭력 정신으로 민족의 내일을 일깨운 분"이라며 "만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만해체험관을 민족혼의 성지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4월 20일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부처님전에 연등을 공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도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한 기원법회'서 노대통령 불교계 인사와 담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주최로 4월 2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불교계는 화합과 상생 나눔의 불교정신을 구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시간에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김동건 변호사가 '화합과 상생' '나눔'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한 질의에 대한 화답. 노 대통령은 "불교계는 최근 100년간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불가능한 조건속에 살아야 했던 국민들처럼 불교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불교정신을 이제는 꽃피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도가 헛거다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정사와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이용희 국회 정각회장,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 윤원호 열린우리당불자회장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 불교인연 소상히 밝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며, 사법고시 준비도 김해에 있는 장유암에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불교인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사찰에 머물면서 스님들의 욕심을 버리고 큰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과 절제된 생활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며 "그때 절에서 느낀 생각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시절 종정 법전 큰스님이 '세상의 거울이 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치인끼리 서로 칭찬하라'는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초체력은 괜찮아"

"1998년 2003년 떨어진 소득과 수출등의 수치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기초체력은 괜찮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의 해외순방시의 소감과 상황을 피력하며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접을 잘받았다. 외국에 나가보니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평가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보고를 받을때 수치보다는 실업율, 수출등과 관련된 사항은 그 증감을 연도별로 그래프로 그려달라 한다"며 "최근 그래프가 좋은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 임시 봉안

화마를 피해 다른 곳에 보관됐던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이 4월 22일 의상교육관 2층에 마련된 임시법당에 봉안됐다.

낙산사 관음신앙의 중심지였던 원통보전을 대신할 의상교육관은 2001년 지어진 2층 건물(연건평 120평)로 신도교육 및 템플스테이 교육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번 화재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현재 1층은 임시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10여평 규모의 임시법당은 원통보전이 복원될 때까지 법당으로 사용된다.

한편, 문화재복구대책반 김창준 반장(문화재 청 문화유산국장)은 "발굴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직접 하게 되고, 착수 시점은 부처님오신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원 지원 대상 전각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지방유형문화재는 행자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기타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낙산사는 "화재 발생 다음날인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단체, 기업, 군 · 경찰 등 약 55개 단체에서 4800여명이 낙산사 화재 복구 장비지원 및 잔해물 수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6일 100여명의 조계종 특별재난구호단이 급파돼 1박 2일간 잔해물 수거와 이동통로 확보 등을 실시한데 이어, 평창 월정사도 35명의 자원봉사단을 지원해 경내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부산 범어사 30여명의 학인스님들과 부산 홍법사 신도들, 원주 구룡사 불교대학 재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외에도 일출부대 장병 1800여명과 영월경찰서 전의경 80여명, KT,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가 각종 지원활동을 펼쳤다. **남동우 · 박익순 기자**



'불교와 사회' 뜨거운 토론 열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과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이 불교지식인연대(상임대표 김규칠)와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발표장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헌식씨(문명 비평가)의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과 문명혁신의 전략',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불이사상과 21세기 한반도', 김규칠 국민대 객원교수(前 불교방송 사장)의 '복합시대, 인간존엄의 사회철학적 기초'가 발표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존' 운영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최근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서울북촌 '청소년문화존(zone)' 운영 등 6개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파라미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되기는 처음이다.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서울북촌 '청소년문화존'은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일대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공모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총사업비 1억6610만원으로 △전통공예체험(매주) △전통 골목길 찾아가기(격주)-조선시대 북촌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갑신정변의 자취를 따라서, 3 · 1운동의물결 속으로, 박물관과 공방 나들이, 한옥의 건축 미학 속으로, 문학의 향기 속으로 △인사동 다가가기(격주) △인사동 미술여행 △전통공방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일본속 한국문화를 찾아서-청소년 자율탐사단'이 8월 8~13일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찾아간다. 이밖에도 파라미타는 하이서울 청계천 사랑운동(서울시), 소외청소년 심성계발프로그램(문화관광부), 중국청년지도자 초청사업(문화관광부), 체험하는 문화재모니터링 활동(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5월 어린이날 행사 풍성

노래잔치 · 사생대회 열려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맞이한다.

5월 1일 오후1시부터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이봉수)가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17회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02)730-9108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여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올해는 장소를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로 옮겨 펼쳐진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주최 제21회 연꽃문화제도 함께 열려 5월 5일 범어사 일대는 온통 축제한마당이 된다. 12개의 놀이마당이 벌어질 연꽃문화제는 부처님 퍼즐, 기와문양 탁본, 수수깡 바람개비 만들기, 물풍선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알까기 등으로 진행된다. (02)420-3200 (051)864-4569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대구불교방송은 동화사와 팔공산 일대에서 5000여명의 유치원 초 · 중학생이 참여하는 글짓기 그림그리기와 함께 디카 촬영대회인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5월 5일 개최한다.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에서는 어린이날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도 진행된다. (053)427-5114

도선사(주지 혜자)는 5월 5일 오전 10시 제3회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 도선사는 사생대회와 함께 페이스페인팅 등의 간이행사도 곁들여 어린이들에게 흥겨운 놀이마당을 선사할 예정이다.(02)993-3161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도 5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부처님이 좋아요'를 주제로 유치원 · 초등학생 대상의 사생대회를 연다. (052)251-4602 **강지연 기자**

봉축점등 · 경로잔치

서울 성북사암련 · 장학회

서울 성북사암연합회(회장 정수)와 성북사암장학회(회장 지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안암동 개운사에서 지역 어르신 120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겸해 열리는 이날 소년소녀 가장 15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한다.

앞서 4월 29일에는 성북경승위원회(실장 종근)와 성북경찰서 불교회 주관으로 봉축법요와 성북경찰서 인근 봉축등 점등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미래로! 세계로! 불교로!
봉축연합대법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 됩니다.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봉축 점등식
● 일 시 : 4월 29일(음 3.21/금) 오후 6시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봉축탑, 모형'용', 연등으로 장엄한 봉축상징물의 점등

APEC 성공개최 기원 『3천배 철야정진』
● 일 시 : 5월 4일(음 3.26/수) 오후 8시~5일(목) 오전 4시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50여명의 스님과 500여명의 불자들이

시민문화축제
● 일 시 : 5월 5일(음 3.27/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영산재 시연, 육법공양, 난타, 힙합댄스, 브레이크 댄스

봉축연합대법회
● 일 시 : 5월 5일(음 3.27/목) 오후 5시 ~6시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① 2만 여명의 시민 · 불자가 함께 APEC성공개최와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연합대법회
②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찬불합창

제등행진
● 일 시 : 5월 5일(음 3.27/목) 오후 6시30분
● 코 스 :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앞 → 부산불교방송앞 → 범냇골로타리 → 서면로타리

■주최 :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주관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051)867-0501

나눔의 장 복지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군법당 위문법회	4월 중	군법당	극락선원	628-7200
만발공양(무료급식)	4. 5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한방무료진료	4. 6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만발공양(무료급식)	4.12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4.12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자비원 목욕봉사	4.12	각 대상 가정	통도사 자비원	816-2241
경로잔치	4.13 11:00	락서암	락서암	243-0819
무료지압시술	4.17	통도사부산포교원	통도사부산포교원 부광맹인불자회	816-2241
독거노인 무료공양	4.19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만발공양(무료급식)	4.19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부산교도소 위문대법회	4.20	부산교도소	부산여성불자회	817-3166
한방무료진료	4.20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독거노인 무료공양	4.26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만발공양(무료급식)	4.26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자비원 목욕봉사	4.26	각 대상 가정	통도사 자비원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4.26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양방무료진료	4.27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제11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15회 경로잔치	4.29 11: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무료 급식	4월~5월	혜원정사	사회복지법인 혜원	868-0138
도시락 배달	4월~5월	각 대상 가정	사회복지법인 혜원	868-0138
관내 어르신 무료급식	5월 중	진여원	진여원	338-1008
자비의 쌀 전달	5월 중	효자암	효자암	555-9702
부산교도소 위문	5월 중	부산김해교도소	삼광사	808-7111
제3회 경로잔치	5. 1	광명사	광명사	646-0843
제5회 경로잔치	5. 1	남운정사	남운정사	207-4884
어른신 생신잔치	5. 2	내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경로잔치	5. 2	성암사 설법전	성암사	635-3744
독거노인 무료공양	5. 3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만발공양(무료급식)	5. 3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어버이날 효도잔치	5. 3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사회복지시설 위문	5. 3~11	천마재활원 · 성우원 정화양로원 외	삼광사	808-7111
기쁨의 쌀 나누기	5. 3~13	지역내 영세 가정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한방무료진료	5. 4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효친사상 지역노인 경로잔치	5. 4	수덕사 경내	수덕사	642-9557
금화혜인대학 경로잔치	5. 4 14:00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338-2233
자비의 만발공양	5. 5	부산역광장	문화의 집, 물고산도화주민회	506-0146
제4회 경로잔치(자비의 경로잔치)	5. 6 10:00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감로사	866-0454
건강기원 효도나들이	5. 6 09:00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338-2233
경로잔치	5. 6 11:00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338-2233
경로잔치	5. 6 12:00	공장종합사회복지관	공장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어르신 장수잔치	5. 6	용호복지관 앞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6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893-5034
어버이날 행사	5. 6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어르신 효 큰잔치	5. 7 10:30	용호복지관 앞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어버이날 사랑 나누기	5. 7	대상 각 가정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5. 7 09:00	공장종합사회복지관	공장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불우이웃돕기	5.10	극락선원	극락선원	628-7200
독거노인 무료공양	5.10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만발공양(무료급식)	5.10	초읍 반공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5.10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자비원 목욕봉사	5.10	각 대상 가정	통도사 자비원	816-2241
경로잔치	5.10	개금태마공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893-5034
부산대학 병원 봉사	5.12~13	부산대학병원	비구니회업회	754-9297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5.13 14: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독거노인 무료 급식	5.14	옥련선원	옥련선원	757-9067
봉축후원모금 행사	5.14~15	내원정사 앞마당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무료지압시술	5.15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산포교원 부광맹인불자회	816-2241
독거노인 무료급식	5.15	보현의 집	보현의 집	506-0146
해군 위문법회 김해 공군기지 위문 부산구치소 위문	5.15 13:00	해군3함대사령부 김해 공군기지 부산구치소	삼광사	808-7111
비상의약품 지원	5.16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893-5034
독거노인 무료공양	5.17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한방무료진료	5.18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독거노인 무료공양	5.24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양방무료진료	5.25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독거노인 무료공양	5.31	사하시장	사하구불교사암연합회	207-4884
소년·소녀가장돕기 열린음악회	6월 중	혜원정사	사회복지법인 혜원	868-0138

시민과 함께 전시 ·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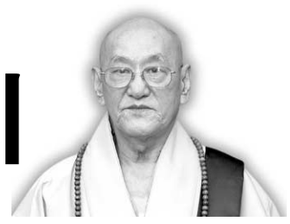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APEC성공기원 및 봉축 희망의 꽃 화분가꾸기	4.9~13	홍법사 꽃길	홍법사	508-0345
화전놀이	4.10 13:00	홍법사 벚꽃터널	홍법사	508-0345
천년향기를 찾아서(고적순례)	4.18 07:00	교대한양프라자출발	홍법사	508-0345
신행단체 임원 템플스테이	4.22~23	홍법사	홍법사	508-0345
제1회 국제 등 만들기 대회	4. 25~30(접수)	홍법사	홍법사	508-0345
제2기 동자승 출가식	4.26 11:00	홍법사 대웅전	홍법사	508-0345
등만들기	4.26	삼광사	삼광사	808-7111
봉축연등만들기 대회	4.27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지광스님초청강연회	4.30 15:0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회의실	부경대학교수물자회 불교동문회 · 불교학생회	620-1597 806-4717
봉축탑 탑돌이	4.30~5.13	부산역광장	삼광사	808-7111
전통차 만들기 체험 및 시음회	4월 중	혜원정사	혜원정사	866-7772
제등행진	5. 1	연산토곡	황정사	861-6645
환경정리 및 환경캠페인	5. 1	성암사 일대 체육공원 계곡일대	성암사	635-3744
전통문화행사(연극 별주부전)	5. 3~4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3000배 참회기도	5. 4	부산역광장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연등만들기	5. 4	부산역광장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디아니띠붓다 서포터즈 결성식	5. 5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853-2021
나눔의 전통차 무료공양	5. 5	부산역광장	성암사	635-3744
낙동가족축제	5. 5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불교조각,달마그리기 체험한마당	5. 5	부산역광장	사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467-5241
생수공양	5. 5	부산진역	부산불교반야선	521-5022
외국인 근로자 제등행진	5. 5	부산역광장~서면R	보현의 집	506-0146
자비마을 입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5. 6 10:00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감로사	867-9119
용호 장승축제	5. 6~7	복지관 앞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흙내음 솔솔-도자기 체험	5. 7	금정도자기체험센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봉축점등대법회	5. 8 18: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컵 연등 만들기	5.11~13	영주암 유치원 · 어린이집	영주암	755-5500
제3회 삼광사 봉축음악제	5.13 19: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봉축연등만들기 대회	5.13	낙동어린이집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봉축전야법회	5.14 18: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제등행진	5.15	남천동	극락선원	628-7200
제등행렬	5.15 19:00	해운대신시가지	부처님마을	704-0332
제등행렬	5.15 19:00	영주암~맹의동부산은행~가곡군통합병원	영주암	754-2210
성암사연등축제(산사음악회)	5.15	성암사 아외광장	성암사	635-3744
꽃등 판매 후원 행사	5.15	당리동 관음사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등판매 후원 행사	5.15	밀양 여여정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노인학대 예방 홍보단 노송봉사단의 예방 캠페인	5.16	금정구 서동 일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한글교실 아외학습	5.20	용두산 공원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지역 근로자 가족대상 가족여행	5.21	경남 합천 바람흔적 미술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가족운동회	5.28	낙동어린이집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청소년 행사 미래의 장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어린이한마당	5월 중	두송복지관옥상 계이트볼장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행복짱	5월 중	인근학교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756-0924
거리상담	5월 중	시내 번화가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756-0924
가출예방토론회	5월 중	양정청소년수련관대강당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756-0924
청소년 농구대회	5. 1	부산대학교 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청소년 언어폭력 예방 집단 상담프로그램 굿마우스	5. 1~31 (월중 4회)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장학금 보시행사	5. 4 14:00	동래구청 회의실	동래구사암연합회	552-1283
새싹들의 큰잔치	5. 4 15:00	공장종합사회복지관	공장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재가아동나들이	5. 5	근교 놀이동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5. 7 15: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문화의 집 1318 페스티발	5. 7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제13회 삼광백일장	5. 8 11: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애니메이션상영회	5.14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영화,영상 제작체험	5.14 15: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문화의 집 1318 페스티발	5.14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어린이봉축한마당	5.15	옥련선원 도솔천	옥련선원	757-9067
장학금 지급	5.16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청소년자아성장 캠프	5.21~22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영화,영상 제작체험	5.21 15: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단기영화제작캠프	5.21~22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영화상영회	5.21 15: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문화의 집 1318 페스티발	5.21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청소년 장학금 지급	5.27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애니메이션상영회	5.28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만화그리기 체험	5.28 15: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2005청소년동아리발대식	5.28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문화의 집 1318 페스티발	5.28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제18회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12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수상자 시상식	6월 중	삼광사	삼광사	808-7111

주목! 83세 노 스님의 법보시





나옹불교전도협회 사무국장 홍인 스님과 불자들이 전국의 교화시설에 보낼 <불교성전>을 포장하고 있다. <불교성전>은 매년 6만부씩 앞으로 30년동안 도서관, 호텔객실, 군부대 등에 보급된다.

내원암 능가 스님 '나옹불교전도협회' 설립하고 본격화

현재 1만권 발송… 매년 6만권씩 30년간
인생·가정 등 대중 이해 쉽게 재편집

30년 전 삼보불교재단을 설립해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위 사진)이 '(재)나옹불교전도협회'를 설립하고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을 시작했다.

세수 83세인 능가 스님은 법화경을 읽은 인연으로 출가한 후 범어사 주지, 세계불교도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해온 스님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으로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 있는 범어사의 어른.

4월 21일, 전국의 교도소 45곳과 청소년 교화소에 1만여권이 처음으로 발송되면서 (재)나옹불교전도협회의 법보시 운동은 본 궤도에 올랐다.

앞으로 매년 6만부씩 30년 동안 각국 외국공관, 대학도서관, 중·고교 도서관, 새마을문고, 주요 호텔객실, 군부대, 경찰관서, 언론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이는 대립과 투쟁, 흥망성쇠가 부단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개인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와 의무에서 출발했다고 능가 스님은 밝히고 있다. 삼보불교재단을 통해 맹인들의 시력을 찾아주었던 능가 스님이 법보시를 통해 지혜의 눈을 열어주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를 펼치게 됐다.

능가 스님 평생의 숙원사업인 법보시 운동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지난해 8월. 법보시 운동을 염두에 두고 불교 가르침을 담은 각국의 불서들을 검토해왔던 능가 스님은 최종적으로 '불교성전' 법보시를 결정했고 영문과, 일어과 교수와 함께 <불교성전>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편역하고 재구성하는데 꼬박 8개월을 매달렸다.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정, 재구성, 발췌의 반복 끝에 <불교성전>이 발행됐다.

이 <불교성전>은 능가 스님이 법보시를 위해 재편집해 출판한 책으로, 방대하고 난해한 <불교성전>의 고전에서 발췌해 빠른 이해를 돕도록 재편집됐다. 불자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도 친밀하게 읽힐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들을 위한 한영대역판도 나왔다.

한편 능가 스님의 자호를 따서 명명된 (재)나옹불교전도협회는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 외에도 <불교성전> 강좌, 불교강연회 등 불교 연구와 선양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내원암 주지 법상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한권의 책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법보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서 법보시 운동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508-6779 후원계좌 121064-51-081308(농협 예금주 불교전도협회)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展 10월 10일까지

현존하는 조선시대 90여 괘불탱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광염(光焰)의 물결을 배경으로 화면 중앙에 노사나불을 당당하게 부각시킨 첫 사례로 꼽히는 신원사 괘불탱. 설법인의 당당한 표현과 뚜렷한 이목구비, 주변 권속들의 늘씬한 신체 비례, 가능한 전신을 드러낸 권속들 간의 공간배치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노사나 괘불탱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4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전에서 열리는 신원사 괘불탱 전시회는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전국의 괘불탱 80여점을 40년의 계획으로 기획 전시하고 있는 괘불탱전 중 13번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괘불탱 전시에 앞서 15일 괘불탱 특별전 개막식을 열었다.

천미희 기자



'천진불심' 연등축제 기간 홍보대사로 활약할 동자승 삭발·수계식이 4월 22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삭발식후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가운데)과 10명의 동자승들이 봉서루 앞에서 '천진불심'을 드러냈다. **배지선 기자**

불교 관광특구 지정 위한 첫 공청회

4월 21일 통도사 설법전서

양산시와 김양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산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21일 통도사(주지 현문)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오근섭 양산시장을 비롯 지역 주민 4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공청회는 김양수 의원의 불교관광특구 지정의 취지 설명에 이어 영산대 정무형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양수 의원은 "전통사찰인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무형 교수는 "양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불교문화자산의 효율성 제고와 잠재력 개발이라는 면에서 불교문화관광특구의 기대효과가 높다"며 "관광자원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하고 불교문화 관광이라는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문 스님은 "양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규제 속에서 개발돼야 하며 예산안 확보 방안까지 내놓아야 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05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흥교 스님(범어사 전계대화상)을 전계사로 계가 설해진 이날 보제루와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2천여명의 대중들은 대승보살이 받아 지니는 십중대계, 사십팔경계를 차례차례 받아 지니며 계를 받아 지녔다.

흥교 스님은 "계는 깨달음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으니 불자들은 지계 정신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거제불교 전쟁 희생자 위령재



거제불교원융회와 거제 재가불자연합회는 4월 17일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거제불교원융회 회장 지연 스님, 김만성 거제 재가불자연합회 회장, 김한경 거제 시장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됐던 모든 영령과 주변의 무주고혼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 열렸다.

지연 스님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 나가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청룡사, 환자·가족 위문공연

대구 남구에 위치한 작은 포교도량 청룡사(주지 보성)가 4월 15일 영남대학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쳤다.

청룡사 주지 보성스님과 신도 30여명은 떡과 음료를 준비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비춤, 바라춤 등 승무와 고전무,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민요 등을 공연했다.

청룡사는 신도가 100여가구에 불과한데도 매주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지역 어르신 무료관광, 경로잔치 등을 열고 있다. 또 지역 독거노인 5~6명에게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은해사, 쌍거북바위 재조명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일제시대 당시 목이 잘린 채 파괴되어 방치되다시피 한 쌍거북바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위한 재조명작업을 펼치고 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은해사 경내지에 방치되어 있던 쌍거북바위는 인근지역의 상징적 예경물로 일본강점기 때 한국정신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교탄압과정에서 파괴됐다. 당시 은해사 스님들과 인근 마을주민들은 쌍거북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대나무를 심어 위장했으나 발각돼 한 마리는 목이 잘린 채 파괴됐으며, 다른 한 마리는 사라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배지선 기자**

불국토, 의료서비스 연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와 부산여자대학(학장 정남이)은 4월 20일 부산여대 마릭홀에서 지역사회복지 일환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2005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 부산광역시 윤용근 사회복지과장, 부산여자대학 김경삼 기획실장 등 1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혜총 스님은 "부산여자대학의 사회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지지망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학협동체계가 원만히 이뤄져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보광사, 불치사리 친견·봉불식



최신납골시설을 갖춘 경주 보광사(주지 석관)가 4월 17일 봉불식과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으며,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식을 위해 스리랑카 비제야시리 대사와 아누라푸라 보리수나무 사찰의 스리니와샤 스님 등 스리랑카 스님 7명이 동참했다.

보광사 주지 석관 스님은 "납골시설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수입은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도솔천 추모관의 상당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APEC 성공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종정협의회(대통정 지산)는 4월 18일 부산 유엔묘지에서 '세계 인류평화와 APEC 성공을 위한 기원법회 및 위령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종정협 대통정 지산 스님, 도통정 혜초 스님, 장로이사 정각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빛고을 연등축제' 업그레이드

봉축기획단 첫선, 예산 5배 증액·대중적인 행사로

빛고을 광주가 4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등축제에 들어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 이하 광주사암련)가 주관한 이날 점등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 도지사, 유태명 동구청장 등 지역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한 달간 광주를 밝히게 될 봉축물은 9m 크기의 대형 조형물로 아기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리며 360도 회전하도록 되어있다. 썰렁했던 예년과 비교해 참석인원이 크게 늘고 조형물도 훨씬 나아졌다.

이처럼 금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예년과 달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한 광주사암련이 대대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은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봉축기획단 출범.

광주사암련은 금년 봉축행사를 '빛고을 연등축제'로 명명하고 2000여만원에 불과했던 봉축예산을 1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6명으로 구성된 봉축기획단은 서울 봉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봉축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봉축준비를 하고 있다.

봉축기획단은 5월 8일을 빛고을 연등축제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광주공원-금남로-도청 앞에 이르는 거리에서 축제마당을 펼친다. 또 빨강 주황 노랑색 등 6가지 색의 전통한지로 등을 제작해 광주시내를 밝힐 예정이다.

각 사암에서 자체 제작한 반야용선, 관음상 등 장엄물과 봉축기획단이 특별 제작한 사천왕상, 비천상 등 대형 장엄등을 내세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적인 제등행진을 선보인다.

제등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대동한마당은 전남 도청 앞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광주시민과 불자들이 어울려 불교예술 공연을 즐기며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할 예정이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6색 전통등 · 특설무대
대규모 제등행진 등
'함께하는 축제' 구상



4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봉축점등식 모습.

'제주바라밀호스피스' 창립

제주에 불교 호스피스 단체가 창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운영하는 춘강정사 주지 수상 스님과 20여명의 불자들로 구성된 '(가칭)제주바라밀호스피스'는 4월 17일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라밀 호스피스가 펼치게 될 활동분야는 간병봉사와 장의봉사. 바라밀호스피스는 창립 이후 곧바로 태고종에서 운영하는 치매전문요양원인 태고원과 제주양로원, 제주양로원 요양원 등 3곳 시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 간병봉사를 한다. 또 제주치매전문노인병원과도 협의해 불교호스피스를 알리고 활동무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각 병원이나 호스피스 요청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간병봉사도 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백양사 곡우다례 봉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는 4월 20일 곡우절을 맞아 조사전에서 다례를 올렸다.

이날 곡우다례에는 전국에서 모인 문중 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다례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초청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모여 다담을 나눴다.

원로모임에는 종산(보살사), 지혜(대법사), 보성(송광사), 활안(천자암), 원명(관음사), 천운(대흥사), 동춘(해림정사), 진제(해운정사), 혜정(법주사), 성수 스님(황대선원) 등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적조사

경산 스님 수행·업적 조명 한창



법당이 비좁아 비록 법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밖에서라도 법회에 꼭 참석할 정도로 신행에 열심인 적조사 신도들. 적조사는 신도들에게 신행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올 초파일경 '조사당' 건립에 착수한다.

'염불관선' 도량으로 유명…전국 기도객 참배
조사당·유물관 건립 통한 신행·문화공간 마련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적조사(寂照寺). 사찰 이름 그대로 고요함(寂)이 햇살처럼 비치니(照) 기도하기에는 그만인 절이다.

적조사는 꽤 유서깊은 전통사찰이다. 조선 헌종 15년에 창건돼 '염불관선(念佛觀禪)' 도량으로 수행과 기도객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후 불에 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경산 스님이 1977년 중창, 관음기도도량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영험있는 기도도량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도객들이 찾아올 정도가 됐다.

그런 적조사가 '조사당'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25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지어질 조사당에는 대적광전, 지장전, 조사전, 경산 스님 유물관, 다원, 서점 등이 들어서며 올 초파일 전후로 공사에 착공해 2007년 완공할 계획이다.

조사당 건립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신도들이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적조사는 2002년 자성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조사전과 관음전이 수리 복원하고 대웅전 기와불사에 이어 단청불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찰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도들의 신행공간은 새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대웅전(24평)과 관음전(30평)의 규모가 작아 법회 때만 되면 많은 신도들이 법당 밖에서 법회를 봐야 하는 처지다.

둘째는 경산 스님의 수행과 업적을 조명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경산 스님 유물관에는 경산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친필휘호 등의 유물이 전시된다. 경산 스님 유물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은사스님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는 주지 자성 스님의 신념때문. 은사스님을 제대로 예경할 만한 장소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던 자성 스님, 그리고 그런 자성 스님의 보은의 정을 알고 있는 신도들은 하루속히 조사당이 건립되길 발원하고 있다.

"기도를 할 때는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신도들과는 언제든지 함께 기도합니다. 조사당 불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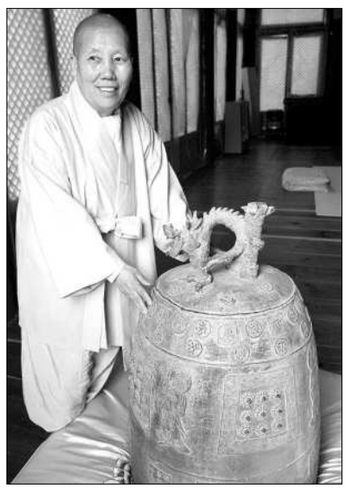
자성 스님은 조사당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조사당이 건립되고 경산 스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성 스님과 신도들은 지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02)924-5362

한명우 기자

돌아온 범종

일제 전쟁무기 공출 6·25 화마 모면

60년만에 완주 안심사로 귀향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이 범종을 살피고 있다.

하마터면 일제의 공출로 전쟁무기가 될 뻔했던 범종이 6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중생구제의 범음을 내게 됐다.

완주 대둔산 안심사(주지 일연)는 최근 금산 보석사가 보관하던 안심사 동종을 이운하고 범종각 불사에 들어갔다.

이 종은 해방 전 전쟁무기용으로 공출되어 전국에서 수집된 고철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다가 일제의 패망으로 화를 면하게 됐다. 해방직후 공출물품 담당자의 연락으로 당시 안심사 본사인 보석사 스님들이 인수해 보관하게 됐다.

그 뒤 사중스님과 신도, 지역주민들은 보석사에 보관중인 안심사 종을 되돌려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0년을 보내게 됐다.

2년 전 안심사 주지로 부임한 일연 스님도 주민과 신도들의 요청으로 보석사를 찾게 됐다. "종을 처음 접하고 마음이 찡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니 그날 밤 품안에 종을 껴안고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부터 '종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며 기도에 들어간 일연 스님은 보석사, 교구본사 마곡사, 총무원에 눈물로 호소했고 얼마 전 종을 이운해 가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종이 오던 날, 안심사 대중들은 감격했다. 무려 60년 만에 돌아온 범종은 아무런 손상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연 스님은 "범종은 많은 이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조성되었기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다"며 "안심사가 6.25때 소실되었는데 너무 일찍 왔어도 그때 화마로 사라졌을지 모르기에 피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심사 동종은 전체 높이 97cm, 지름 63.2cm 무게 370근으로 종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1760년(영조 36) 조성된 것으로, 조선시대 범종으로는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연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종각을 건립해 종소리를 울리도록 하겠으며, 관계기관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완주=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O · P밴드' 입니다
(Okcheon Police)

옥천서 윤왕근 · 한준희 경장
기타 메고 지역민에 연주 공연

4월 16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옥향아파트 단지 내. 옥향아파트 주민들이 주최하는 벚꽃축제에서 7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옥천경찰서 'O.P(Okcheon Police) 밴드'. 2002년 결성돼 지역 행사 때마다 공연을 해 온 'O.P 밴드'는 이날도 프로급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끈 사람은 리드기타를 맡고 있는 수사계 윤왕근 경장. 고등학교 때 그룹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연주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그 옆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는 보안계 한준희 경장은 밴드가 결성되면서 키보드를 배워 그리 능숙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솜씨를 자랑한다.

이 두 사람은 옥천경찰서불자회 회원.

"불자회나 밴드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명우 기자



공연중인 윤왕근(왼쪽) 한준희 경장.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교육 과정 / 내 용		강 의 내 용	강의일자	지도교수
출가자(행자) 교육 과정		출가득도를 희망하는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의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목.금	본교 교수진
경전연구과정		금강경,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금	신규탁 연세대교수
의식교육과정	기본반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등 초심자도 여법히 의식을 집전할수 있도록 함	목.금	능해스님
	전문반	각단불공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사십구재 천도재의식과 바라무 나비무등의 작법의식 을 집중강의함	목	능해스님
	연구반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재 방생 점안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수	경허스님
특강과정	작법반	불교의식중 바라춤 나비춤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도명정안스님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을 지도함	화	대혜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목	지홍스님
	생 활 역학반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금	대각스님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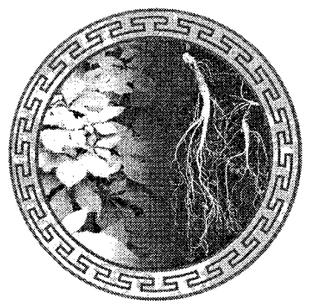
3 개강일자 2005년 5월 3일(음 3.25) 오후 2시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반명함판사진2장. 각반 30명이내,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02)747-9290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연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달라이 라마 일본방문 본지 독점 인터뷰

“가까운 시기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달라이 라마가 1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월 18일 오후 2시 25분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달라이 라마는 출국에 앞서 일본 힐튼 나리타 호텔에서 현대불교와 독점 인터뷰를 가졌다.



본사와 인터뷰 중인 달라이 라마.

▲한국 불자들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원해 왔다.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의 불자 도반들에게 직접 인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한국 불자들을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도 만나왔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한국불자들의 신심과 더불어 그들이 나의 한국 방문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로 인해 나 역시도 한국 불자들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한국에서 만나고픈 염원이 생겼다. 나를 같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려주는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감사드린다. 나에게는 이처럼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불법의 가르침과 인류공동 가치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방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나의 한국 방문 시기는) 한국 정부 측에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한국 정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사실 내가 해외를 다닐 때는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나는 언제나 ▲인류가치의 증진과 ▲환경의 중요성 ▲전통과 문화의 차이 존중 ▲종교 간의 조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문시기 한국정부에 달려있어”

▲공교롭게도 (달라이 라마의) 방일 기간 중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에서 문제와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나는 사실 아시아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이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지닌 같은 인류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주로 서양과 동양을 나누지만 나는 이 둘 역시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생김새, 문화, 생활방식 등의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감정을 지닌 인간이다.

그러나 어떤 현실을 판단하거나 지켜볼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망치게 된다. 따라서 바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언제나 이에 기본 사상을 두고 4가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첫째, 각각의 문화, 전문분야가 다른 여러 부류의 학자들과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달리 보이는 문화, 학문 안에 담긴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모든 학문은 그 개념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인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전통의 이웃종교 수행자들과의 만남이다. 나 역시 테레사 수녀 등을 비롯한 가톨릭 수행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톨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가톨릭, 유대교 등 이웃종교인들의 불교수행이 늘고 있다. 모든 종교에는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알고 이웃종교의 수행법에도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이웃종교의 주요 성지를 순례한다. 명상 등의 고요한 수행법만이 아닌 직접 발로 움직이는 교류로서의 수행이다. 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웃종교의 성지를 순례해 왔다. 당시 인도 내의 이슬람, 힌두, 불교 성지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스페인의 파티마 등을 순례 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처럼 성스러운 장소에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매우 큰 힘을 느낀다. 더불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경외심도 커지게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관광이 아닌 순례의 목적으로 이웃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공부하도록 권하고 싶다.

넷째 돌아가신 교황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다른 전통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류와 대화의 장을 강조하고 싶다. 갈등과 대립은 서로를 알지 못해 좁은 견해를 갖게 되므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넓은 시야와 자비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하라.

“통일 염원하는 마음 잊지 말라”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다. 통일을 위해 한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인가.

–통일은 전적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하지만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바람을 이야기 하자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독일, 베트남 등의 통일에는 모두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어, 전통 등 고유 문화유산을 지키고 문화적인 교류를 이어가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정보의 자유, 열린사회라는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인류지식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정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장애요인이다. 자유롭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면 이를 나누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염원도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일본 나리타=한상희 기자



현대불교 취재팀과 함께한 달라이 라마. 왼쪽부터 본사 이은아 PD, 한상희 기자, 달라이 라마, 양원석 PD.



“공(空) 깨달은 후 자비심 내야”

‘용수보살의 보리심론’ 강론 한국 출·재가자 150여명 친견

달라이 라마가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을 주제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 6시간에 걸쳐 일본 가나자와 현립음악당에서 강론했다.

이날 강론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스님과 재가불자를 포함한 150여 한국불자들과 친견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여부였다.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어디든지 특별히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한국에 가면 김치를 꼭 먹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사실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 뿐”이라고 덧붙였다.

‘용수보살의 보리심론’ 강론내용 요약

인간에게 동물과는 달리 사고의 능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을 통한 고통이 다른 중생들보다 더 크다. 그래서 진실한 법과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 견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통과 불행을 없앤 마음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불행은 마음의 다른 작용으로 인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외부적인 무엇, 혹은 물질로 인해 마음의 불행을 없앨 수 있다면 세상에는 마음의 고통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 욕망, 의심, 질투, 경쟁심 등 마음 속의 다양한 것들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낳는다.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소승의 가르침 위에 대승이 있기 때문에, 소승 없이 대승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승, 소승, 밀승을 나눠 모두를 별개로 나누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행위이다.

최고 단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의 수행법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승, 밀승의 수행법과 맨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소승의 수행법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이들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강론의 주제는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으로, 용수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400년 후 나투신 중관계와 유식의 대표적인 논사다. 또 용수 보살 당시에는 나란다 대학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다.

〈보리심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티베트 불교의 닝마, 카규, 겔룩 등 종파를 넘어서 매우 귀중한 논서이기 때문이다. 또 불교의 기본사상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비교적 이해가 쉽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해 설법하실 때, 사성제의 본질, 작용, 결과의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성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모두에게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행복을 원하고 불행은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살피면 된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라는 의식으로 인해 무언가를 느끼고, 알게 되는데 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면 결과물인 고통을 없앨 수 있게 된다.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은 번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번뇌부터 없애야 한다. 번뇌를 끊는 상태가 곧 ‘멸제’이며 이를 통해 도달하는 것이 ‘도성제’다.

‘나’라는 존재는 5온 18계 12처에 의지해서 생겨난다. 여기에 의지한 ‘나’를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객체, 이를 인식하는 마음이 주체다. 인간의 마음은 또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나뉘진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의식을 거쳐 청정심, 여래심에 해당하는 미세한 마음을 가르킨다. 결국 미세한 마음(청정심)은 본래부터 물들지 않은 마음, 애초에 ‘남’이 없는 마음인 것이다. 외부 요인을 인식하는 마음도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의 본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건과 원인에 의해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는 고요한 성질의 마음이 공의 자성이자 본성이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중생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라 말씀하셨다. 보리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이타심이오, 다른 하나는 보리를 구하겠다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보리심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다.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은 세존들과 대보살들께서 보리심을 일깨운 것과 같이 나 또한 보리심을 일깨우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다른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보리심의 모든 중생들의 각기 다른 근기와 성향에 따라 알맞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먼저 깨달음을 얻고자 함에서 발현된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넓은 마음,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없이 넓은 마음이기도 하다.

많은 보살들이 보리를 발심한 까닭은 △자유롭지 못한 중생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며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보리심은 △속제와 △진제의 보리심 두 가지로 나눠진다. △속제의 보리심은 발심자가 이타를 위해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탈을 이끌겠다는 여러 가지 행위가 상대적인 진리,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다양한 대상들에게 내는 마음을 일컫는다. △진제의 보리심은 절대적 진리를 의미한다. 발심자와 중생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들 보다는 모두 각각에게 진여, 공성이 있다, 모든 법이 공성이 있다는 면에서 한밭이다. 이처럼 모든 법에 진여가 있음을 깨달은 것을 진제의 보리심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진제의 보리심은 속제의 보리심을 통해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진제의 보리심 대상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문, 연각, 보살승은 공을 명상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각각 동기와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보살들의 공 수행은 보리심이 바탕이 되었으므로 이들의 공성 수행은 소지장을 깨닫는데 큰 힘이 된다.

〈보리심론〉에서는 또 ‘보리심의 수행을 통해 윤회를 부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성제와 집성제를 통해서 윤회를 없앨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회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저지른 어떠한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윤회를 갖는 것인데 이 원인이 집성제다.

집성제는 업과 번뇌로 나눠진다.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뿌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인 번뇌이다. 결국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번뇌로 인해) 고통과 윤회를 갖게 된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인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에 이르게 된다. 즉 마음을 다스려야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마음알기, 마음다스리기가 매우 중요하다.

〈반야심경〉에는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의 온이 모두 공하다고 한다. 오온은 본래의 고유 의 성질이 없는 무자성이라고 표현한다. 오온 중 의식 자체를 의미하는 식온 역시도 무자성이라 한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오온인 의식과 몸으로 이뤄졌는데, 바탕이 되는 오온이 무자성이라면 그 바탕 위에 붙여진 나 또한 본래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공을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 극단을 끊은 상태 가운데 자리, 중관의 사상을 뜻한다. 연기가 곧 공이며 연기로 보는 것이 곧 중관이다. 용수보살은 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살의 대근기는 먼저 공을 깨달은 후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믿음을 통한 자비심의 발로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대근기보다 굳건하지 못하다. 공성의 지혜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근기는 윤회를 사라지게 하는 공성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있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리심론〉은 결론적으로 나와 남의 행복을 바꾸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를 누릴 수 없고,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낸다면 윤회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불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같이 발보리심 게송을 낭독하고 평소에도 이를 마음에 품고 보리심을 일깨우도록 하라.

발보리심 게송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불법승의 정수에 이를 때까지 항상 나는 귀의 하리라. /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정근하며,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부처님 전에 머물며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리라. /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 까지 내가 머물러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기를.

달라이 라마 일본 법회관련 동영상은 붓다뉴스(buddhanews.com)가 독점 제공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귀와 입’ – 통역자 게쉐 스님과 린첸 씨

“법을 넘어 마음까지 전하려 합니다”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달라이 라마 방일 기간 동안 그의 법을 전한 사람은 실제로 세 사람이었다. 달라이 라마 자신을 비롯해 영어 통역의 게쉐 돌지 담둘(Geshe Dorji Damdul) 스님, 그리고 일본어 통역을 맡은 마리아 린첸(Mariah Rinchen)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의 통역관은 언제 어디서든 실제로 그의 법문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는 귀와 입이다.

스스로 ‘새내기 통역관’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영어 통역관 게쉐 스님과 달라이 라마의 인연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개인적으로 친견하는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가 선뜻 ‘내 영어 통역관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을 때 게쉐 스님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단다. 하지만 스님은 영국에서 정식으로 어학연수까지 마치고 미국, 인도 등지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의 크고 작은 대중법문의 영어 통역을 맡아오며 지난해부터 달라이 라마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일본어 통역관 린첸 씨는 와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졸업 후에도 건축가로 활약했다. 1994년 건축가로서 경력을 쌓아갈 때 쯤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그의 어머니가 타계했다.



마리아 린첸



게쉐 스님

“그 때 저는 일과 어머니의 간호만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 방황하던 중에 인도로 떠나게 됐고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불교와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린첸 씨는 1995년부터 다람살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일본어 통역관이 된 것은 2000년 일본 가나자와 부쇼가야(佛性會) 재가불자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칼라차크라 행사부터다. 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일시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며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 불교 등 종교분야나 달라이 라마처럼 큰 스님의 법어를 통역하는 것은 명예로우면서도 동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감은 의외로 정반대였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법문을 설하시는 중에도 항상 통역관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어렵지 않은지 먼저 챙기십니다. 그 분의 넓은 배려와 자비심에 법단에 오르기 전 가졌던 긴장감이나 두려움도 자연히 사라지구요.” (린첸 씨)

“통역관 뿐 아니라 수행자로서 달라이 라마의 곁에서 얻는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학문이나 사람을 떠나 세상 모든 것에 귀 기울이는 열린 사고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외국어 통·번역의 전문인력 양성이 큰 과제로 남아있는 한국불교에도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큰 스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은 단순한 통역가가 아닌 가르침의 전언자에요. 법문에 담긴 마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린첸 씨)

“불교계에서 통역을 맡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 실력이 바닥납니다. 불자로서의 마음공부, 수행과 함께 통역가로서의 기술적인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바른 뜻을 전할 수 있겠지요.”(게쉐 스님)

한상희 기자

달라이 라마 방일 취재후기

‘달라이 라마 호오 사마(法王樣: 법왕님)’는 욘사마, 뵨사마보다도 뜨겁게 일본 열도를 달궜다. 달라이 라마가 방일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그가 방문한 일본 전역은 ‘호오 사마’를 열광하는 일본 불자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가득 찼다.

달라이 라마의 공식명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라이 라마 성하’ 혹은 ‘법왕폐하’ 쯤이 된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를 부를 때는 항상 ‘폐하’ 혹은 ‘마마’의 극존칭을 붙여야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 될 거다. 그러나 정작 ‘법왕폐하’ 자신은 대중법문에 모인 5~6천여 명의 대중 가운데 가장 소탈한 모습으로 하심과 자비심을 내비쳤다.

달라이 라마는 도쿄, 구마모토 등 대중법문 장소가 아무리 커도 되도록이면 모인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일일이 눈을 맞춰가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가나자와 기자회견 시 삼엄한 경호로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강하게 저지하자 먼저 “괜찮다”고 나서 경찰들이 머쓱해지기도 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는 왜 달라이 라마가 가는 곳은 세계 어디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대중이 모이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흔히들 말하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아닌 모든 중생들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도 배려하려는 달라이 라마의 진정어린 자비심 때문이었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호압사 신도봉사회 보리수회

치매어르신 부모님처럼 모셔요

"할머니, 저기 선생님 따라하셔요. 이렇게요, 응?"

서울 시흥 혜명복지원 청담노인복지관(관장 혜성) 치매단기보호센터.

4월 18일, 월요일 아침마다 율동을 한 가지씩 배우는 어르신들이 '고향의 봄'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행동이 서투르다. 어떤 어르신은 숫제 관심도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일일이 선생님의 동작을 알려주면서 주먹을 꼭 잡고 폈다 쥐었다 하는 사람은 호압사(주지 원욱) 신도 봉사모임인 보리수회 문복렬(55) 보살이다.

문 보살이 어르신들의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돕고 있는 동안 같은 보리수회 백옥례(57) 보살과 김경숙(57) 보살은 노인들의 한방 치료 돕기에 한창이다.

"우린 그냥 선생님들 도와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만 하는 건데요, 뭘."

백 보살과 김 보살은 자신들이 하는 봉사를 한껏 낮춰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봉사는 가장 세심하고도 가까운 봉사다. 쑥뜸을 뜨고 침을 놓는 자리를 소독하고, 뜸을 올려놓은 부위가 뜨거워지면 다시 갈아주고를 반복하는 것이 전부라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기저기서 '뜨겁다'는 비명이 터져나올까봐 마음이 바쁘다.

보리수회는 7년 전, 4명의 불자들이 도반으로 만나 사찰 공양 등 절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1년 전부터 청담복지관까지 봉사 영역을 넓히게 됐다. 같은 절 신도는 아니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허연덕(55) 보살도 호압사 신도들과 자연스럽게 보리수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살림만 따로 하지,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한다"는 보리수회 보살들. 지금까지 같이 해 온 세월만큼 앞으로도 함께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다.

김강진 기자



호압사 신도 봉사회인 보리수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치매단기보호센터를 찾는다. 사진은 4월18일 센터를 찾아 어르신에게 뜸봉사를 하는 모습.

성인용 기저귀·옷·양말·간식 늘 부족해요

청담노인복지관 치매단기보호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대소변을 해결해줄 성인용 기저귀가 항상 필요하다. 또한 의류 · 양말 등은 노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바자회 물품으로도 늘 부족한 상태다. 보리수회 문복렬 보살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도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특히 컴퓨터가 없어 고생"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정도 함께 호소했다. (02)806-1377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 날 법당에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다.

절 한번에 100원 "사랑이 쌓여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돕기 3000배 500여명 참가

옷은 이미 땀에 젖은 지 오래다. 밤 추위 때문에 덧입었던 옷을 벗어도 흐르는 땀은 주체할 수 없다.

'딱' 하고 죽비 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들리면 절하고를 쉴 새 없이 반복한다.

올해 봉축 표어인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맞춰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는 500여 명이 모여 '절 삼매경'에 빠졌다. 이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5회째 펼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인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다.

이번 행사는 절 1배당 100원씩, 다만 3000배 보시금은 3만원으로 책정, 각자가 절한 횟수만큼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음은 있으나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진기도 당일 행사 부스에 마련된 모금함에 직접 보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모인 기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복지재단이 직접 전달하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을 난치병 아동들을 생각하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쾌유의 원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아이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의 법문으로 입제식이 시작되면서 108배가 진행됐다. 어느 노보살은 다리가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2, 3배 할 동안 겨우 1배를 해내지만 그 한 번 두 번 이어지는 절에도 정성이 가득하다.

시간이 흐르고 정진이 계속되면서 절을 하는 몸이 무뎌지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참가자들의 머릿속을 스친다. 그러나 한 번씩 절을 해낼 때 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금도 조금씩 커지기에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염원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자기 내면의 부처 앞에 선 이들의 바람은 흐르는 땀 속에 고스란히 녹아 나온다.

새벽 4시. 드디어 3000배 정진은 끝이 났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오늘 한 3000배가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의 등 축제'

"나와 이웃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등을 달았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에서는 4월 18일부터 복지관과 인사동 일대에 연등을 달고 '나눔의 등 축제'를 시작했다.

이번에 4회를 맞은 나눔의 등 축제는 5월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자비와 효(孝)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물론 가훈써주기, 장터, 자원봉사체험 등으로 꾸며질 이번 행사는 5월 16일까지 펼쳐진다. 장터와 공연 수익금, 연등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중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나머지 수익금도 복지센터 회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버스 구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02)732-2115

김강진 기자

안면암, 낙도장학금 500만원 전달



낙도지역 초중고생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안면도 안면암 낙도장학회(회장 김무량화)는 4월 15일 안면도 관내 7개 초중고교 학생 3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무량화 장학회장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열심이 공부하면 반드시 후원자가 생기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안면암 원주 설암 스님은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남을 위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낙도장학회는 1998년 낙도포교전진기지인 안면암을 건립한 허공장 불교신행회 지도법사 지명 스님이 김무량화 보살이 기탁한 1억원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2002년부터 매년 3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현재까지 총 120명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형주 41,370원
윤선애 10,000원

총 누적금액 40,135,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 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해동불원(海東佛院) 자비회(慈悲會)

베트남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초혼, 재혼)

삼보에 귀의 하옵고

本佛院慈悲會에서는 國家發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現在 몇쌍을 베트남에 출국하여 寺院을 가지고 布敎 하시는 한국스님들의 指導로 成大한 結婚式을 올리고 왔습니다. 本 行事가 成功的으로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各 寺庵 스님들의 協助아래 잘 이루게 되었음을 深心한 謝意를 올리며 앞으로는 結婚한 신부들을 3개월 가량의 生活韓國語를 敎育 시켜서 言語의 不便을 덜고자 努力 할 것이며 베트남에 계신 스님들의 엄선된 新婦로 先定할 것입니다.

合同 結婚式 等으로 諸搬 經費를 줄여서 成婚코저 하오니 各 寺庵 스님들께서는 조금도 심려 마시고 本運動에 同參하시여 많은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各種 結婚 사진과 현지 촬영한 비디오 필림을 보관 하고 있으며 의심점이 있으시면 왕림하시여 VTR로 시청 하시며 상담을 바랍니다.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탑골공원 뒤편) 전화 : 02)741-4031~3 팩스 : 02)765-3169
직통상담전화 H · P. 011-494-9595 담당스님 : 만해스님

海 東 佛 院 慈 悲 會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6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1 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5년 6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5년 6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해 봉축위원회는 1년 내내 고민하고 구슬땀을 흘린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상희 과장, 수암 스님, 박용규 중앙종회 사무과장, 방광일 차장. 사진 뒷쪽 왼쪽부터 주상한씨, 김낙현 계장, 조양희씨, 박철규씨, 강문정 간사, 홍민석 간사.

감동·환희 우리 손에 달려있죠

연등축제 진행본부 봉축위원회



봉축위원회는 원만한 봉축행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한다.

행사 준비로 1년 내내 부처님오신날인 사람들
전통 살리며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킨것 큰 성과
화려함보다 많은 참여 중요…청소년 감소 '고민'

"올해 봉축 표어인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처럼 불교문화마당이 열리는 5월 8일은 '나눔과 회향의 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50여개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홍민석 간사(42, 법인)에게다. 홍 간사는 올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에 참여할 50여 단체 관계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잘 설치된 부스와 잘못 설치된 부스를 설명할 때 사람들의 눈은 더욱 커졌다.

"부스 중간에 보시함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인테리어를 잘 해 놓거나 사람들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부스는 줄을 섭니다. 즉 어떤 유인책(?)을 쓰는가가 관건입니다."

설명을 마친 홍 간사는 자료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 봉축위원회 사무실이다.

1년 내내를 부처님오신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방광일 차장(62, 보수), 박상희 과장(48, 적조월), 김낙현 계장(40, 거운), 홍민석 · 강문정(35, 보현행) 간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봉축행사가 끝나면 자료정리 등 마무리 하는데 2~3개월, 내년 봉축행사 기본 계획 및 예산 수립, 홍보물 제작에 2~3개월을 보낸 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각종 행사를 접수하고 자료를 배포하다보면 봉축행사가 또 코앞에 닥치는 것이다.

봉축위원회 취재차 사무실에 들러 질문을 하려고 하니 손사래부터 친다. "지금은 정신없으니까 제발 나중에 하자"며 애원조로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봉축 행사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가 보름여 앞으로 닥쳤기 때문이다. 전화 받는 사람,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사람, 자료 챙기는 사람. 그야말로 전쟁통이다.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방광일 차장이다. 봉축위원회 고문격인 방 차장은 봉축행사 관련 각종 인허가와 서울시내 가로연등 설치 및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0년대부터 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방 차장은,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진 당시 협조가 잘 안돼 싸움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방 차장 옆 자리에는 박상희 과장이 있다. 봉축행사 '산 증인'이라고 불리는 박 과장은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1989년 서울지역불교청년단체협의회(이하 서불청)에서 행진에 그치지 말고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자며 연등놀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서불청 총무가 바로 박 과장이다. 96년부터 상근하기 시작한 박 과장은 봉축행사에 관한한 '공식 대표 인물'이다.

연등법회와 제등행진을 담당하는 김낙현 계장은 연등법회 때 비닐이나 천으로 만든 상징물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된 뒤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은 시커멓게 탄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올 연등법회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로(?) 때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홍민석 간사는 불교문화마당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상근한 홍 간사는 "이전 행사가 신도회나 청년회 중심의 아마추어적이었다면 전통과 국제 분야가 접목하면서 보다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강문정 간사는 지방단체 행사 접수와 연등놀이 회향 등을 책임지고 있다. 강 간사는 "이제 봉축행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작은 단체와 큰 단체간 격차가 즐어들었을 뿐 아니라 예전에 비해 질적인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봉축행사 실무 총책임자인 무관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실무국장인 수암 스님(조계종 총무국장), 조양희, 박철규, 주상한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봉축행사가 요즘처럼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치러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강점 후 조계사-종로4가-을지로-시청앞-안국동-조계사를 도는 제등행진이 동국대-종로-조계사로 이어지다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후 여의도광장-조계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의도광장에서 조계사까지 10km 정도 행진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진이 빠져버려 다른 행사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6년 동대문운동장-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진이 '연등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대동(회향)한마당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대거 동참하는 종합적인 축제 성격을 띠게 됐다.

하지만 제등행진이 너무 대형화되고 화려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제등행진의 원래 의미인 '빈자일등(貧者一燈)'을 거론하며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등불만이 밤이 깊어도 밝게 빛났던 것처럼, 무명을 밝히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만든 등이 제일 좋은 등"이라며 "큰 단체가 작은 단체를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해마다 외국인 참여는 늘어나는 반면 청소년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며 "종단 차원의 청소년 포교 대책이 시급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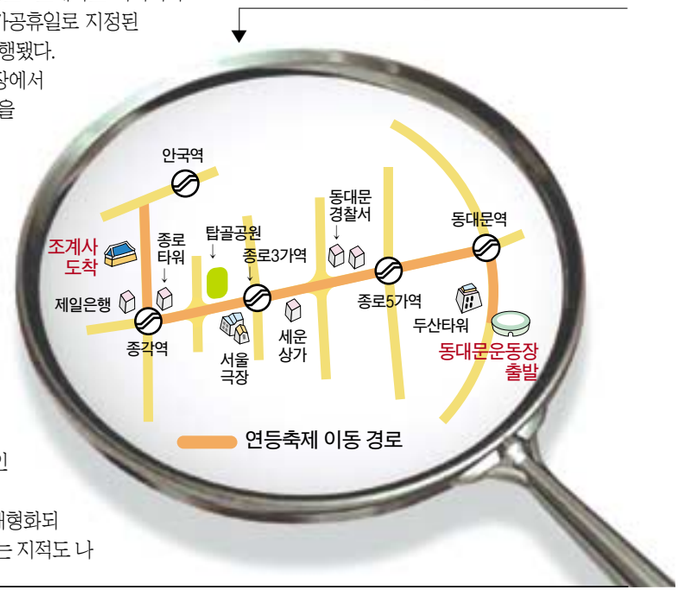
■ 올 연등축제 '특별 코너'

진행요원 보강 매끄러운 운영
지율 스님 '생태놀이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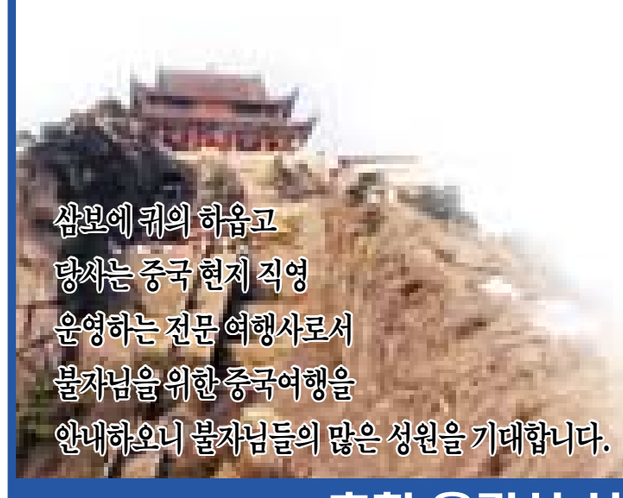
올 연등축제 제등행진은 이전에 비해 보다 박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봉축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10여개 중심 단체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제등행진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러자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행진, 중간중간 잘라먹은 듯한 행진 등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제등행진에 진행요원을 보강해 물 흐르듯 자연스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올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에 설치되는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 부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율 스님은 부스 2개 중 1개에는 천성산과 함께하는 생태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는 생태등 만들기, 생태그림 그리기 등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다른 1개 부스는 지율 스님이 수놓은 대형 그림과 함께 서명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진다.

2005 연등축제 코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9일
매주 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1,790,000원 / 8명이상 출발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제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쇼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제1차 보현도량 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

-더불어 살아야 할 삶[共同體]을 위한 불교적 패러다임[緣起와 中道]-

5월 1일~7월 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도피안사 대웅전

도피안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다함께 더불어 살아야할 인류의 바른 삶을 위하여 우리 불교인들이 펼치는 구국구세(救國救世)의 원리와 그 방략. 이 시대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불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대비구세의 서원과 지극한 불행(佛行)을 온몸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를 불교로 끌어들여 불교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므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이룩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활발발한 불교를 보고 배우게 된다. 이같이 삶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일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대인에게 빛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로 주어진 자기성숙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선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토대인 '가정의 가치'를 제1차의 주제로 선정했다. 이 일은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불교가 껴안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근원적인 방법이 되고 길이 되며,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 - 새로운 '가정의 가치'를 찾아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아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가정이 더 이상 공존과 상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더 이상 개개인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고 있다. 동체대비의 실천장이 되어야 할 가정이 권리 다툼의 장(場)이 되고, 가족관계가 서로 타인처럼 무관심하거나 치열한 이해타산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 가치는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는 아직 등장하지 못한 채, '전통적 가치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근본이었던 가정이 표류하고 있다.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우리들 '가정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거나 새로 찾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그나마 평범한 가정조차도 붕괴될지 모른다. 모든 공동체의 근본인 가정이 살아나야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려야 할까? 인류는 이제 싫든 좋든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다. 여태껏 살아온 삶의 형태나 관습을 떠나,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돌려 본 채,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緣起]와 역할[中道]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 기왕 새로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다. 그러나 인간에게 분명한 사실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 토대 위에서 '가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가장 긴급한 구국이며 구세다.

"불자형제들, 여기 보현도량 도피안사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가슴을 열고 모두의 길을 찾아봅시다. 분명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교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근본이며 보살행의 터전이고 그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구국구세(救國救世)란 부처님의 본원(本願)인 대비구세로부터 비롯되어 대승불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보살사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불교 특유의 반야바라밀다 신앙에 의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불교를 가혹하게 탄압한 조선조에서도 그 정신은 불타올랐다. 특히 일제강점기 용성 조사는 대각교를 통한 독립운동으로 줄곧 구국구세에 몸 바쳤으며, 조사의 법을 이은 동산 대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재건하므로, 소천 선사는 6 · 25전쟁의 고난 속에서 '금강경독송구국원력대'를 만들어 각기 그 정신을 이어 나갔다. 면면히 이어진 이 전통을 광덕 스님이 물질문명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구제하고자 펼친 불광(반야바라밀다결사)운동으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편: 매 번, 서울지하철 사당역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전세버스가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5월 1일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부처님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누구인가?-연기와 중도로 본 나의 존재 ●초기경전에 나타난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선생경을 중심으로 ●수행의 터전으로서 가정-공존지수(NQ) 높은 가족공동체의 삶



5월 8일 서명원 신부 (서강대 교수)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서양의 가정과 한국의 가정
●서양인이 본 보존해야 할 한국적 가치
●천주교 사제가 본 불교의 출가공동체(佛家)



5월 15일 안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판소리 '불타전' 중 부처님 탄생부분 음성공양

●부처님의 생애 중, 강생 편을 판소리로 공양
●봉축법요식 '판소리 불타전' 창공양(唱供養)



5월 22일 조희금 (대구대 교수)

오늘날 한국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가족의 실태-저출산,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와 의미 ●과거의 가족- 보존해야 할 전통적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려 갈 것인가? ●미래의 가족-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가족정책의 방향



5월 29일 옥선화 (서울대 교수)

모두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공동체의 일원 재혼가족(12%), 한 부모가족(15%), 맞벌이가족(60%), 국제결혼가족(10%), 기러기가족(입명, 분거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어려운가족(장애인, 환자, 중독증, 가정폭력, 대화부족이나 단절 등)



6월 5일 정현숙 (상명대 교수)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계[緣起]와 역할[中道]로 본 부부-결혼의 의미와 가치 ●가족의 중심으로서 부부의 역할분담과 공동의 역할 ●가정경영-부부간의 협력(경제, 종교, 취미, 기타 등)



6월 12일 고성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연구위원)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시각-불교적인 관점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고민 ● 청소년 자녀와의 거리 좁히기



6월 19일 최혜경 (이화여대 교수)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성인자녀와 노부모

●노년기 부모의 발달적 특성
●노년기 부모의 마음 읽기
●부부의 노년설계-수행생활을 중심으로



6월 26일 김외숙 (방송대 교수)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욕구와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교적 관점에서 본 가정관리
●즐거운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길



7월 3일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

●무아의 실천 장(場)-보살행의 자임자(自任者)
●이상사회로 가는 길-불국토 성취(共同善 追求)
●모두의 목표, 모두의 성공-인류의 공동번영



보현도량 도피안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 전 화 : (031) 676-8700
■ 전 송 : (031) 676-8704
■ 홈페이지 http://www.dopiansa.or.kr
■ E - mail : dopiansa@kornet.net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전송 : 02) 737-0697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경주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4평 ● 법당 : 18평 ● 법당 : 15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300평 ● 부지 : 89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3억6천 ● 가액 : 3억8천 ● 가액 : 250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02)998-1994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안내

1. 서울 산속 계곡물 콸콸 200평-3억
2. 1000평 절경 6억 3. 200평-1억5천
4. 원주 1000평-2억
5. 양평 700평-3억
6. 판교 산속 대지 160평-2억5천
7. 여주 4만5천평 터-1억5천

※ 사찰많음.공양주 부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위치 : 서울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부지 : 천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법당 : 12평
● 요사 : 23평, 산신각 ● 요사 : 30평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 3층 중 2층 40평
방2 공양간 창고1
● 특징: 삼존불 각단탱화
엠프 집기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36-2848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석불암
● 부지 : 약 1,0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창고, 다용도실, 삼존불, 탱화,
단청 집기일체, 부속 화장실, 주차장 완비
● 새 건물, 앞에 골프장 신축중, 10분거리에 스포츠 파크 있음, 전망수려 ● 가액 : 3억
055)862-2022
011-627-0290

사 찰 안 내

앞으로는 남동향의 웅장한 전경 뒤로는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해발 700미터 산자락, 폐문 수행 가능(각방 화장실, 샤워,
싱크대 완비) 이외에도 특허 받은 신비의 이온 황토 벽돌
선방 등 여러 채의 요사에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아궁이 설치.
장엄한 전망을 살린 통유리 설계와 잘 정비된 도로 경내로 연결.
맑은 계곡, 소나무와 바위들의 선풍 드날리는 청정도량.
정진 중, 중개인과 호기심 문의는 일체 사절.
010-6398-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근교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목조 5포, 7포)
요사 : 50평
● 가액 : 13억
● 산세 좋음

포교당
● 위치 : 구미시내
● 대지 : 40평
● 법당 90평
● 양도가 : 2억
(융자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토굴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사찰안내

● 위치: 광진구 구의역5분거리 구의시장옆 대로변 3분거리
● 평수 : 대지 50평,평당 750만원
● 특징: 최신 리모델링 시설, 기와지붕
02)3437-9773
010-4726-97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외곽 (사천IC에서 20분) 삼천포 5분거리
● 평수: 약 2천500평, 대웅전: 27평, 인등 약 1000등, 삼성각 8평, 용왕당 2평, 주지실 10평, 요사채 60평
● 가액: 4억7천
● 입구까지 도로포장됨. 주차장완비(50~60대).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 있고 앞이 환하게 트여 바다가 보임
011-806-3342

사 찰 안 내

〈절 터〉
● 위치: 남해 ● 위치: 부산 근교 ● 위치: 내원사 부근
● 부지: 천평(종교용지) ● 부지: 3천평 ● 면적: 1440평
● 법당: 20평 ● 법당: 28평 ● 방향: 동남향
● 요사채: 30평 ● 요사채: 50평 ● 가액: 5억5천
● 가액: 3억5천 ● 가액: 4억8천 ● 버스진입가능
● 바다보이는 완벽한 암자 ● 여법한 근교암자 운치있는 송림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5889,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6억 8천만원
010-4876-5535
011-877-7677

암자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가액 : 4억 7천
현주위시세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011-877-767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인접(양산, 서창)
● 대지: 60평
● 평당 200만원 호가
● 건물신축: 64평 3층(단청필)
● 가액: 3억4천(융자 9천 포함)
현금 약 2억
● 실수요 스님만 답사후 절충
055)386-3973
011-868-599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7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국립공원 인접) 망월사 1호선 지하철역에서 15분거리
● 평수 : 200평(시유지) 임법당 : 45평
● 마당에 관세음 보살님 석불 칠층석탑 심야보일러, 지하상수도
● 가액: 4억(절충가능)
016-337-951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마산시
● 대지 : 600평
건물 : 고건축 신축(22평)
요사채(37평)
● 산세수려한 시골 마지막산자락
● 가액 : 4억(융자1억7천만원 포함)
답사후 절충가능
053)638-8040
011-530-8490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
소양댐 근교
● 450평 평당 25만원
330평 평당 35만원
011-9796-759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하옥
● 대지 200평, 전 500평, 요사 30평, 법당
● 산세수려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62-0343
054)262-6673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 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례IC 4분, 부산 서면에서 30분
● 부지: 답 404평 국유지 1600평 합 2000평
● 건물 : 스레트 ● 임법당 : 12평 요사채 15평, 산신각 2평
● 특징: 계곡끼고 물철철 그림같은 곳
● 가액: 1억6천만원
011-845-2886

포교원안내

최고의 시설,최고의 위치(시장중심)
● 사정상 급 양도
● 위치: 대구 동구시장내 3층건물 3층
● 평수: 건물 법당 70평
● 요사 40평
옥상 전용공간 1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월세없음)
011-436-009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
● 총평수 : 2148평
● 총교부지 : 1000평
● 대지 : 240평 ● 나머지 : 전답 760평
● 건물평수 : 대웅전 40평
산신각 10평, 지장전 10평
요사채 60평, 조립식 30평
● 가액 : 11억
※ 납골당 및 요양원 시설 가능
※ 컨설팅 중계업 사양
010-3191-909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약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하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6억 9천
011-9411-530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옆
● 약 53평 3층 건물중 3층
● 법당1, 방2 ,부엌1, 목욕탕1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621-9216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채 슬라브 15평.
● 즉시 포교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주인보살 직접, 답사후 절충 가능
011-792-8969
011-9423-678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최저가 2300만원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합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근접
● 부지: 1300평 건물3동 건평95평
● 가액: 3억8천만원

● 부지: 1만평
● 가액: 6억 5천
031)533-2420
017-202-274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 도로변 위치 좋음
● 대지 30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산신각 1동 종각 1
● 가액: 1억
011-355-9117
055)674-4024

사찰안내

● 위치: 남원시 5분거리 지리산 밑
● 대지: 2천평
● 구조: 대웅전, 산신각, 독성각, 별채, 요사채
● 가액: 절충(양도, 전월세 가능)
● 즉시 입주, 법회가능함
011-411-0503

사찰 터 안내

● 위치 :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 대지: 26310평 중 20000평이 평지
● 가액: 현시세 평당 6~7만원 (사찰 지으시는 조건으로 평당 4~5만원에 보시함)
● 특징: 금강이 앞에 보임, 산세좋고 물좋음, 정남향
011-682-620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갈마동
● 평수: 30평 단독주택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無
● 특징: 아파트 단지앞 역술이나 역학 최적지
● 즉시 입주可
016-409-4502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 현동 비룡산자락 마을에서 3km
● 방3개, 부엌(건물만 등기)
● 가액: 1천만원
● 사실분만 전화요망
● 전화받는시간: 12~5시 사이
063)432-012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남산동 지하철 2분거리
● 가정집, 사무실 겸용 사용가
● 평수: 40평
● 가액 1억2천
● 스님이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1-614-7466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요지
● 평수: 총 46평
● 전세: 2000만 월 50만
시설비 2500만
● 주변아파트 단지, 포교요지, 주차용이
011-834-854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전세 가)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033)644-3149

토굴안내

● 위치: 전북 완주 대둔산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 건물 3개동
● 가액: 5000만원
(절충가능)
011-456-5587
(혜장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버스정류소에서 50m)
● 대지: 약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특징: 숲을창, 고급
● 가액: 4억3천만원 (융자 1억3천만원)
016-651-1800
011-870-1463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1층 법당: 30평, 방3개, 사무실, 부엌
2층 요사채: 방 5개. 지하: 창고, 주차장, 화장실
● 가액: 답사후 가액 협의
● 교통편: 전철1호선, 7호선, 버스, 대중교통 편리
● 입지: 반경 2km 內 중산층 아파트 5만여 세대
02)882-1995
011-9646-199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200평
대웅전 약 30평(정남향)
● 큰바위 3개있음, 산신각, 화장실 안밖으로 2개, 공양간 2
● 즉시법회가능
● 차량은 사찰까지 들어올 수 있음
011-879-755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수정동 초량전철역
● 대지 : 70평
● 건평 : 약40평
● 구조: 법당, 방3개, 화장실 2 및 창고, 삼존불, 신중, 미륵불, 7층석탑, 우물 용왕
● 정원이 잘 갖춰진 아담한 시내중심가 임법당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1억2천포함)
011-865-722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 사정상 급 양도
011-742-5925
043)644-16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 350평, 산 2000평
건물 : 요사채 30평(2채)
법당 : 13평
(산신, 용왕당 2평)
● 특징 : 고속전철 20분거리 약수로 이름나 있음
● 가액 : 보증금 1억8천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可
011-811-5466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포교 당안내

● 위치 : 부산 주례동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5평, 3층건물중 2층 큰법당,방2칸,입식부엌 및 화장실 삼존불 및 각탱화
● 전세 500만원/월45만원 (주인과 재협의)
시설비(집기류 일체)1500만원
● 건물 바로 옆 유료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참선기도관계로 '급' 요
011-847-2992
010-4879-6579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산밑에 있는 작은 암자로 수련원, 기도원이나 고시생이나 입시생을 위한 장소로 가능.
● 마을과는 1km 떨어져 있고 마당까지 차가 들어오며 건물 1동(60평)에 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2개, 화장실3개, 창고1동, 하우스 창고1동,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 암반약수. (건물만 등기 됨 땅은 밭3천평 사용)
● 꼭 하실 스님 만 답사 후 가격절충 매매 6천만원
010-6611-7749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초당 철학연구원

인생상담, 사주
신수, 궁합
전화상담
060-808-8463

해외포교사 지망생모집

자혜불교회 삼우스님은 미국/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함

- 자격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어기초실력이 있는자로 18세~40세 미만 남녀
- 문의 : 010-4619-8922, (시카고) 773-528-8685

전통범음범패학인모집

기초불공의식, 천도재, 49재, 바라무, 작법무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영남범음범패교육대학
수료후 수료증 수여
011-849-0961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을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단청 탱화

문하생 수시모집
(수산 전통 불교 미술원)
02)381-4433
010-3000-445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 성명학,
불교신행, 명리상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접수
02)387-2302
016-9511-0840

쑥 게르마늄, 키토산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몸에 붙이는 찜질패드
근육통, 중풍으로 인한 마비, 오십견, 어깨, 손목, 허리, 다리, 발목이 삐었을때 아프신 분
50장-만원
080-333-3307
011-6352-3307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용왕재, 산신재, 생축식, 축원, 삼재풀이 발원, 사업성취 발원, 무사안택 발원, 운수대통 발원, 각병요방 발원

각종 재의식을 정성껏 상담 해드립니다
010-7324-5115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당뇨·합병증

세계14개국 특허
나노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독일,중국,일본 임상실험완료(유럽8개국 임상실험중)
*나노기술(Nano Technology)로 만들어 흡수효능 극대화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인증제품
*다른 방법으로 포기하신분 환영

제조원: 日本 Welway 株式會社
문의 :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 – 직접 강의
('저거는 멘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오행쑥뜸기/오행좌훈기/음양쑥뜸기(무릎관절용)

신개발품 출시기념
제품 구입시 쑥봉 1개월분 무료증정!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 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좌훈기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이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3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몸에 좋은것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쉽게할 수 없었던 전통한방쑥뜸 –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를 위해 쑥뜸을 하십시오. 연기는 100% 밖으로 배출하고 화상 걱정은 타이머의 장착으로 완전해결한 획기적인 특허품 –

오행쑥뜸기, 오행좌훈기, 음양쑥뜸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BM TRADA CERTIFICATION ISO 9001:2000 / UKAS QUALITY MANAGEMENT 012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521-4405
■ 제품구입 문의 : 02)525-6353

www.moxa4u.com 오행쑥뜸 · 좌훈기 · 음양쑥뜸기 02)521-6353~4

D.M.I 산업 의료용구제조허가제1682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용미리 석불 조성 연대 고려? 조선?

조선대 이경화씨 '명문 · 원정모 닮은 보개' 등 근거로 1471년 조성설 제기

학계 "검토 가치 있다 – 근거 미약" 조심스런 반응

경기도 파주 장지산 솔밭 가운데에 우뚝 서서 서울과 개성을 잇는 길목을 지켜온 '파주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 · 이하 용미리석불)'은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초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m가 넘는 큰 규모와 특이한 형상이, 지방화 돼 다양하게 나타났던 고려시대 석불(또는 마애불)의 특징과 부합하는데다 조성과 관련된 전설의 배경이 11세기여서 고려시대조성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 · 16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경화 조선대 강사가 조선초조성설을 제기하면서 용미리석불의 조성연대에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화씨는 조선초조성설의 근거를 용미리석불 측면 바위와 불신 하단에 있는 명문(銘文), 원정모를 닮은 보개(寶蓋) 등에서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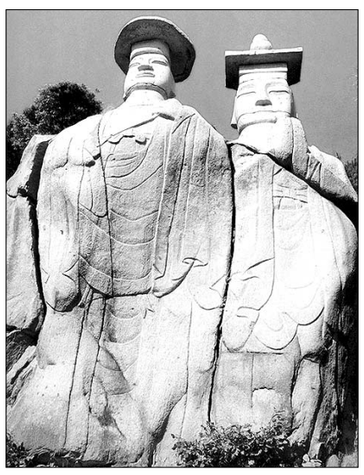
조성연대와 기원문, 시주 및 화주 이름이 적혀 있는 명문에 따르면 용미리석불은 세조의 왕생정토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그 연대는 성화(成化 · 明현종) 7년(1471년 · 성종2년)이다. 양녕대군의 아들 함양군(咸陽君, 1416~1474)과 한명회 셋째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경부인 이씨 등이 시주로, 왕실과 밀착된 승려 혜심(惠心)이 화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화씨가 이 명문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이는 박홍국씨로, 1995년에 소개하면서 조성연대를 성화 1년(1465년)으로 읽었고,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조상명(造像銘)으로서의 타당성은 논증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후 기존의 설은 유지됐고, 명문은 불상과 별개의 것 또는 후대에 새겨진 것으로 간주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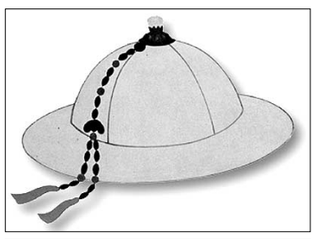
이경화씨는 그 명문을 다시 연구하고, 근거를 확보해 1471년 조성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씨의 1465년과 6년의 차이가 생긴 까닭은 박씨가 연대부분을 '성화 一년'으로 읽은 데 반해 이씨는 '성화 七년'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명문이 용미리석불을 중수하고 새겨진 것이라거나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씨는 용미리석불이 세워진 파주가 세조의 비(妃)인 정희왕후의 고향이며, 예종 · 성종의 비로서 요절했던 한명회의 두 딸의 무덤(공릉 · 순릉)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시주로 참여한 이들은 세조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예종 · 성종비의 능이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당시 권세와 재력을 겸비한 이들이 기존의 석불을 중수하기보다는 새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명문이 용미리석불 조상과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근거는 원정모(圓頂帽) 형태의 보개다. 원정모는 원나라 귀족들이 쓰던 모자로, 고려말 · 조선초에만 관리와 승려가 많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미리석불의 원형 보개가 원정모가 맞다면 11세기에 조상됐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원형과 방형(方形)의 보개를 쓴 석불이 나란히 서 있는 독특한 구조의 파주 용미리 석불.





왼편 석불의 보개(사진 아래 점선)가 원정모(사진 위)를 닮아 있다.

1144년에 김부식이 찬한 '혜음사신창기' 또한 이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기록은 용미리석불 인근에 위치해있는 혜음사에 대한 기록인데, 대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절뿐 아니라 숙박기관, 행궁의 기능까지도 겸한 혜음사를 설명하면서, 이정표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을 용미리석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당시에 지금의 용미리석불이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경화 씨의 조선초조성설에 대해 학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이씨의 연구에 대해 "원형 보개를 원정모라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얼굴이나 신체에 관한 도상연구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문에 열거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중수기에 이름을 적어 넣었을 가능성은 적다"며 조선초조성설을 지지했다.

반면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용미리석불이 조선시대 조성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상 전면에 명문을 새기는 예가 없는데, 용미리석불의 명문은 전면에 있어 조상당시 새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용미리석불은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조성할 수 있는 대불이다"며 "만약 조선시대 세워졌다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조선실록에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며 조선초조성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거창농산리석불입상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거창농산리석불입상(경남유형문화재 제36호 · 사진)은 자연석을 다듬어 윗면에 두발을 새겨놓은 1매의 대석과, 대석에 꽂을 수 있도록 광배와 함께 조성된 불신의 두 개 돌로 구성됐다.

문화재청은 "부분적인 파손이 있으나 야산의 구릉에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로 규모가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주요 사찰 30곳 방화시설 현황조사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은 보물 건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대상으로 방화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 20일 밝혔다.

사찰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동산문화재의 피난 또는 방재 체계에 대한 대안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사찰 시설 배치도 △방화선 설정상황 △소화장비 구비상황 및 작동여부 △소방로 확보상황 △경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조사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60일이며, 조사대상은 수덕사 해인사 봉정사 등 보물급 건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30여 곳이다.

총무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법 ·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 기반을 마련하고, 사찰에 대한 지원 근거까지도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학회 춘계불교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2회 춘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불교교육 체계의 재검토'를 주제로 진행될 제1부에서는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각각 '교학과 종학' '재가불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는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선의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지창규 동국대 교수의 '천태사교의의 사종사제',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17세기 박세당의 불교관'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www.hanbulhak.or.kr, (02)2260-8507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2>

꽃의 과학

꽃의 계절을 맞이했다. 일차대전의 유럽의 황폐를 노래한 시인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꽃을 대하는 동양인의 시각은 참으로 독특하다. 당나라 시인 유방평은 '춘원'이란 시에서 후궁의 안타까운 마음을 꽃에서 건져오고, 민족의 시인 서정주는 국화의 개화에서 무서리와 천둥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 판사를 지냈던 효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고향을 떠날 때 매화가 피었던가'라며 원래 마음자리에 대해서 묻고 있다.

<삼국유사> 만큼 신라인의 시각을 현대에 전해주는 시편이 있을까. 서정주 시인의 그의 1961년 발간한 시집인 <신라초>에서 옛 선인들의 정서를 한국 현대어로 풀어쓰고 있다. '꽃밭의 독백'은 신라시조인 박혁거세를 처녀 잉태한 사소가 산 꽃 앞에서 하는 독백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시에서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낯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서 기대섰을 뿐이다'고 산신 수행을 떠나는 마음을 읊고 있다. 꽃이 개화하는 것을 천지가 개벽하는 것으로, 이 꽃잎이 열리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라인, 아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꽃을 즐기는 대상, 환경을 장식하는 대상으로 보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꽃에서 우주 자체를 발견하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꽃잎이 열리는 작은 현상하나에서 우주가 개벽하는 모습을 느끼는 <삼국유사>의 마음은 차라리 화엄적이다.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부터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빛이라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은 차라리 마술에 가깝다. 탄산가스로부터 탄소를 추출하고 이를 수소와 결합시켜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은 어떠한 화학공정보다도 정교하고 효율적이다. 식물은 이 영양분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포함하는 동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기도 한다. 포유동물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인간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가장 생존을 도왔던 것이 바로 꽃을 피우는 속씨식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식물에다 몸을 감추기도 하고,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을 것이다. 뱀과 같은 파충류로부터 약한 포유동물이 보호 받았던 추억을 우리는 유전자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봄꽃 소식에 설레일 때 꽃잎 들여다 보라 피는 것과 이를 보는 나는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앞뜰에서 핀 작은 들꽃이 개벽하는 현상과 나라는 개체를 현재 있게 한 인연은 아무리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오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봄꽃 소식이 나를 들썩이게 만들 때, 그냥 지나치는 들꽃 옆에서 가만히 꽃잎을 들여다 보자. 꽃잎이 피는 것과 이를 보는 나는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를 마음으로 느끼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슈퍼스타 의상 대사가 법성게에서 하신 말씀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티끌에 우주가 포함됨)'의 경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광고가격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사찰구함
부산시내
6억정도
011-9678-2340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
(정릉)

기도스님 및
공양주 법당
보살님, 행자님
모십니다
051)256-3483
010-3068-1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61-5055

공양주보살님
(급)구합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부근
대한불교조계종
010-9456-84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532-207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代)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155-8127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하실분
초보자 구함
보시: 60만원
나이: 40~55세사이
054)637-1900

신심있는
행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전북)
010-3166-4166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행자승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041)864-9143
011-392-6885

조용한 산속 천년된 석불이
나투신 기도사찰입니다
공양주보살님 기도스님
휴양하며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31-884-4883
010-3339-199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代
054)873-2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462-52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6-635-6900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평수: 대지 160평
● 건평: 65평(2층건물)
임법당
● 가액: 1억6천
(답사후 절충 가능)
● 사정상'급'안내
011-9757-1333

사찰안내
● 위치: 김천IC 15분거리
● 부지 900평, 건물: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70평(1,2층)
● 특징: 백두대간, 청정지역,
계곡이흐르고 지장기도 영험도량
● 가액: 답사후 절충
054)431-3321
011-591-9339

사찰.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 대지: 86평, 건물: 3층,
각 30평(내부계단 평수 제외)
1층- 대중공양실, 방2개
2층- 거실, 방3개, 3층- 법당
● 답사후 절충,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4810-6510
018-382-453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빌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음,
방1개, 베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120평 밭: 200평
요사채18평(방4개)
법당: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 적합
● 가액: 보증금 1억6천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1-9576-164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옆
● 건물: 방2, 사무실1,
지하(20평) 보일러난방
법당: 30평 (1층)
● 특징: 동대구역에서 2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보증금 7000만원
월15만원,시설비1300만원
011-829-91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 대지: 600평, 요사채(10평)
● 건물: 30평(방3, 욕실, 주방)
2층 증축가능,심야전기
● 특징: 대구에서 30분거리,
수양, 기도처로 최적지임
(식당영업권 허가지)
● 가액: 2억1천만원(대출 7400만원)
010-4873-2071

일주문



제주청교련 발대식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4월 16일 제주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 회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청교련'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가교육개선 위한 첫 공청회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장 종범 스님은 5월 4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명담 스님이 4월 21일자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1987년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5년 춘계 성지순례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4월 17일 강진 박련사와 무위사, 화순 운주사 등지로 2005학년도 춘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불교학도서관협 정기총회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정진환(동국대 교수) 회장은 4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상범 교수 '4·19혁명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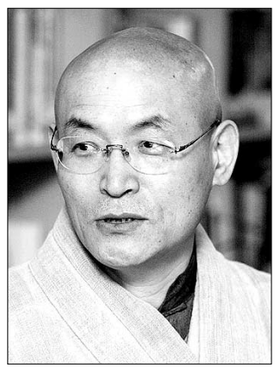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던 한상범 前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사진)이 4·19 혁명 45돌을 맞은 올해의 '4월 혁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월 혁명상'을 시상하는 사월혁명회는 "한 前 위원장은 3선 개헌 반대, 신군부 반대 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규명 운동 등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가정이 밝아야 세상도 밝아져요"

'구국구세 법회' 여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



"가정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연기와 중도를 키워드로 합니다.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와 개인의 '역할'이 가정이라는 범주에서 바르게 정의되지 않으면 가정 파탄과 사회 혼란으로 직결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가정의 가치를 일깨우셨는가를 공통 화두로 삼고 10주 동안 대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제1차 보현도량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를 봉행하는 송암 스님(사진). "가정에 대한 가치회복이 없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번 법회를 기획했다"는 스님은 "스님, 신부와 가정관련 전문학자들이 불교적 관점을 통해 가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법회의 기본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암 스님은 이 법회가 '사회적 문제'를 '불교적으로 푸는' 구도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일주문 바깥을 향해 끝없는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소신을 불자 모두와 공유하고 싶다는 것. 부처님의 본원인 대비구세(大悲 救世)는 바로 대승적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 그 주체는 인류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국구세'라는 명칭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는 주문이다.

송암 스님은 올해 첫 번째 테마로 '가정의 가치'를 정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테마로 두 번째 법석을 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인권문제도 기본에 충실해야"

인천불교인권위원장 정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실천한다면 인권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4월 20일 지역으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사진)은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인천지역 260만 중 불교인구는 40만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하다"고 소개한 정암 스님은 "여러 종단 스님들은 물론 지역시민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경찰청 경승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암 스님은 "사형제 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의 현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교육원장 경정 정사
사감원장 혜명 정사
진각종 종회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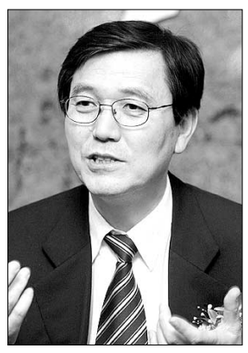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경정 정사(사진 왼쪽)와 진각종 포항교구청장 혜명 정사가 교육원장과 사감원장에 선출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통인원에서 열린 정기종회에서 교육원장, 사감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경정 정사는 앞으로 4년간 진각종의 교육분야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회원 확대·조직 강화 나설 터"

제5대 한국불교언론인회장 취임 강신철씨



"각 언론사 불자들을 파악, 하나로 규합해 언론인불자들의 역할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4월 18일 언론인불자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언론인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신철 경향신문 전무(56·사진)의 취임일성이다.

강회장은 가장 먼저 할 일로 조직정비와 회원확보를 꼽았다. 움직일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지난 1월 회장직을 수락한 이후 각 언론사의 인맥을 통해 불교를 믿는 언론인들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기존 회원들의 변동과 각 언론사내 불자들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살 길이 보이리라 확신합니다."

7년여간 경향신문불자회장을 맡았던 강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돼 경향신문불자회를 창립했던 전례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 여기서 얻은 것은 가능성의 발견이었다.

강회장은 이런 뜻을 함께할 신임 임원 및 집행부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은윤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현대불교 신문 대표이사,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방송위원 등 창립 이후 각별한 애정을 갖고 활동했던 선배들이 지도위원으로 선임됐다. 유자효 SBS 라디오본부장과 김대곤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장, 이헌익 중앙일보 부국장, 이동식 KBS 방송문화연구팀장은 부회장을 맡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화계사 회주에 법장 스님 추대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4월 17일 대적광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화계사 신도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내가 큰 버팀목이 될테니 열심히 수행하라"고 현각 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 등 외국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원통불법연구회 염불선 세미나 개최



원통불법연구회(회장 도일)는 4월 16·17일 양일에 걸쳐 곡성 성륜사에서 '정통불법의 재천명' 주제 세미나를 열어 청화 스님의 염불선을 조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대주 스님(인천 정토선원 주지)의 '염불선 수행에 대한 재조명', 김영동 조선대 교수의 '보리방편문' 등이 발표됐다.

광주 증심사 대웅전 보수준공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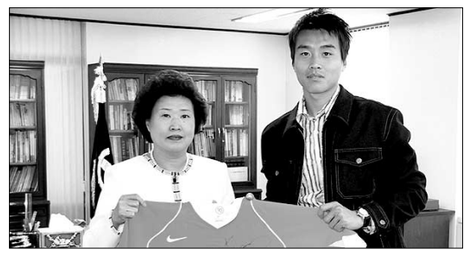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진화)는 2003년 수해피해를 입은 대웅전을 보수하고 4월 15일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해로 붕괴위기에 처했던 대웅전이 광주시민과 불자들의 힘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더욱 정진에 매진하여 불국토를 가꾸자"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법당 개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법당이 4월 16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승가대 교무처장 보각 스님, 공생선원 주지 무각 스니님과 환자 및 보호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대병원 지도법사 지현 스님은 "불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법당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국 선수 위덕대 여자축구팀 지원



불자 축구스타 이동국 선수가 위덕대 여자축구팀을 방문했다. 올해 경영학과에 복학하는 이동국 선수(99학번·포항 스틸러스)는 4월 20일 모교에서 '여자축구부와의 만남' 행사를 갖고 축구화 등 축구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동국 선수는 앞으로 위덕대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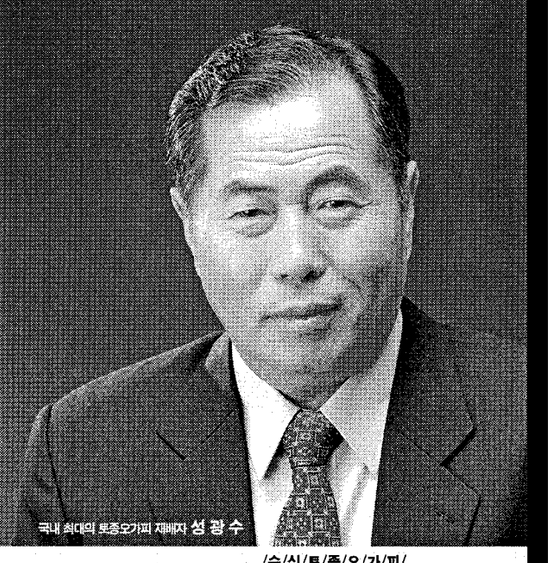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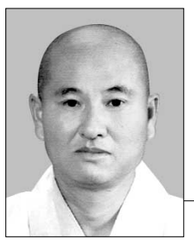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 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지료 신청 02-968-0005



불자 세상보기

월 암
경주 칠불암 회주 · 본지 논설위원

중국과 일본의 속셈읽기

홍콩이 영국의 지배 하에 있던 시절 홍콩과 중국 본토의 경계선인 심천에는 홍콩 땅 구룡반도를 향해 하나의 거대한 선전 광고탑이 서 있었다. 그 광고탑은 '코카콜라(coca cola)'에 대한 광고탑 있었는데, 여기서 코카콜라를 중국말로 '쿠쟈쿠라이(苦加苦來)'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표의문자인 중국어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이 비슷해야 하고 또한 뜻이 근접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코카콜라는 서구 자본주의 상징적 제품이기에 '고통을 더하고, 고통이 온다'는 부정적 의미로 쿠쟈쿠라이(苦加苦來)'라고 적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코카콜라 광고문구가 중국이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또한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졌다. '고통을 더하고 고통이 온다'는 의미의 '쿠쟈쿠라이(苦加苦來)'가 '입맛에 맞고 즐겁다'는 뜻을 가진 '커커우커러(可口可樂)'로 바뀐 것이다. 같은 코카콜라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급기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 시키는 망동을 부리더니 또한 고질적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킨지 한달여가 지났다. 이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왜곡,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중국시민들이 광분하여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한일간 혹은 중일간의 불화가 불을 보듯 뻔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패쇄적 국수주의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고한 미일동맹에 바탕을 둔 패권주의의 발로이다. 여기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입장 또한 패권주의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천안문 사태 이후 그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에서 대중시위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위가 각지에서 연일 터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제데모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일정부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상하이(上海)와 항저우(杭州)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만 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반일시위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 또한 포스트 아메리카를 향한 또 하나의 패권주의가 분명하다.

사실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소위 '남경대학살'로 불려지는 일제의 만행에 공분하지 않는 중국인은 드물다. 이러한 역사적 만행에 대한 필연적 악감정이 심층에 깔려있는데다 역시 역사왜곡으로 불거진 반일시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패권야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것이다.

그러나 중일간의 외교적 분쟁은 서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일시위는 일본이 은근히 바라는 것처럼 공산당에 대한 체제도전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쿠쟈쿠라이(苦加苦來)'는 언제든지 '커커우커러(可口可樂)'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우리의 입장은 잊어버리고 중국의 반일시위가 마치 우리의 분노를 대신 분출해주고 있는 양 통쾌해 하고,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등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일간의 문제는 언제든지 한중간의 문제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사 중국역사 편입이라는 '동북공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통일한국 이후 간도문제 등 국경분쟁의 소지는 엄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바다 건너 불구경을 즐기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은 일본과 중국이 똑같은 상대국이다.

일본과 중국은 하루 빨리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패권야욕을 청산하고 역사왜곡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3국이 참여하는 역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공통분모로 작용될 수 있는 소위 3국 불교계의 '황금유대'의 정신을 확대하여, 호혜협력의 강화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요, 고구려사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확한 역사안목과 역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힘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취직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역사교육이 전 국민의 필수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 안목을 가진 인재에 의한 힘의 축적만이 진정한 균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확고한 역사관이 없는 민족과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힘은 '사관(史觀)의 정립'에서 비롯될 수 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새 통리원장에 거는 기대

진각종 제27대 통리원장으로 회정 정사가 선출됐다. 사실 이 정도의 뉴스라면 '사설'이라는 형식으로 정색을 하고 바라봐야 할 사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스템이 완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수장의 색깔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각종의 새 통리원장을 주목하는 까닭은 진각종의 독특한 위상과 정체성에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가종단'이라는 것과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비범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 불교'란 무엇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수백편의 학위논문이 가능할 만큼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소박하게 정의하자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시대의 근기'에 맞는 방편의 설정과 실천이다.

이 시대의 근기는, 비유컨대 '체격'은 좋지만 '체력'은 허약한 비만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허약은 무엇인가. 소외와 빈곤이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점은 그 어떤 제도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종교와 시민사회 단체의 할 바가 바로 그것이다.

진각종은 '복지' 문제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정도로 '불법(佛法)의 사회화'에 일찍 눈뜬 종단이다. 현재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12곳이고 어린이집만도 10개에 이른다. 국제구호 및 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그 기초를 세우고 현재와 같은 진각종의 위상을 다진 분 중 한사람이 새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회정 정사다. 회정 정사는 25대 성초 통리원장 당시(1997~2001) 총무부장으로 대북교류와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주도 한 바 있다. 회정 통리원장에 거는 기대의 핵심은 바로 '사회복지'와 '남북통일'을 위한 더욱 성숙된 실천이다.

사회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센 이때,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새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거는 기대가 내외적으로 큰 것은 당연하다. 진각종이 그간의 정체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 통리원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종단 내실은 물론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윤제학(아동 문학가)

특별기고

콘클라베와 갈마

신성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4월 19일,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이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이 울렸다.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요제프 라칭거(76) 추기경(독일)이 제265대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는 추기경단이 참석한 콘클라베라는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교황선출을 둘러싸고 나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누가 새 교황으로 탄생하느냐보다는 바로 이 콘클라베였다.

열쇠로 잠근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일단 후임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추기경들이 모인 건물의 청동문은 모두 봉쇄되는데, 이는 모든 문과 창문을 납으로 봉하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콘클라베는 청동문이 상징하듯 비밀회의 그 자체였다. 콘클라베는 80세 이하의 추기경에 의하여 직사각형의 투표지에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투표한다고 한다. 이처럼 콘클라베는 권위와 비밀 그리고 폐쇄를 상징한다. 교황이 지니는 종교적 권위와 권능은 바로 여기 콘클라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이 콘클라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는 갈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갈마는 의견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콘클라베가 단지 교황만을 선출하는 회의라면 갈마는 승가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 승가에서는 교황과 같은 권위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교황이나 추기경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은 모두 이 갈마를 통하여 결정된다.

구족계의 의식이나 특정한 소임을 맡을 비구의 선출, 그리고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의 해결 등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승가의 중요한 정기 행사인 포살이나 자자 등도 모두 이 갈마를 통하여 진행시켰다.

절대적 권위와 비밀스런 절차

갈마는 구성원인 비구들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다. 갈마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문을 걸어 잠그지도 창문을 봉쇄하지도 않았다.

일정한 지역의 모든 비구가 열려진 장소에서 모여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세속의 나이나 법랍, 지위고하 등에 상관없이 그 누구일지라도 동등하며 평등하였다. 결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없었고, 좌지우지할 결정권을 지니는 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단합에 의한 전횡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승가의 비구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갈마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일 지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진행시키지 않으며, 또한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결정되지 않았다.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생길 경우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가에 알려야 한다. 이를 여욕(與欲)이라고 한다.

갈마는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와 고결한 의견을 다수결이라는 편리한 원칙을 구실로 무시하지 않았다. 선동주의이나 감성주의에 호소해 의사가 결정될 수가 없었다. 전체의 찬동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눈 밝은 한 사람이 있어 반대한다면 옳지 않은 안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갈마의 원칙 때문에 갈마가 자주 진행되지 못하고 사안이 결정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쉽지 않으며 더구나 전원이 찬성하기란 더욱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는 회의에서 오히려 구성원들은 자신 각자의 생각 · 의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기에 그러한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갈마에서는 침묵으로 찬성을 대신한다. 많은 구성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번잡하거나 시끄럽지도 않았다.

이처럼 여법한 갈마 절차로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은 승가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불교에서는 교황과 같은 절대적 권위나 비밀스런 절차에 의한 신비감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과 율에 따라 갈마에서의 소수의 의견까지도 존중된 결정은 그 어떤 절대적인 권위보다도 힘을 지녔던 것이다. 우리는 갈마에서 평등과 개방이라는 불교의 상징을 본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 1.2kg
山寺 청미래 조청 —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 1.2kg
山寺 기청량 조청 —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특허 : 제0482418호(식양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 항균성 뛰어남,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 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증상에 따른 세심비누 사용방법
▶세면 및 샤워 할 때 (각질 및 건성피부)
비누칠을 하고 맛사지 하거나 거품을 낸 후 비누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2~3분 후에 물로 씻어 줍니다.
▶아토피성 피부 및 피부 알레르기 (미백, 여드름, 기미, 주근깨)
비누에 물을 묻혀서 환부에 직접 바르고 충분히 맛사지하여 10분 이상 지난 후 씻어 줍니다.
▶탈모 및 비듬 (미백, 여르듬, 기미, 주근깨)
머리를 한번 감고, 다시 비누칠을 하여 두피에 거품을 충분히 낸 후, 5분 이상 지난 후 씻어 줍니다.
▶무좀 및 습진 (발 뒷꿈치 갈라짐)
비누에 물을 묻혀서 환부에 직접 바르고 잘 스며들도록 오래 맛사지 한 후 씻어 내거나, 그냥 잠을 자도 됩니다.
■제조원 : (주)海仁우리
■100g × 4개 1Box 42,000원 ■ 전화 : 054)372-3166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판매원 :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청청생기 세심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말고 젊어집니다.

한국불교 1번지, 종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읍시다

하늘이 내린 명당 – 王家의 明堂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종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 최고급 주거명품 –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불교의 중심지 한국 불교의 총 본관인 조계사가 50m거리에 위치한 불교문화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인사동,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 등이 인접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종각역, 광화문역이 도보 1~2분, 안국역 도보 5분거리 트리플 교통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최고의 전통적 명문학군인 덕수초등, 청운초등, 경복고, 청운중, 풍문중학교 등 교육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및 조선호텔 등 편의시설이 인접한 쇼핑 및 비지니스의 중심지

모델하우스 및 현장위치도



아파트(44, 51, 55, 56평형) 오피스텔(18, 20, 23평형) 상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분양문의 : 02)722-5454 시행사 hageo+ (주)하지오플러스 시공사 대성산업 건설부문

향기 도반의

고장난 우산 고쳐 보시하는

이원복

새 우산 되어 쫙~ 펴질때 세상은 '맑음' 입니다



이원복 거사는 우산을 고치며 '사람'과 '삶'을 새롭게 배운다. 그의 보시행은, 번뇌에 찢기어 비가 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포근한 우산이다.

아파트 단지내 '버려진 우산' 수선
6년간 경로당 등에 3천여개 보시
빌려간 우산 돌아 오지 않을때 아쉬워
"내가 마음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



전주 인후동 아중리 현대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이원복 거사(66). 그는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인근에서 '우산 아저씨'로 통한다. 고장나 버려진 우산을 고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산이 너무 흔해졌어요. 조금만 손보면 멀쩡한데도 쉽게 버리곤 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다급해 하면서도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면 사람 마음이 그만큼 간사해요."

6년 전, 20년 가까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이곳 아파트 경비일을 하게 되었다. 단지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무심코 버려진 우산을 주워들었고, 간단히 손을 보니 새것과 같았다.

이렇게 수선하기 시작한 '버려진 우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초소에 쌓이게 되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뛰어가는 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예 경비 초소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위에 30여개를 걸어두고 누구나 쓰도록 했다.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바깥세상하고 단절돼 있잖아요. 아침에 비가 와도 1층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비 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바쁜 출근시간에 우산 가지러 다시 올라가는 것만큼 낭패인 경우도 없어요. 이제는 너나없이 이곳 초소로 뛰어와요."

바로 이 맛이다. 삭막한 시멘트 공간에서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더구나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 거사의 '우산보시' 소문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 밖에까지 퍼졌다. 관내에 있는 10여개 경로당은 물론 우아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전주시청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수선한 우산을 보냈다. 지난달에도 겨우내 수선한 우산 100개를 전주 우체국에 전달했다. 되돌아보니 그동안 보시한 우산이 3000여개에 이른다.

의외로 버려진 우산은 주변에 많은 편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장은 물론 집에서 아파트까지 오고가는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고장난 우산이 하루에 2~30여개.

요즘은 이 거사의 '우산보시' 소문을 들은 청소부들이 버려진 우산을 모아다 주어 수선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모여진 우산은 먼저 완전해체된다. 우산살, 천, 손잡이, 꼭지 등으로 분해되어 재활용할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린다. 단순해 보이는 우산이지만 수선하는 데는 제법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더구나 우산 종류가 워낙 많아 맞는 부속품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연장은 물론 부족한 부품을 구입하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 1평 남짓한 좁은 초소 안의 보물은 연장과 함께 주요부분 부속을 모아놓은 4개의 작은 상자이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망가지고 고장 나는 부분은 우산살이다. 꺾이기 쉬운 살대가 하나라도 상처나면 버려지기 일쑤다. 우산을 수선하는데 이력이 난 이 거사에게 몸체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에 든다. 우산천을 다시 입히고 천에 맞는 실을 꿰어 일일이 꿰매는 일이 더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늘에 찔리고 바느질이 매끄럽지 않아 볼품이 없어진다.

"우산을 수선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살다보면 힘든 일도 있는데 우산만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잊어져요. 그럴 때는 단순히 우산이 아니더라구요. '어쩌다 이렇게 다쳤니' '그래도 너 버렸다고 주인 미워하지 말어라' '고놈 참 손보기가 고약스럽게도 생겼네' 그러다가 새것이 된 우산을 활짝 펼치면 '고맙습니다' 해요. 정말 그래요. 제 마음도 활짝 펴진다니까요."

이 거사가 반가워하는 이들이 있다. 가끔 우산 수선을 부탁하는 이들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주에 우산을 수선하는 곳이 몇 곳 있었다. 요즘은 그나마 모두 없어져서 우산 수선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제는 이 거사가 전주에서 유일하게 우산수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료수선이다.

더불어 급하게 우산을 쓰고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는 이들도 반갑다. 그들은 사소한 물건이라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가 오면 고마워하며 무료우산대를 이용하면서도 다음 사람을 위해 가져다 두지 않는 풍토가 아쉽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본래 꼭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이들이 쓰도록 한 것이니 이 거사의 일은 거기까지일 뿐이다. '고맙다'는 인사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언제나 '욕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잘은 몰라도 부처님도 결국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욕심이 없어야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나오는 겁니다."

이 거사의 재적사찰은 완주 정수사이다.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따라 나서던 절에 이제는 부인 조종선 보살(65)과 함께 다닌다.

시골의 작은 절이어서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대중법회가 자주 있어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불자된 도리로 알고 있다. 정수사 부처님을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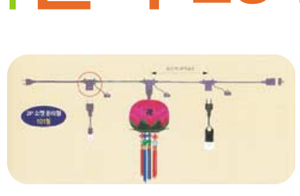
"부처님이 '마음먹기 나름이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하지는 않아도 내가 마음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 몸이 허락하는 한 '우산 보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전주=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49년 마하몰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체 홍보상품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찰용 연등전선(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공단등
· 大-23,中-18,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 빨강,흰색(영가등)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 초록,색상별

▌황금연등
· 20인치,13인치, 10.5인치, 8인치,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 주황,연두,보라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 빨강,오렌지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 초록,파랑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 빨강,파랑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봉축빨강, 봉축노랑,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나의 수행법

김오복 (中)



나는 힘들어도 오직 수행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기로 했다. 항상 부처님은 내 곁에 있고 나와 좋은 친구가 돼준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불수행을 했다.

먼저 난 관법을 하고 한 선 한 선 호흡을 맞춰 부처님을 그렸다. 그렇게 그려 부처님 한 분을 탄생시킬 때면 환희심이 들었다. 부처님을 그리는 순간에는 나와 그리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슬픈 모습의 부처님, 기쁠 때는 웃는 모습의 부처님이 그려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후 난 늘 웃는 부처님을 그리기 위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만약 나쁜 생각을 하면 그대로 부처님 상호에 드러나게 돼 밝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마음자리를 단속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여기고 깨끗이 닦아나가기 시작했다.

관법하며 한 선 한 선 호흡맞춰 사불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

사실 난 그전만 해도 법당에서 절하고 염불할 때면 입으로만 수행하는 앵무새였다. 또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달라'고 애원만 했다. 베풀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내 욕심만 채우려 기복신앙으로 치우쳤던 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됐다.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고, 우리 식구들만 잘 되게 해달라는 염원이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발원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사불수행의 관상법(觀想法)은 내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 중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 '옴 바아리 바다리 훔바탁'은 내 마음속에 여의주를 새기게 했다. 여의주의 불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상태에서 들숨과 함께 코를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입→목젖→가슴→심장→명치→배꼽 밑의 단전까지 내려오면서 최고로 배가 불룩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날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여의주의 불빛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 어깨, 뒷목머리, 정수리, 양쪽 눈 등을 비춰가며 코로 배출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으로 난 차츰 여의주수의 빛이 내 몸속을 빙글빙글 돌면서 세포하나까지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막혔던 부분도 뚫어지고 몸속의 나쁜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호흡법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호흡조절하기가 힘들었지만, 숙달되면서 익숙해졌다. 긴 호흡을 유지하니 선이 바르게 그려졌다. 한 선 두 선 그리면서 불보살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 같았고, 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사불수행은 무엇보다도 세상사 온갖 시름들을 방하착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불보살이 돼 '상구보리하화중생'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줬다. 사실 사불수행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불수행을 할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경련이라도 일어나듯이 무엇인지 모를 힘이 생기고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난 사불수행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을 밝게 보는 자세를 갖게 됐다.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있다. (계속) ■주부

현장 -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의 수행-8정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행사 준비가 한창인 요즈음, '과연 부처님 오신 참뜻을 올곧게 잇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물음에 직면한다. 그것은 '부처는 누구이며 부처는 어떻게 수행해 깨달음을 이뤘나' 하는 의문과 다르지 않다.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직접 그 의문을 풀고 싶은 바람에 비례하듯,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과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빠알리어 삼장의 한글 완역을 추진하고 있는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 주최로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2회에 걸쳐 열리는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 및 아비담마 특강법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4월 20일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성본 · 해남사 주지) 강의실. '초기불교의 수행-8정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각묵 스님의 특강 현장을 찾았다. (052)271-8579

"괴로움 생성·소멸 이해하면 열반"



각묵 스님



각묵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불자들.

"마음챙김 대상 정확히 관하면 무상성·고·무아성 드러나"

"과연 무엇이 진리입니까? 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만의 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것만이 최고다'하는 고정관념이 성립될 수 없어요. 초기불교의 요체인 사성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 수행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이처럼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열린 마음으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유, 고뇌를 가능하게 하고 불교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끌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불교적인 삶은 팔정도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자이며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묵 스님은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맹목적인 믿음의 신념체계로서의 불교가 아닌 실천 체계로서의 불교를 강조했다. 이어 각묵 스님은 경전속의 내용을 인용해 팔정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나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여덟 가지로 된 도이니 즉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계(正命),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이다. <대념처경>'

<우빳다 경> <대반열반경> <초전법륜경> 등에서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을 향한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인 도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정견이 출발점입니다. 고의 발생구조와 소멸 구조를 설명하는 연기를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며 감각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무량심을 갖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금하고 잡담을 금하는 것은 정어이며 살생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금하는 것이 정업이며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는 것은 정명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며 수행방법입니다. 팔정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살펴보고 점검해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되묻게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루 24시간이 수행으로 이어지게 해 줍니다."

팔정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면서 각묵 스님은 지난주에 배웠던 초기불교 수행의 요체인 사성제를 다시 언급했다. 사성제는 곧 팔정도를 품고 있으며 팔정도는 다시 사성제를 품고 있는 중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설명은 곧 12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성제 중에서 고(苦)와 집(集)은 고의 생성구조를 멸(滅)과 도(道)는 고의 소멸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묵 스님은 "괴로움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바로 이해하고 실상을 바로 보면 곧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고 요약하면서 "열반은 죽어서 이르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애와 무명이 해소되고 탐진치 삼독이 해소된 경지를 말한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각묵 스님은 팔정도에서 더욱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정념이라며 정념 즉, 마음챙김은 대상을 분명히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 등 마음 챙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정밀하게 관찰하면 무상성, 고, 무아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7년 초기불교 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대상을 분명히 해서 정밀한 관찰을 하면 도는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있지 특정한 장소나 테크닉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이들의 진지한 고민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울산, 부산, 진주 등지에서 특강을 듣기 위해 찾은 30여 명의 참가자들의 열기는 늦은 밤을 밝히고 있었다. 약사, 의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스님은 "이번 특강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천적인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강 의의를 전했다.

글 · 사진/울산=천미희 기자

■ 각묵 스님이 말하는 초기불교의 핵심

"찰나생 찰나멸하는 실상 보는 것"

부처님 제자라면 대승불교다 선불교다 하기 이전에 초기불교가 모든 불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불교에 초기불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수행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불살조의 정신으로 이것만이 최고다 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초기불교든 한국불교든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수행은 앉아서 하는 참선만이 강조돼선 안 되며 신비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롯한 제법은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상을 본다 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의 무상함을 관찰하면 영원한 실체가 없는 연기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실상이 있는 줄 알면 불교가 아닙니다. 초기불교가 곧 위빠사나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초기불교에서 정념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팔정도의 큰 틀 안에서 이해되고 강조돼야 할뿐 하나만을 내세우면 또 다른 집착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초기불교의 가르침입니다.

■ 아비담마란?

'법(담마)에 대하여(아비)'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핵심만을 골라서 이해하려는 제자들의 노력이 정착된 것이다.

아비담마의 주제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물 · 심의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dhamma)이며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dhamma)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찰하고 사유해 무상 · 고 · 무아인 법의 특성을 여실히 알아서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비담마다.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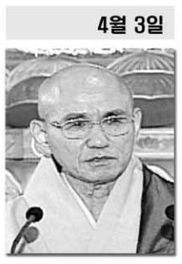
기 간 : 3월 6일 ~ 5월 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불교TV 무상사 법당
문 의 : 02)3270-3300


3월 6일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3월 13일 각성스님 화엄학회 회주


3월 20일 혜거스님 금강선원장


3월 27일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4월 3일 월주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


4월 10일 보성스님 송광사 방장


4월 17일 법산스님 前정각원장


4월 24일 종범스님 중앙승가대총장


5월 1일 고우스님 봉화각화사선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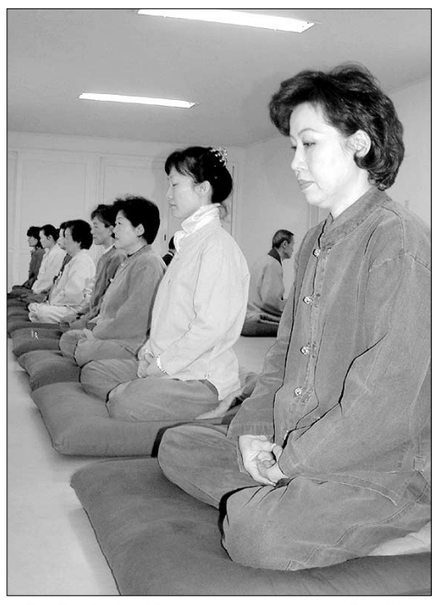

5월 8일 묘허스님 단양방곡사 회주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④ - 서울 길상사 시민선원

처음과 끝을 알리는 죽비. 서울 성북동 길상사 시민선원은 죽비를 치지 않는다. 선방 벽에 걸린 자그마한 자명시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매시간 정각에 울리는 시계 종소리가 재가선객들의 방선 시간을 일러준다. 때문에 길상사 시민선원은 죽비가 필요 없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가불자들이 선방 문지방을 닳도록 드나들어도 수행분위기는 좀처럼 흐트러짐이 없다.

자율 속에 엄격함이 배어있는 길상사 시민선원. 그럼 선원의 이 같은 가풍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입승스님이 있든 없든 스스로 '알아서' 가부좌를 트는 길상사 시민선원 속으로 4월 15일 들어가 봤다.

50분 정진 10분 포행 죽비없이 자율수행


재가불자들이 4월 15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시민선원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자율 속 엄격함

"땡~땡~땡~"

오후 3시. 자명종이 3번 울리자 50분 정진이 끝난다. 곧바로 포행이 이뤄진다. 12명의 재가선객들이 선방 안을 조용히 걷기도 하고, 선원 앞 작은 꽃밭을 돌기도 한다. 물론 말은 없다. 묵언이다. 양손도 단전에 가지런히 포갰다. 차수(叉手)다. 스스로 묶은 말과 몸. 하지만 화두 하나만은 온몸으로 끌어안은 눈치다.

매시간 정시를 기준으로 10분간 갖는 포행이 끝나자, 자기 좌복에 앉는다. 다시 참선에 들어간다. 오후 3시 10분부터 50분간, 자기 내면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길상사 시민선원의 이런 '자율수행' 가풍은 선방 문에 붙은 '선원 청규'에서 확인된다. '출입시간은 매시간 정각으로부터 10분 사이. 늦게 도착하면 기다렸다가 다음 정시에 맞춰 입실한다'라는 청규가 선원의 엄격한 수행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뒤늦게 선원에 도착해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이성희(48 · 애향심)씨에게 물었다.

"시민선원인데, 왜 이렇게 청규가 엄격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이다. '50분 정진시간에는 들어오지도 나오지도 못한다'는 선원의 규칙. 길상사 시민선원이 지난 1998년 개원한 이후 7년간 고집스레 지켜온 전통이다.

때문에 길상사 시민선원은 방부 들이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입방 자격을 참선 유경험자들로 제한한다. 그리고 철저한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가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자세는 바른지 호흡이 거칠지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적으로 방부를 준다. 현재 방부를 들인 20여 명의 불자들 대부분이 수십년 넘게 실참을 해온 베테랑 수행자들이다.

"화두 몰입하니 망상 사라집니다"

포행 시간에 맞춰 선원 대중들에게 법담 시간을 갖자고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다. 선원에서 참선정진하면서 겪은 수행담을 듣기 위해서였다. 교육계 원로인 김종서(82 · 원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중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그러자 대중들이 합장으로 동의를 표한다.

먼저 이곳 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 4년째인 김임현(51 · 법륜원)씨가 말문을 연다.

"화두에 몰입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화두일념이 되면 주변의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잡념은 잡념대로 흘러 보내고 오직 화두와 하나가 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지요.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어 38년간 항공조종사를 지낸 최영정(74 · 벽파)씨가 말을 받는다.

"맞아요. 그간 동적인 운동을 즐겨오다 좌복에 앉다보니 급한 성격이 누그러졌어요. 치성한 번뇌 망상을 참선정진으로 거둬낼 때면 '이것이 수행의 참맛이구나'하고 환희심이 절로 나요."

법담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 수행 이야기로 옮겨진다. 문교부 편수국장을 역임한 김해인(81 · 영산) 씨는 참선정진을 통해 마음속 '참나'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참선은 그간 가졌던 일상의 알음알이들을 뿌리 채 뽑아내는 힘을 줘요. 그러면서 참선은 나와 진리가 하나 되는 길을 알려주지요. '내 마음 속 나 찾기'란 제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면서요."

매주 선어록 강의…선수행 안목 키워

길상사 시민선원의 특징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어록 강의에 있다. 30분씩 소참(小參)법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어록 강의는 그간 <전등록> <몽산법어> <선가귀감> 등으로 불자들에게 선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법문하는 소참법문을 통한 선어록 강의는 대중들이 분발심을 일으켜 마음공부 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석진(64)씨는 "선어록 공부는 마치 선지식을 옆에서 친견하는 것처럼 마음공부에 도움이 된다"며 "마음이 태만하거나 느슨해질 때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보약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선어록 강의는 재가불자들에게 실참실수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선어록은 막연히 갖는 선에 대한 내면적인 생각들을 역대 선사들의 말을 통해 점검하는 공부법"이라며 "재가불자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공부 됨됨이를 스스로 관조하고 더욱 용맹정진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길상사 시민선원은 또 집중수행 수련회를 개최해 재가불자들 수행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6시에 주말 선 수련회를 열고 있다. (02)3672-5945

글 · 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곡선원, 외국인 장학생 禪체험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5월 7~8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제6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참선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일본 중국 이란 미국 영국 등 세계 15개국의 정부초청석 · 박사 과정 외국인 장학생 80명에게 한국의 선을 체험케 하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더욱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대학생 10명, 재가불자 20명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는 참선 강의 및 실수, 선기공, 발우공양, 사찰예절, 108배 정진, 포행, 도량석 및 아침예불, 홍천 수타사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www.zenkorea.org (02)2055-3111

보리수선원, 직장인 주말수행

위빠사나 수행처 서울 보리수선원(주지 붓다락키타)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수행 프로그램'을 매달 한 차례 실시한다.

주말 수행 프로그램은 매회 오후 4시에 입제하며 이튿날 오후 5시에 해제한다. 일정은 4월 30일~5월 1일, 5월 21일~22일. 6월 11일~12일 등. 매회 마감은 목요일 오후 9시. www.borisu.or.kr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5> '조주무자' 때문에

초심자 시절 처음으로 용맹정진을 하러 갔다. 그 때 삼천배를 하고나서 받은 화두가 조주무자(趙州無字)였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의심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였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전혀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억지로라도 자꾸 의심을 일으키다보면 나중에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게 될거야."

억지의심으로 일주일간 밤낮 앉아서 용을 쓰던 기억이 새롭다.

'조주무자' 공안은 가장 인기있는 화두이다. 통계를 내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이뭣고' 화두와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공안이 아닌가 한다. 대혜종고가 그의 스승인 원오극근 선사의 <벽암록>을 불태워버리고서 간화선을 주창하면서 대중화시킨 공안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화두에 매진 커다란 개 입속으로 달려들어 견성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벽암록>을 외우고는 각본(?)에 의거하여 서로 선문답을 나누는 것이 당시 선가의 일반적 풍토였다. 모두가 선사요 게송을 멋있게 뽑아내는 선시작가였다. 급기야는 누가 앵무새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이른바 '송고문학'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모든 공안이 사구화(死句化)되어 버린 것이다.

'종문(宗門)의 제일서(第一書)'가 모두의 눈을 가려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해버렸다. 가만히 있을 대혜 스님이 아니였다. 하늘같은 스승의 책마저 불태워버리고 해설서가 없는 '무자'공안을 통해 간화선을 다시금 제창해 조사선의 본래정신을 되살렸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경계를 만나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옆길로 새거나 병을 얻거나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된다.

<능엄경>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이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변마장(辨魔章)'이다. 정진하면서 나타나는 갖가지 장애에 대한 설명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백은 선사의 <병든 몸은 이렇게 다스려라>는 한글번역본도 선병(禪病)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갖가지 경계에 대한 치유책은 선어록 곳곳에 보인다.

그런데 마(魔)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마도 치성해지기 때문에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고 한 것이다.

'무자' 공안으로 정진하다가 정말 개가 나타나는 경지를 체험한 선사가 있다. 운문종의 덕산연밀 선사 회상에서 정진하던 응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근기가 매우 예리하였으며, 또 '무자'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경계가 나타났다. 개가 태양만한 입을 벌리고서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겁이 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개를 피해 달아났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중들이 그 까닭을 묻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스승에게 물어보길 권해 방장인 덕산연밀 선사에게 올라갔다.

"두려워할 것 없다. 단지 정신을 바짝 차렸다가 개가 입을 벌리거든 달려가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응진 스님은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고 '무자'를 들고서 앉아 있었다.

밤중이 되어 개가 다시 나타났다. 그 큰 입을 쩍 벌리고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왔다. 그러자 응진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기 달려가서 그 입 속으로 뛰어들었다.

"퍽!" 한참이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그곳은 나무 궤짝 속이었다. 이에 확연히 깨닫고서 뒷날 문수사에 나아가서 선풍을 크게 떨쳤던 것이다.

나도 '무자'를 들고 있다가 보신탕이 한 그릇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천지조화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로데오거리 문정역 200M 문정1동 동사무소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일상의 기적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법(如法)하기나 한 것입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야기를 불법(佛法)의 이름을 참칭해서 팔고 있지나 않습니까.

오늘은 그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수수께끼 두 개를 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내가 절창(絶唱)이라고 생각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원효 스님의 <진역 화엄경소(晉譯華嚴經疏)>의 서문입니다.

대낮의 잠꼬대

위산(潙山)의 영우(潙山靈祐 771~853)는 본래 인적이 끊긴 험준한 산 속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도토리, 밤을 주으며 살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집을 얽고 절을 지어주었지요. 황제는 이곳에 동경사(同慶寺)란 이름을 내렸고, 정승 배휴(裵休)까지 찾아와서 현묘한 진리를 물었습니다. 그 아래 천오백의 선객(禪客)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합니다. 그 가운데 앙산(仰山慧寂, 807~883)과 향엄(香嚴 ?~898)이라는 기라성이 끼어 있었고, 이윽고 선의 5대 문파 가운데 하나인 위앙종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들 사이에 오간, 저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스승 위산이 설핏 낮잠이 들었습니다. 앙산이 모르고 방문을 열었고, 문고리소리에 잠이 깬 위산은, 내색을 않고, 벽쪽으로 돌아누웠습니다. 앙산이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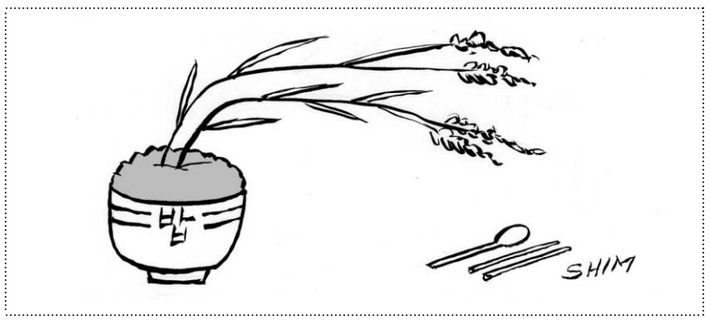
"저는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어째서 낯선 사람 대하듯 격식을 차리십니까." 스승은 잠이 그제서야 깬 척 몸을 뒤쳐였습니다.

앙산이 문을 닫고 방을 나가려 하자 위산이 불러 세웠습니다. "나 이제, 막 꿈을 꾸고 있던 참이네. 무슨 꿈인지 들어볼 텐가." 앙산이 자세히 듣겠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위산이 입을 열다말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네가 어디 한번 맞추어 보게나." 앙산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세숫대야에 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마친 위산이 자리를 고쳐 앉을 판인데, 또 다른 제자 향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만저만한 기적이 아니야." "제가 비록 저 아래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산이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세" 하고 자리를 고쳐 잡았고, 향엄은 나가서 차를 한잔 받쳐들고 왔습니다. 위산은 파안(破顔)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와 신통은 사리불(舍利弗 · Sariputra)과 목련(目連 · Maudgalyayana)을 넘어섰다."

이것이 세 사람이 벌인 기이한 연극의 전말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수수께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설을 좀 늘어놓겠습니다.

신화와 금기로 박제화된 천재 '원효'



원효, 신화이면서 금기인 인물

원효는 한국불교사의 다시없는 거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효만큼 신화가 된 인물이 드물고, 또 한편 원효만큼 금기인 인물이 다시 없습니다.

누가 그를 안다 하겠습니까. 산중에서 좌선에 들었다가도 어느날 술집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거룩하게 경전을 해설하다가도 다음날은 아이들과 표주박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노는 이 불기(不羈)의 인물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종잡을 수 없는 고삐풀린 말'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 당대에 전해진 팔만 사천의 법문, 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불교의 교설을 한 손에 장악한 사람이 다시 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불교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불교사의 장관입니다. 팔만의 법문이 서로 엇갈려보이지만 기실, 같은 진실의 서로 다른 얼굴이라는 종요(宗要)와 화쟁을 자신있게 설파한 사람이 조선불교사상 다시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무슨 배짱으로 무시할 것입니까.

행적을 보면 파천황의 건달같은데, 업적을 보면 크고 위대한 사람, 이 두 딜레마 앞에서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한편 신화 속에 모셔놓고, 한편 금기 속에 가두어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효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고 심오해서, 너무 복잡하고 치밀해서, 사람들은 그를 '신화'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를 말하면 언필칭 떠올리는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개의 해설서들은 여전 난해한 한문투 그대로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원효는 위대하다고는 하나, 무엇이 위대한지는 모르는 기이한 사태가 여전 반복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따라하고 행적을 본받겠습니까. 스님네들 중에 그의 궤적을 내놓고 따라할 파천황의 용기 혹은 만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 따라한다고 해도 불교계가, 아니 그래도 은처(隱妻)로 은밀히 몸살을 앓고 있는 판에, 원효처럼 장가를 들고 애를 낳겠다고 나서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커녕 용납되기나 할 것입니까. 하여 원효의 삶은 따라해서는 안되는 '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이한 사태 아닙니까. 위대하다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고, 존경하지만 본받아서는 안되는(?) 이 모순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엇갈리는 동거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화와 금기를 깨고, 원효를 보는 법을 배웁시다. 오랜 박제를 깨고 원효를 우리 삶 속으로 불러오는 노력 없이는 원효 조차, 지옥업이 될지 모릅니다. <금강경>은 그 우상화의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자꾸만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선도 또한 이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대역죄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화와 금기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불교라고 해도, 우리를 부자유와 비참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불교만큼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원효를 그만 해방시켜줍시다. 원효 자신이 그렇게 우상화되고 소외되어 오느라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불기(不羈)의 삶, 그리고 화엄의 교학 사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원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에 더 깊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환상 없이 다가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들려주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보여주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불교는 곧 그의 삶입니다. 그의 불기(不羈)의 삶은 그의 오랜 불교적 모색의 귀결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효의 불교는 경전에 대한 주석의 형태로 되어 있어, 독특한 개념과 어법, 그리고 논리와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읽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활간(活看)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삶과 교학 사이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불교가 곧 그의 삶임을 수수께끼처럼 알려주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가 쓴 <진역 화엄경소(晉譯華嚴經疏)>의 서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⑥5 법진 대사의 '이름'

조태호



대수 법진(834~919): 당말(唐末) 스님. 남악 문하. 위산영우 휘하에서 득도하고, 복주대안(福州大安)의 법을 이음. 저서로 <대수(大隧)개산 신조선사어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수행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불성을 보아서 견성한다'는 사람들은 '견성성불(見性成佛)하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또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불자들은 수행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진)

답1 : 불법의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즉 법성(法性)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연기법이며 연기는 곧 불(佛)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불성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유가 법성의 실현이므로 불교는 그 법성이 나타나고 작용하는 바를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지요. 해탈을 무슨 도력 얻는 것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입니다. 실망하실지 모르나 불법의 해탈은 번뇌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금강소석)

답2 : 수행을 하는 이유는 불법의 정수인 '연기법'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럼 연기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나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만들어진 세계 속에 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케 하는 것입니다. (까막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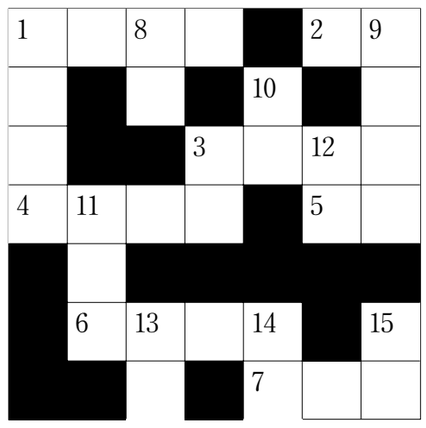
답3 : 수행해서 구하는 것은 연기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법의 바름(正)은 그 법을 세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해 '자등명법등명'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정(正)의 기준, 청정의 기준을 바로 알기 위해 연기법의 이치를 꿰뚫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수행자가 연기법을 그냥 몇 번 듣는다고 해 단박에 이해될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연기법을 철저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앞세운 수행, 즉 스스로 점검하며 가는 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기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만물이 부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연기즉불(緣起卽佛)'의 가르침입니다. 이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수행은 이런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화엄경>에 수록된 것으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서술함 2. 내각을 개편하는 것 3. 고려중기의 노비해방운동으로 주동자는 최충헌의 노비임 4. 파장이 25㎛ 이상인 적외선 5.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 6.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음, 비슷한 말은 우이독경 7.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세로 1. 지난날 농가의 식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음력 4~5월경을 이르는 말 8. 포유강(哺乳綱)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9.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음' 10. 해상에서 배를 습격하여 재화를 강탈하는 도둑 11. 관우(關羽)가 타던 말 12.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면허를 받아야 함 13. 살던 곳(집)을 떠나 다른 데로 옮김 14.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15. 부처를 일컫는 10가지 칭호 중 하나로 아라한의 준말.



돌을 다듬어 문지방을 설치한 창덕궁의 월광문.

즐겨 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





임금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는 창덕궁 대조전 안마당(사진 위)과 상량정 꽃담.



한국의 고궁
신영훈 지음 | 김대벽 사진
도서출판 한옥문화 | 4만2천원

고건축 전문가 신영훈 목수의 섬세하고 따뜻한 궁궐 이야기 영상미 빼어난 사진 어우러져 전통건축문화 길잡이로 손색없어

"강녕전 바로 뒤가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다. 교태전 대문은 양의문으로 강녕전 대문인 향오문과 그 시설이 다른데, 특히 문짝이 눈에 띈다. 향오문 문짝은 아주 투실한 판선형의 두짝문으로 둔중한데 여기문은 6짝으로 가볍게 구조하여 여인들도 힘들이지 않고 여닫게 했다. 이런 구조를 무심히 보면 그 따뜻한 배려를 모르고 말게 된다. 여인들을 위한 이런 씀씀이를 알아야 한국인의 심성과 한옥을 알게 된다."

경복궁 임금의 침전인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묘사한 글이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목수임을 자처하는 고건축 전문가인 지은이가 우리나라 고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섬세하고 따뜻하다.

그런 시선으로 쓴 책 <한국의 고궁>은 우리 궁궐 구석구석의 조형미를 오롯이 담아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리고 동궐의 후원, 종묘 등 모두 7곳, 빼어난 영상으로 담아낸 384컷의 사진에 만든 이의 생각과 살던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내 주는 글로 궁궐의 아름다움과 조영 의식을 천착했다.

요즘은 고궁마다 시간대를 잘 맞춰가면 안내자들의 해설을 들으며 편하게 고궁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예습하고 궁궐을 돌아본다면 구석구석까지도 상세히 즐길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 실제로 책장을 넘기다 보면, 무심코 지나친 고궁의 문화재들이 "아 그런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대목이 적잖다.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은 궁궐의 대문으로서는 드물게 군왕들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활용됐다. 영조가 1750년 한양에 사는 백성들과 만나 균역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인지 홍화문 문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간결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동궐(東闕)인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에는 아주 흥미로운 시설이 있다. 정자와 정자 사이의 통로에 걷는 이의 발자국을 따라 돌을 깔아 놓았다. 이것은 왕자들의 걸음 연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팔자걸음을 걸으려면 먼저 가슴을 쫙 펴고, 턱을 당기고, 활갯짓 하며 걸어야 한다. 동궐의 후원은 이런 호탕한 걸음걸이를 배우고, 정자에서 아름다움에 젖어 책을 읽으면서 호연지기를 익히는 구실을 한 일종의 도량이었다.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정전은 어떨까. 임금의 고(高)·증(曾)·조(祖)·부(父) 4대와 태조 등 나라에 큰 공덕을 세운 임금의 신주를 모셨던 이곳은 19간이나 된다. 거대한 규모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책에는 고궁에 대한 안내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 문제점도 실랄하게 지적했다. 창경궁의 경춘전은 대비의 침전이다. 그런데 내부를 보면 완전히 트고 전체를 마루로 깔았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변형한 것이다. 지은이는 "마치 일본 순사들의 무술도장 같은 분위기다. 무엇이든 복원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재청이 왜 이곳만큼은 원형을 복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는다.

현재 빈 공간도 많고 규모도 커 보이지 않는 우리 궁궐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1915년 산업을 장려한다고 전각을 헐어내고…" "1918년 간특한 무리들이 창덕궁 내전에 불을 질러 타버리자 경복궁의 침전을 옮겨 다시 짓는다고 자경전 일곽을 제외한 내전을 헐어내는 바람에…"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고궁에도 일제 야만의 흔적이 생생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독부 따위를 들어앉혀 오히려 문화적 열패감을 반증한 저들의 빗나간 행태가 새삼 가엾다. 이 대목에선 요즘 한창 독도문제로 인한 반일 감정이 더 솟구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책 중간중간에 멸실된 전각 형태를 직접 펜으로 그려 넣은 궁궐 배치도. 궁궐의 소재와 전각의 위치 명칭 연혁 등을 수록한 '궁궐지(宮闕志)'를 토대로 현재 남아 있는 것과 사라진 것을 표시해 궁궐들의 원래 규모가 현재처럼 옹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은 이 책의 큰 친절이다. 갖고 다니기엔 다소 무겁지만 분철해서 가고자하는 궁궐에 들고 간다면 더없이 훌륭한 궁궐 안내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경복궁 자경전에서 바로본 강녕전과 교태전 일곽. 지붕너머로 인왕산 줄기가 보이는데 서로 잘 어우러져 보기가 좋다.



외부로 벽체를 구조하지 않고 전체를 개방하고 문과 창을 달아 채광이 좋은 경복궁의 사정전.

전문가 서평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지용희 지음
디자인하우스 펴냄 | 9천원

드라마로 인해 이순신에 대한 열풍이 다시불고 있다. 기업에서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을 이순신에게서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와 위기관리능력, 솔선수범과 인간애에 바탕을 둔 리더십, 용기와 결단, 거북선을 개발한 창의성, <난중일기>를 남긴 기록정신, 정보수집과 활용 능력, 탁월한 전략과 전술 등은 오늘날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은 공통적으로 위에 열거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21세기 한국 경제 생존전략'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임진왜란의 전적지를 기행한 답사기와 <난중일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를 토대로 쓴 이순신 전기, 지은이의 독특한 관점과 경영철학이 살아 있는 '이순신 경영학'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 CEO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의 이순신, 임진왜란과 지금의 경제전쟁, 군사전략 경영전략 등을 비교하며 읽으면 더 유익하다.

이순신은 전략의 원칙을 중시했다. 군사전략이든, 경영전략이든 원칙은 같다. 이것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500년 전에 쓰인 <손자병법>이 오히려 새로움을 준다고 극찬하는 전략분야 전문가들도 있다. 이순신이 보여준 백전백승의 전략은 이런 점에서 경제전쟁 시대에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불패신화 이순신 경영학

지은이는 우선 적이나 경쟁기업을 이기기 위해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기의 강약점은 물론 상대방의 강약점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또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를 이순신의 으뜸 덕목으로 꼽았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원균의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궤멸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12척의 배와 오합지졸뿐. 당시 임금 선조조차 이순신에게 해전을 포기하고 육군 대장이 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오히려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며 선조를 설득했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이같은 불굴의 의지였다는 것이다.

이순신의 수군을 무적 함대로 만든 또 하나의 비결은 '신뢰'였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백의종군 후 맨손으로 시작한 이순신은 왜군이 휩쓸고 간 폐허를 누볐다. 민심을 수습하고 패잔병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이 나타났다는 말에 도주했던 패잔병이 모여들었다.

기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때론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신용과 신뢰를 잃는다면 기업은 결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다방면에 걸쳐 두루 통용되는 진리인만큼 기업가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꼭 권해보고 싶다. ■**안창운**(미래 창업연구소 이사)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邪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 도 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



홍천 수타사의 동방지국천왕. 수타사 사천왕상은 우리나라 사천왕상중 유일하게 표면이 유약 처리돼 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마다 개성 넘치네

부릅뜬 두 눈에 강렬한 색채,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무기와 발밑에 깔린 악귀들의 형상. 사찰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천왕상은 일반인들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의 방위신(方位神)이었지만, 불교에 귀의해 부처와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 동쪽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쪽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쪽의 다문천왕(多聞天王)으로 이루어진 사천왕상은 그 강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문적 · 예술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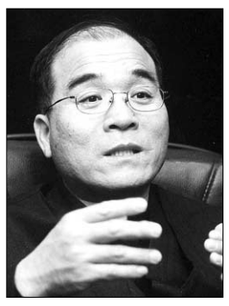
<사천왕>은 이처럼 일반인들의 시선이 쉽게 미치지 않는 사천왕상을 주제로 한 사진집이다. 관조 스님이 보림사와 능가사, 통도사, 불갑사 등 여덟 사찰의 사천왕상을 사진에 담았다.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가장 앞선 시기에 제작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과 온화한 표정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 등이 눈길을 끈다. <사천왕 백서>를 펴내는 등 사천왕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건축가 이대암씨가 '사천왕상의 기원과 역사'란 글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그동안 스쳐지나가듯 보았던 사천왕상의 화려한 색채와 저마다의 개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왕
관조 스님 사진
이대암 글
한길아트
6만원

"깨달았다고 착각 말라"



'원각경' 해설서 낸 이제열 유마선원장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깨달음의 경지를 실체화 · 대상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의 그림자, 즉 허깨비가 되는 것입니다. 얻어진 경지를 인정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내는 '현대인을 위한 경전시리즈' 첫 번째로 유마선원을 이끌며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열 원장(사진)의 <원각경> 해설서가 나왔다. 그동안 이 원장이 유마선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원각경>은 대승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등 12보살과 나눈 문답을 담은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돈오(頓悟, 단박에 깨침)'의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는 <원각경>은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오해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보조지눌 선사가 이 경을 중시했고, 조선 초 함허득통 스님이 <원각경소(疏)>를 지으면서 중요한 수행 경전으로 채택됐다. 지금도 강원에서는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과 함께 사교과(四敎科)로 채택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지고한 깨달음의 경지인 원각(圓覺)을 돈교(頓敎)적 측면에서 설함과

"앎과 깨달음이 사라진 상태 바로 알 수 있는 길 제시"

동시에 그에 이르는 수행법을 점교(漸敎)적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각경>은 상근기나 하근기 수행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원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원각이란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원(圓)'이란 본래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체의 번뇌가 끝까지 다하여 그 마음이 세계와 더불어 평등해진 경지를 의미합니다. '각(覺)'은 깨달았다는 뜻으로 중생의 근원적인 어리석음인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갖 법의 근본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지가 지극하여 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는 최상 무극의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가리켜 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각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장인 '보안보살장'이다. 여기서는 나와 세계의 본질, 부처의 본질, 깨달음의 본질이 모두 허깨비라고 보고, 이 모든 허깨비를 여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머물고 어떤 방편을 써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수행이나 깨달음이 모두 허깨비라고 해서 깨달은 경지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삼스럽게 의지해야 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허깨비를 허깨비로 보고 앎과 깨달음이 사라진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자는 이 원각법문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으로 삼고 중생을 교화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원각경 이제열 지음
여시아문 | 9천5백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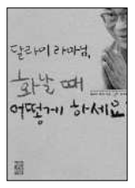


■ **<삼각산 풍경소리>**(송금엽 지음, 세손, 9천원)="불교의 피서법은 더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더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여 따로 내 몸에서 떼어놓고 생각을 하니 그것을 피하고 식혀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 버리면 둘이 아니므로 그것을 피할 것도 식힐 것도 없다."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 장르다. 하지만 그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지 않다면, 곁에 두고 몇 번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수필의 맛'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세이집 <삼각산 풍경소리>에는 월간 <법시>와 <금강> <불교>등의 주간 및 편집인을 거친 지은이의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수필 60여편이 담겨 있다.



■ **<히또빠데샤>**(나라야나 지음, 이지수 옮김, 통나무, 1만5천원)=인도 고대 우화집 <히또빠데샤>를 인도철학 연구에 천착해 온 이지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가 우리말로 옮겼다. 유익한(hita) 가르침(upadesa)이라는 뜻의 <히또빠데샤>는 위슈누샤르마라는 스승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수다르샤나 왕의 아들에게 갖가지 우화를 통해 지도자가 알아야 할 처세와 치세의 지혜를 일러주는 내용이다. 힌두교 최고의 경전인 <바가바드기타>, 희곡 <샤문달라>와 더불어 범어문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도올 김용옥은 책의 서문에서 "<히또빠데샤>나 초기불교경전인 <숫타니빠타>는 동일한 문명에서 성립한 동일한 인간의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고 적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세상사는 지혜



달라이 라마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달라이 라마 지음 | 김석희 옮김 | 열린책들 | 8천5백원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의 변화는 아마 '화'일 것이다. 화가 났을 때면 '마음을 비우라' 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라'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은 잘 생각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생각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했던 주요 강론과 법어를 녹취 정리한 <달라이 라마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는 과연 어떻게 화를 풀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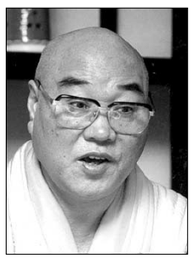
"나도 때로는 화가 나거나 울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분노의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무르는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이 라마는 수행을 통해 화나 분노 등 일시적인 조건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방편으로 달라이 라마가 몸소 체득한 보살 수행과 분석적 명상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의 발달' '반전운동' '빈부격차' 등 다양한 주제의 법문과 청중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회사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직장 내 갈등 해소 방법, 폭력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바른 자세 등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월서 스님 고희기념 법문집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게송처럼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면 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모두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화합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화합의 공동체를 위하여' 中)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사진)의 고희 기념 법문집 <월서선사 원경록(圓鏡錄)>이 나왔다. 월서선사법어집 발행위원회가 '죽은 뒤에는 모를까 살아서는 안된다'며 법문집 발간을 고사한 월서 스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펴낸 책으로, 스님의 법문과 신문 · 잡지 기고문, 인터뷰 등을 실었다.

월서 스님은 1956년 구례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59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와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하는 한편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사 주지, 불국사 주지, 제8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이 법어집은 월서 스님이 평생 불문(佛門)에 머물며 받은 은혜를 다시 법계(法界)에 회향하는 대작불사"라며 "그러나 달을 볼지언정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아야 월서 화상의 법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02)919-0211



월서선사 원경록
월서 스님 지음 | 월서스님법어집간행위원회 | 비매품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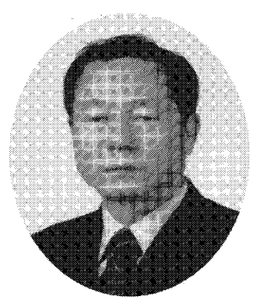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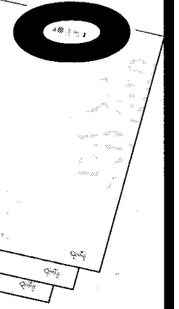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3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4	입제록강설	무비 스님	불광
5	선을 가까이 하라	참회승	여시아문
6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7	깨달음의 연금술	게이트	유란시아
8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부
9	산색	연관 스님	호미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도서 안내:(02)737-0695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가로122cm X 세로32cm)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가 차거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품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어깨,허리,무릎 결림등이 자연 치유된다.
쑥뜸의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문의전화:닥터금강(02)3210-3170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비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북한산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성불에도최고 선물로도최고
北韓産 金剛念珠
소원도 꼭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 북한신비의 금강염주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고 단단한 염주중에 염주인 금강염주는 북한 신비의 특산품으로 평안도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 입니다.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보기만 해도 악귀와 잡귀가 도망가고 액운을 쫓으며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상온에서 93%의원적외선이 방출되어 건강에도 최고이며 강한氣로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입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건강(氣)이 약하신 분
1set 225.000원
108.12 195.000원
108.손목 160.000원
12.손목 110.000원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신제품 금강바이오니아 108.손목염주도 판매합니다.
金剛念珠社 문의전화 (02)723-0909
직영매장 이화불교사 TEL (02)720-1700,734-1383 (불교용품일체 도,소매)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창작 찬불가 날개달기

■ 5회 맞은 창작 찬불가 공모 어제와 오늘

조계종, 운영방법 개선 통한 업그레이드 시도



2000곡이 넘는 찬불가 가운데 널리 불려지는 곡은 30~50여곡에 불과하다. 사찰합창단을 활용한 창작 찬불가 보급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불교음악인 발굴과 찬불가 보급을 목적으로 시작된 '창작 찬불가 공모'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997년부터 격년제로 진행돼온 공모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한 탓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그러나 주최측은 올해 제5회 공모를 준비하면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시도는 공모작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간 공모에 작품을 제출한 이들 가운데 작곡 전공자는 20~30%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대중가요 습작생들로,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학생들이 다수였다.

여러 차례 심사에 참여했던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씨는 "불교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추어적인 미숙함을 그대로 노출한 작품이 적지 않아 수상작을 뽑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에 주최측은 전문음악단체와 손을 잡고 우수 음악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계 안팎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나섰다. 공모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황학현씨는 "현재 음악대학과 음악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작품 응모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0여 편에 불과했던 공모작의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작곡 전공생의 비율 역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고상인 대상의 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동아음악콩쿠르 등의 널리 알려진 음악 공모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조계종 문화부측은 "공모전의 권위는 상금과 무관하지 않다"며 "질적으로 우수한 찬불가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종단의 지원과 투자"라고 밝혔다.

20~30% 불과한 작곡 전공자 적극 홍보로 80% 까지
상금 상향 조정 · 심사위원 외부 비율 확대 등 질적 투자
작품 및 수상자들 사후 관리 위해 종단 차원 모색 검토

공모전의 운영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공모전 운영위원인 불교음악 관계자들의 불화와 음악성향 차이 등이 불거지면서 공모작 선정을 둘러싼 심사위원들의 뒷얘기가 끊이질 않았었다. 주최측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의 불교음악 전문가 60%, 종교와 무관한 유명 작곡가 40%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섭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모에 앞서 작사가들에게 노랫말을 의뢰, 응모 작곡자들이 원하는 경우 의뢰한 노랫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각의 찬불가 장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공모부터는 기악곡 · 가곡 · 가요 등으로 공모 장르를 세분화할 계획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공모 이후의 관리 · 감독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공모가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전무했다. 반영규(불교음악협회 명예회장)씨는 "정작 곡을 생산하고도 보급의 길이 막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종단과 불교계 방송매체 등이 중지를 모아 찬불가 보급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부터 '불교합창 콩쿠르'를 통해 수상작을 소개하며 대중화를 꾀한 것은 새로운 시도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수상자 관리도 주최측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찬불가 공모가 불교음악 신예들을 발굴할 수 있는 통로구실을 하는 만큼 수상 이후 사찰 합창단과의 연계나 관련 단체 취업 알선 등을 추진, 수상자들이 계속해서 양질의 찬불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신재 기자

창작찬불가 공모는…

- 공모부분-독창곡 혹은 합창곡
- 응모자격-대한민국 남녀 20세 이상
- 접수기간-8월 1일~ 8월 8일
- 심사발표-10월 10일
- 시상식 및 수상곡 연주-12월 6일 오후 2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 시상내역
  대상 1인(상금 500만원, 상패)
  우수상 1인(상금 300만원, 상패)
  장려상 2인(상금 50만원, 상패),
  입선 5인(상금 20만원, 상패),
  아름다운 노랫말상(상금 100만원, 상패)
- 제출서류
  악보 2부, 응모신청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02)2011-1770, (02)725-7527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 왼쪽부터 수나문, 오세은, 오세리.

전통에 대중성 살린 '보현십원가'

블루스 레게 랩 등 다양한 스타일 접목



신라의 향가 '보현십원가'에 현대적 음악 스타일의 곡을 붙인 앨범이 나왔다.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은 균여 스님의 '보현십원가'를 대중음악 형식으로 새롭게 엮은 앨범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보현십원가'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내용을 담은 몇 안 되는 현존 10구체 향가.

앨범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로 '보현십원가'의 본디 의미를 '지금-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되살린 점이다. 향가는 문헌상에 텍스트로 남아 전해지지만, 신라 당시에는 '노래'로 불렸다. 균여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현십원가를 만든 것이다.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오늘날의 언어적인 미감을 녹여 개역 작업을 했다.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한 폭넓은 음악적 시도 역시 기대를 모은다. 11수의 향가는 블루스, 레게, 컨트리락, 랩 등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로 표현됐다.

유명 기타리스트 오세은 · 오세리 · 수나문 등의 기본 멤버 이외에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서울시립대 교수), 힙합그룹 드렁큰 타이거의 랩퍼 타이거 JK, 기타리스트 김광석 등의 뮤지션들이 작업에 동참했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앨범 자켓 사진을 맡았다.

www.spcbuddha.com, (031)585-3285

강신재 기자

436년 만에 공개되는 '월인석보판목'

공주 갑사(5월 1~20일, 보장각)



월인석보판목(보물 제582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불교대장경인 '월인석보판목'(보물 제582호)이 만들어진지 436년 여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장각에서 월인석보판목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해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1569년 만들어진 월인석보판목은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이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판목이다. 원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으나 현재는 21권 46매만 남아있다.

이 판목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4·8 봉축카드·생일카드

비단접등 실용신안특허 의장등록 33289호 제50831호
값 2,700원(100개 이상 주문시)

4·8 봉축카드



생일카드

카드내지



16절
• 카드 100매 이상 단가 500원
• 카드 500매 이상 단가 400원
• 카드 1,000매 이상 단가 300원
• 봉투, 내지 인쇄포함

프린트용 칼라인쇄지



A4
(80P모조)
값 10,000원(500매)

동진기획 홈페이지의 상담문의(홈페이지 상단우측)에 가시면 카드를 크게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Since1975
동 진 기 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8888(代), 515-2988
(051)555-1087, 508-9377~9
FAX:(051)508-0101 H·P:011-554-2988

■불교서적■불교카렌다■주문카렌다■불교용품■
■연등■4·8카드■생일카드■사찰인쇄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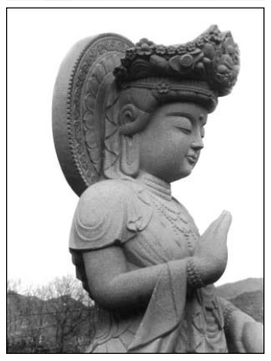
E-mail:tunhwang@yahoo.co.kr
www.tunhwang.com www.dongjin.biz www.동진기획.com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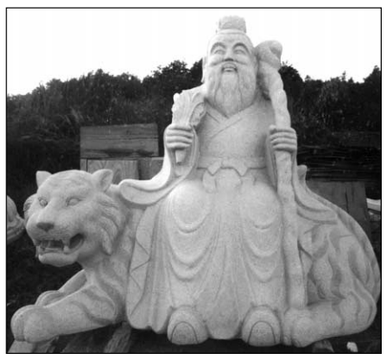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7

4월 16일

주제 -생사문제와 선수행



무여(無如) 스님은

· 1940년 경북 김천生.
· 희섭 스님을 은사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
·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망월사 등에서 40여년 수선 안거.
· 칠불사 망월사 선원장 역임.
· 1987년부터 봉화 축서사에서 제방납자 지도.
· 현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간절하게 화두들면 생사 벗는 길 나와

說禪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생사문제는 선수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을 선(禪)의 시작이라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초탈하고 자재하는 것은 수행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돈 명예 권세 행복한 가정생활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대사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렬한 일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뜻이 있으며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KBS 방송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육신은 아무리 잘 먹이고 관리하고 좋은 약을 써도 결국 목숨이 다하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병들지 않고 몇 년 생명이 연장될지는 몰라도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생사문제는 외부의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역경에서 해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저 허공중에 구름이 일고 흩어지는 것으로 비유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행(諸行)은 무상(無常)'이고 '생자(生者)는 필멸(必滅)'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석숭'보다 산 돼지가 낫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석숭은 중국 진나라 때 아주 유명한 부자였답니다. 그런 석숭도 죽으면 산 돼지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생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출가의 길을 나섰습니다. 생사문제야 말로 불교에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답은 오직 주인공, 즉 마음을 잘 닦는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닦아서 삼매의 경지에 들어야 합니다.

그럼 삼매가 뭐냐? 신심이 일여(一如)된 상태 즉,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과 하나가 되고, 화두하는 사람은 깊은 선정에 들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점심공양하고 막 염불한 것 같은데, 참선에 들었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처럼, 자기의 존재나 시공을 초월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경지를 지나서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 말길이 끊기고 마음작용이 멸한 그곳에 도달해야 참으로 생사를 초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상승 수행이 바로 화두선입니다. 요즘은 화두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자신있게 화두선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깨치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뛰어난 겁니다. 이미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화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화선 수행은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깨쳐서 생사를 초탈하는 것은 출 · 재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재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수행은 초학 후학이 없으며, 막 시작한 분이나 몇 십 년 공부한 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생의 혼습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깨치는 것은 오직 그 당사자의 포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마구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 생각하듯 아주 간절하게 화두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화두참구자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늘 한결같이,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막 부모의 상을 당한 듯이 오직 화두만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을 들더라도 처음이 곧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 정성껏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간절하게 들리면 선악의 망상도 떠나게 되고 해태(懈怠) 방일(放逸)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화두를 들면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한번 뛰어넘어서 여래지에 도달하는 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두를 들 때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두참구할 때는 보통 공부한다는 사사로운 생각을 말고, 내 생사문제를 내가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비참하거나 괴로울 때, 혹은 자신의 처지가 사면초가로 속수무책일 때 오직 나를 살릴 길은 오직 이 뿐이라는 생각으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공부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구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하면 능히 '도과(道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꾸어도 화두참선 꿈을 꾸고 망상을 피워도 화두 망상을 피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어쩌다가 괴로울 때 옛날 초등학교 시절 동요가 생각나면 그 동요 가락에도 화두가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다보면 어느 순간 화두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화두가 힘을 얻어요. 흔히 '득력(得力)'을 한다고 합니다. 화두에 힘을 얻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목이 꽉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경지까지 가면 화두를 일부러 들지 않아도 절로 들어지고 의심하지 않아도 절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놓으려해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소소영영하고 현전합니다. 이와 같이 화두가, 의심이 간절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진의(眞疑)'가 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용맹정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요>를 쓴 고봉 스님은 학인들의 공부를, 깊은 연못에 빠진 기와장이 곧장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지혜가 나오고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어서 잠으로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이상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에 자재한 모습을 보인 옛 어른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삼조인 승찬대사는 수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법회를 열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큰 나무 밑으로 가 합장한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선불교가 활짝 꽃을 피웠던 당 · 송 시대는 무수한 도인들이 '경쟁하듯이' 저마다 '특이한' 모습으로 입적했습니다.

당시에 큰스님이 돌아가시면 절에 찾아온 객승의 첫마디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가에서는 죽음을 옷 갈아입는 것쯤으로 비유했습니다. 조선시대 기화 스님은 죽음을 부스럼 딱지 떼애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생사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명제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열심히 해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 법신의 탄생, 열반의 기쁨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지금 건강한 몸이지만 무상하여 변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속히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체중생 성청정 종래무생 무가멸
(一切衆生 性淸淨 從來無生 無可滅)
여당일념 자지비 홀단윤고 생낙반
(汝當一念 自知非 忽斷輪苦 生樂般)

일체 중생의 성품이 청정해서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가히 없는 것.

그대가 만일 한 생각의 허물을 안다면 문득 윤회의 고통을 끊고 극락에 태어나리라.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TwoTwo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金剛壯士

· 200여 가지의 출력양식 지원 (축원, 등표, 위패, 봉투, 우편엽서 등)
·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
· 국내의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 연등, 기타행사)
·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 기능
· 특정축원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듬처리 기능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저희 투투컴퓨터에서는
사찰신도관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단관리 프로그램, 납골당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 투투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 역학 프로그램 사주대전!
투투컴퓨터에서 만나보십시오!

투투컴퓨터 서울 (02)585-1141 부산 (051)505-2434 대구 (053)563-9841 제주 (064)721-2434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앙-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수미산 여행은 많은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7



질의 법사 : 영일 스님
- 통도사강원 강사 역임
- 20여 년간 제방선원 수선 안거
- 현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
- 현 전국선원수좌회 학술분과 위원장



재가 질의자 : 류상영 거사
- 세계일보 편집기자, 월간<불교세계> 편집장 역임
- 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제26대 회장, 자비살림 불교생협 준비위원장



재가 질의자 : 이정옥 보살
- 여성 신행단체 연꽃 모임 창립
- 소림사 청심장학회 설립
- 현 부산불교신도회 감사
- 현 국군장병포교후원회 회장

“잠들기전 단 10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세요”

영일 스님 : 화두를 간절하게 참구하면 생사 초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깊은 선정에 못가본 수좌로서 결단코 화두를 깨쳐서 생사를 자재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불교 생사관과 선에서 바라보는 생사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당시부터 원시불교, 소승불교, 부파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대승불교를 일컫는 전통불교는 이 세계를 환영의 세계로 보고, 인생을 고해라 여기며, 업보윤회설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불교 생사관은 염세주의와 그리고 출세간지향주의, 생사윤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 생사관이 어떻게 대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여 스님 : 전통불교의 생사관은 12인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어느날 새벽 선정에 들어 12인연법을 관합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늙음과 죽음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곧 (태에)남이 있는 까닭에 생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전통불교 생사관의 근본이지요.

그런데 선에서는 근본 자성 즉 화두를 잘 참구함으로써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생사의 무명을 타파합니다. 선은 본성을 깨달아, 반야지혜를 깨닫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흔히 선이 좋다 하는 것은 늙음, 죽음, 삶, 유취 등의 12단계를 모두 뛰어 넘었기 때문입니다. 선은 늙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일 스님 : 불교의 궁극적인 관심은 고통의 해탈에 있습니다.

선 수행을 통해서 생사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적 해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선 수행이 정치적 부패, 지역갈등, 범죄, 기아, 전쟁, 화재,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요?

무여 스님 : 그 사회적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하면, 탐진치(貪瞋癡) 삼독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 분수에 넘치는 탐욕심을 낸다든가, 마음을 잘 못 써 지나치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돈에 과욕을 부려 돈의 노예처럼 돈 버는데만 온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 단 10분 만이라도 수행에 힘쓴다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행복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겁니다.

인류가 참으로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수행의 시대, 선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있습니다.

영일 스님 : 법문을 통해서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정작 죽음이 닥쳐올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정념으로 임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여 스님 : 6~7년전 제가 아는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은 나이 오십에 출가해 20여 년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던 스님이예요. 제가 그 돌아가신 토굴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스님의 시신을 보니 빙긋이 웃고 있어요. 추측하건대 염불이 잘 돼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숨이 멎었던 것 같아요. 이와같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혹 화두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염불이나 주력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류상영 :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물질적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가 한 해에도 몇 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속에 저희 재가불자들이 올곧게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말씀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여 스님 :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봐요. 20~30년전만 비교해 봐도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족합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남과 비교하는 자체가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악중의 죄악입니다. 그런 인(因)을 심으면 내생에도 그 비슷한 인과를 받기 쉽습니다. 사소한 어려움에도 쉽게 자살하는 그런 사회적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 닦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정옥 : 저는 사실 불교에 귀의한지 오래됐지만 참선을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전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해 왔습니다. ‘참선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실천을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여 스님 : 보살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일반적인 신도님들의 신앙생활 이라고 여겨집니다. 몇 십 년을 해도 참으로 진정한 수행체험을 못해 본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자기점검하면 점점 성장하는 자신 느낄 수 있어요”

수행을 하려면 오직 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선이 수승하니 참선을 하면 가장 좋지만, 참선과 인연이 없으면 염불을 하거나 주력을 하더라도 오직 한 염불, 한 주력만 하세요. 연세가 높을수록, 이런 저런 수행이 좀체 안 되는 분일수록, 오직 한 가지 수행을 택해서 열심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 요즘 위빠사나 수행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빠사나와 간화선이 어떻게 다른지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여 스님 : 위빠사나 수행과 화두 수행은 달라요. 위빠사나 수행은 마음 챙김의 수행법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다리를 든다, 다리가 들린다, 걸어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등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챙기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화두도 결국 집중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것이 다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위빠사나는 집중하기는 하지만 그런 관찰은 힘이 화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반면 화두는 진의가 ‘돈발(頓發)’하면 참으로 집중이 잘 되서 의외로 쉽습니다. 더구나 한국에는 화두선을 오래한 선지식들이 많습니다. 어느 절에 가도 조실 선덕 유나 스님 같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위빠사나를 제대로 지도 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신도님들은 매일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혹시라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날을 결산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가게를 하는 분도 그날의 결산을 하고, 공장을 경영하는 분도 결산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결산은 안합니다. 반성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점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무시기 직전 늘 하루를 결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얼마라도 수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사람은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 잘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라는’ 모습이 훤히 보여야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자기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자신이 점점 자라고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후에는 꼭 축원을 하세요. 내가 이것은 꼭 해내고 말겠다는 인생의 희망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수행하고,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는 습관을 들여 나날이 더 좋은 날, 새로운 날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범어사 설선대법회 일곱번째 법주로 나선 무여 스님은 4월16일 ‘생사문제와 선수행’을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매일 수행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들여 지혜로운 삶을 만들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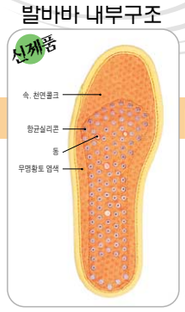
2005年新/製/品 스님용 신발 滿行靴

발명특허 제4722호 출원
실용신안 제2318호 출원
의 장 제1689호 출원
상 표 제2956호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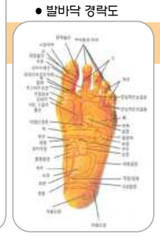


수제화 - 만행화
■ 규격 : 215~290(mm)

발바바 내부구조



● 발바닥 경락도



깔창 '발바바'
(우리땅 우리황토로 제작된 실리콘 양면 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 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발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 단화 특징
- 한국 고무신코 기준 스님 치수로 제작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외국에서도 한국스님의 품위를 유지 (한국스님용 신발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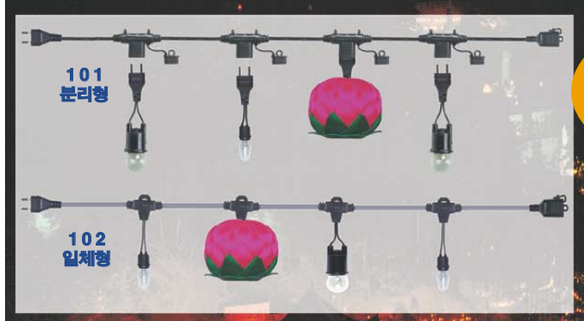
2.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백, 흑
- 신도용 : 흑, 백, 자주색

3. 가 격
80,000원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4월 27일 수요일 제 523 호

남산에서 불교 느껴봐요



소나무, 서울타워, 동 · 식물원, 케이블카, 한옥마을. 이것들의 공통점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바로 남산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아마도 전국민들이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서울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또 남산이다. 봉화(烽火)를 피워 올리던 봉수대가 있는 곳이고, 현대사에서는 '안기부'를 상징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자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듯이 남산에도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가 있고, 대원 장경호 거사가 설립한 대원불교대학이 있다. 그리고 매년 봉축기간 장충공원을 장식하는 '자비의 등'도 있다. 불자의 눈으로 남산에 한번 올라보자.

남산을 휘감는 '자비의 등' - 연등 5000개 장충공원 밝힌다



장충공원을 비추고 있는 연등.

남산의 봄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하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4월 23일부터 장충공원에 '자비의 등'을 달고 있다. 5000개의 연등이 장충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휴일에 장충공원을 방문하면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펼칠 수 있는 자비의 축제에도 동참할 수 있다. 신선한 봄바람을 맞으며 연등을 따라 산책하는 것에서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도 5월 3일부터 등을 밝힌다. 온 교내에 설치된 등은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를 보다 멋스럽게 해준다.

후암동에 위치한 대원불교대학과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자리한 충장사도 주변에 연등을 설치해 세상을 자비롭게 비추고 있다.

5월 부처님의 달에는 남산에서 불심을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태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 울타리 없는 긴~산책로

남산의 변화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순환도로가 산책길로 바뀐다는 것이다. 1991년 6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북측순환도로(국립극장~소파길)에 이어 남측순환도로(국립극장~남산도서관)도 5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산책로로만 이용된다. 대신 남산에 오를 때는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순환버스는 충무로역~동대입구역~국립극장~서울타워~남산도서관~서울애니메이션센터~충무로역을 돌며 이용객들을 안내한다.

울타리도 없어진다. 1968년 남산을 돌며 쳐진 25.9㎞의 철제 울타리 중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14㎞가 철거된다. 남산에 사는 동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더 안정된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5년 문을 연 서울타워도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볼거리 풍성 - 한옥마을 외국인에 인기

그래도 꽃들이 만발하는 산책로와 어린이들의 '필수 코스' 동 · 식물원, 케이블카, 안중근 의사기념관 등은 여전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사진)은 외국인들에게도 각광받는 명소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문화행사가 계속되고 있어 가족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문입구에서는 연극, 춤 등이 상설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마도위 박영효의 가옥 등 한옥 5개동이 최근 복원돼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의 가옥 양식과 생활방식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도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전국 서점 50곳 '불서 전시회' 40권 선정 … 염주 등 사은품 제공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불서 특별전'이 열린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50여 서점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도서전'을 개최한다.

불출협은 서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별로 선정된 서점에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불서 40여권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불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염주와 연꽃 차 걸이 장식품 등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도서전에 출품되는 불서는 불교계 출판사와 일반 출판사가 발간한 불교서적 중 출판사의 추천을 받은 책을 한 권씩 선정한 것이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에세이, 법문집, 수행 지침서 등이 주류를 이룬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불교계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불서의 경우 발행 부수도 적고 유통상의 문제로 지방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지역 불자들과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양질의 불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방송 봄철 프로그램 개편

5월 2일, 음악 프로그램 강화…11개 신설

불교방송이 5월 2일부터 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신설 프로그램은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뮤직 플러스'와 소외계층의 삶을 조명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등 11개 프로다.

이번 봄철 프로그램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음악프로그램 강화.

매주 월~일요일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뮤직 플러스'는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일요일 시간대에는 지난 개편 때 폐지됐던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삶을 조명해 보는 '사랑의 징검다리(일, 오전 7시 5분)'가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편성됐다. 이 밖에 일요일 오후 6시 15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현해 불교사상과 범패, 찬불가 등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불교음악의 세계'가 새롭게 선보인다. 탤런트 김혜옥씨가 진행하는 '우리 오늘 기쁜날(월~일요일 오전 11시 5분)'은 신행상담과 함께 불자 예술인을 초대하는 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시간대를 옮긴 프로그램은 '음악의 마을(오후 2시 5분에서 오후 3시)' '금강경 독송(아침 7시 5분에서 아침 6시 25분)' '성전 스님의 행복한 미소(밤 10시 50분에서 밤 9시 5분)' 등을 포함해 6편이다. '차 한잔의 선율' 'BBS초대석' '국악발견' 등 9개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한편 불교방송은 개국15주년을 맞아 '라디오 법회(5월 1일 오전 10시)' '오직 모를 뿐(5월 1일 오후 5시 10분)' '효 음악회(5월 8일 오후 2시 5분)' '마포 라이브 카페(5월 1일 오후 12시 10분)' '천국사 산사음악회(5월 1일 저녁 8시 5분)' '트롯, 트롯, 트롯, 아! 트롯(5월 1일 저녁 7시)'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5월 1일 밤 10시 5분)' 등의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사찰 생태안내자 교육 사찰생태연구소는 사찰 생태안내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사진). 사찰생태 홍보와 모니터링, 교육 등 3개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5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21명을 접수한다. (02)745-5812

학술연구논문 공모 진주산업대 청담사상연구소는 청담 스님의 인욕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 (055)751-3699

실버미팅 개최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5월 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독신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제2회 '청춘을 돌려다오' 실버미팅을 개최한다. (02)466-6242

롯데월드 불교체험마당 불광사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불교체험마당을 마련한다. 연등과 장엄등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컵등 만들기 시연, 탁본체험, 다도 시연 및 시음행사, 꽃꽂이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02)413-6060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 전현수(전 현수 신경정신과) 원장은 5월 4일~6월 22일 서울 구룡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을 연다. 미국 메사츄세츠 의과대학 부속병원 존 카밧진 교수가 고안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으로, 출 · 재가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02)400-2911

20면 상식 퍼즐 정답

보	릿	고	개		개	각
현		래		해		골
행			만	적	의	난
원	적	외	선		사	망
	토					
	마	이	동	풍		나
		사		문	외	한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 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할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전시

구슬로 엮은 한폭의 동양화

김인숙 원장 목걸이 전시회 '구슬꽃 이야기'





호박 브로치.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국민대 명예교수 · 사진) 원장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평창동 가나포럼스페이스 1층에서 '구슬꽃 이야기' 목걸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목걸이, 귀걸이와 브로치 1500여점은 모두 김 원장이 직접 만든 것이다. 특히 꽃과 나비, 새, 박쥐 등 전통적인 동양화에 나오는 소재들을 장신구에 응용해 한 점 한 점에서 동양의 미가 느껴진다. 수익금 전액은 여성불교 발전을 위해 희사할 계획이다. (02) 720-1020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생활속에 꽃핀 연꽃예술

경기 호암미술관 10월 16일까지 '연꽃' 전



'수련도 십곡병' 일부.

경기도 호암미술관이 10월 16일까지 '연꽃' 전을 연다. 불교미술과 도자기, 서화, 각종 생활 용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꽃을 주제로 한 작품이 총 74점 출품된다.

연꽃 대좌가 돋보이는 국보 128호 '금동 관음보살 입상', 불교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한 국보 234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불상 · 불화를 포함해 풍탁 · 반자 등의 불구(佛具)가 진열대에 오른다.

연꽃 모양의 나전 일주반(一柱盤) 등 연꽃을 형상화한 민속용품도 만날 수 있다. (031)320-1801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봉축카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과 친구 등에게 불심(佛心)을 담은 카드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릴 수 있는 봉축카드가 나왔다. 10개 1세트에 6000원인 봉축카드는 20세트 이상 구입시 단체명 인쇄도 가능하다.(02)732-3520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부처님 (상)

원정언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그림 · 문병성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에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만나 뵈었다. 2000년 6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때였다. 일하러 다닌다고 바쁘게 살다보니 집에서 가까운 절에만 다녔는데 몸도 아프고 시간도 남아서 운수사를 찾은 김에 인등도 밝혔다.

간호해 줄 사람도 없이 서울에 가서 항암치료를 마치고 9개월 만에 내려오니 살림살이는 엉망이었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 있었다. 더구나 독한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의 기능도 많이 저하돼있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이 한약이었다. 그러나 '암환자는 한약을 먹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어차피 죽을 것 먹어나보자'고 결심하고서 한 재를 주문했다. 한 봉지 한 봉지 먹을 때마다 몸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남편이 도와주면 살 것 같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때마다 섭섭함만 더해져갔다.

의사는 2년 6개월 정도 살 가능성도 30%가 안된다고 했다. 남편도 이미 포기상태인 것 같았다. 나는 죽을 것 같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편이 예사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만 신경 쓰게 되지 아이들 아버지에겐 베풀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갑자기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4살, 2살 된 사내아이 둘의 원래 모친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사정을 들은 나는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내 나이 27살에 입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다. 나 또한 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를 낳았다가 차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어진 아이 둘을 잘 키우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그리고 소파수술을 하면서 복강수술도 함께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키우겠다'고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운수사 부처님 앞에 앉아 그런 생각까지 들자 '그러고도 모자라서 참회의 눈물까지 흘려야 하다니'라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숨이 끊어질듯 몸이 아파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무조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했다.

한참을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나니 마음이 텅 비면서 편안해지고 어둡던 마음도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당시 나는 30년 넘는 우울증과 암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잠깐 방황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에도 교회가 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나는 부처님께 '부처님, 그래도 힘이 들면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굳은 마음으로 예불책을 돌려주기 위해 법당을 나서 종무소를 찾았다. 종무소에는 스님 한 분이 외국인 아이 팔을 다정스레 잡고, 벌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주다가 나를 보고는 천천히 일어나셨다.

내가 "스님, 저는 절에 다닌 지가 18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모르겠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예불책을 돌려드리고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스님은 가만히 생각하다 입을 여셨다.

"18년이나 다녔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 불교대학을 다녀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마침 불교대학 강의가 있으니 시간 있으면 올라와서 들으세요."

스님은 간결히 대답하시곤 다른 스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더니 요사채로 들어가셨다. 이상하게도 그 스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계시던 다른 스님께서는 "기도를 열흘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108 염주 갖고 하나씩 돌리면서 절을 하세요"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 또 "집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7번씩 읽으라"고 하셨지만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눈에 글씨가 들어올 리 만무했다.

나는 그 동안 <천수경> · <반야심경>도 제목만 알았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이다.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다니던 곳에서 무엇을 찾아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할 결심을 세웠다. 함께 사찰에 왔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가 큰 법당으로 갔다. 불교대학 강의 장소라는 큰 법당은 불자들로 꽉 차 있어서 주눅이 들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까 그 스님께서 들어오셨다. 스님은 "어느 보살님이 절에 다닌지 18년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시간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했다"며 "그런데 올라왔나 모르겠네"라고 말씀하시며 주변을 둘러보셨다. 나를 발견하신 스님께서는 "식구가 늘면 제일 먼저 입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인연'에 대한 설명,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다.

27세에 반대 무릅쓰고 두 아이 입양 우울증과 암치료로 고통스런 나날

점점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자세도 삐딱해질 무렵,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쉼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닦을 생각조차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시간여를 그렇게 울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고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예전에 내 자신이 안 울고 억눌러 오던 것들이 스르륵 풀리면서 내 자신을 측은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임을 알게 됐다.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 나를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울지 못했던 내 자신의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살아서 풀린 것이다. 이런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천도재를 지내주고 나서야 극락왕생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 서야 들었다.

강의가 끝나자 스님께서는 강의내용이 담긴 종이를 나눠주시고는 수강생들이 돌아갈 때까지 뒷모습을 배웅하며 일일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셨다. 정말 친절하신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며 '꼭 다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다음 날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법당에 갔는데 수능시험 기도 때문에 대웅전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는 큰 법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앞에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살려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08배를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남편에게 3배를 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스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했지요"라고 하자 싫지는 않은지 피식 웃었다. 스님께 당시 부부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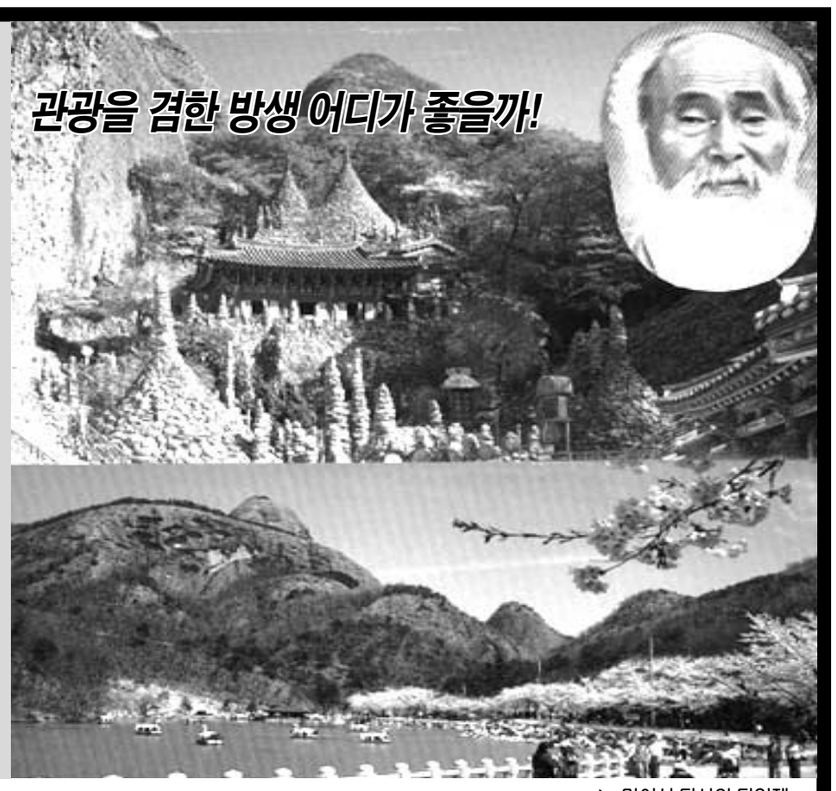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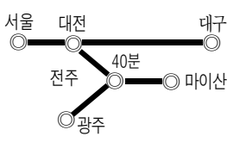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茶詩
오래 앉아 피곤한 긴긴 밤 久坐成勞永夜中
차 끓이며 무궁한 은혜 느끼네 煮茶偏感惠無窮
한 잔 차로 어두운 마음 물리치니 一盃卷却昏雲盡
뼈에 사무치는 청한(淸寒) 모든 시름 스러지네 徹骨淸寒萬慮空
-진감국사 〈무의자시집〉 中-

차와 시가 만난 까닭은?


조선 후기 화가 유숙의 '벽오사'. 벽오사라는 모임을 그린 것으로, 모임 한편에서 동자가 차를 달이고 있다. 당시 시문(詩文)을 즐기는 자리에는 차가 필수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찻자리 정취 · 이상 담겨 문화사 연구에 도움
불가에선 수행의 경지 드러내는 방편 되기도

한 편의 다시(茶詩)는 차를 마시며 느끼는 정취나 차 생활의 즐거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차인들이 다시를 쓰고 또 선현들의 다시를 애송하는 이유다.

다시란 좁은 의미로는 '차'를 주제로 읊은 시를 말한다. 이 때의 '茶'는 차의 재배와 제다, 음다(飮茶),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아우른다. 불가(佛家)의 스님들이나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 주로 지어진 다시는 차를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 찻자리의 정취 등 차 생활을 노래하고 차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理想)을 담고 있어 차 문화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

이러한 다시는 그 소재나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차를 심고 가꾸는 일이나 차를 만드는 것, 우려 마시는 등의 차 생활 자체를 노래한 시다. 조선 후기 범해각안 스님은 "솥에서 데쳐내어/ 밀실에서 말린다/ 모나거나 둥근 차 찍어내고/ 죽순껍질로 포장하여/ 바깥바람 들지 않게 간수하니"라고 초의 스님의 제다법을 노래했다. 또한 "다관은 오른쪽에 두고/ 다완은 왼쪽에 있다네"처럼 당시의 다법을 보여주는 시도 남겼다.

두 번째는 차를 선사하며 주고받은 시가(詩歌)다. 차와 시로써 깊은 교우를 맺은 이들로는 경호 선사와 이제현,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혜장선사와 다산 정약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차를 보내준 사람에게 "북쪽 동산에 새로 만든 차를/ 동쪽 숲에 사는 스님에게 보냈도다/ 한가로이 차 달일 날 미리 알고/ 찬 얼음 깨고 샘물 기를 찾는다"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세 번째는 차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시다. 스님들이 지은 다시 중 상당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말 나옹 선사가 "밥 먹고 갈증나면 차 마시고 곤하면 잠 잔다"고 읊은 시에서 보듯이 차가 단순히 잠을 쫓는 음료만이 아니라 수행의 방편으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스님들의 다시를 통해 선맥(禪脈)을 밝혀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를 펴낸 무산 스님은 다시를 통해 차를 마시며 선수행을 하는 '다담선(茶湛禪)'의 유래와 실체를 짚어보고 있다. 고승들의 문집에서 차에 관한 시와 산문을 찾아내 정리한 〈한국의 불교 다시〉를 펴낸 혜봉 스님은 79명 스님들의 다시와 차 관련 산문을 통해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차맥이 엄연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인터뷰 기사 참조)

이밖에 우리나라의 다시 연구서로는 〈한국의 다시감상〉(김명배 지음, 대광문화사, 1994) 〈한국 및 중국의 명다시감평〉(정상구 지음, 세종출판사, 1995년) 〈한국다시작가론〉(천병식 지음, 1996년) 〈한국의 다시〉(김상현 지음, 민족사, 1997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터뷰 '한국의 불교 다시' 펴낸 혜봉 스님

"일반인들 문집·시집 정리 집대성 할 것"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 · 사진)은 최근 신라시대부터 광복 후에 이르기까지 79명의 스님들의 다시(茶詩) 479편 513수와 차 관련 산문 50여편, 불교 다게(茶偈) 28편을 담은 〈한국의 불교 다시〉를 펴냈다.

▲출간 동기는?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 수필집 등에 몇몇 유명한 다시는 거듭 소개되지만 그 소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불교 다시라도 제대로 집대성해보자는 뜻에서 책으로 엮게 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승들의 문집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 한 스님이 쓴 다시는 몇 편이든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 국역되지 않은 시를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시를 정리하며 느낀 점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맥(茶脈)이 초의 · 범해 선사 이후 단절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금명보정 스님이 72편 79수에 이르는 다시를 남긴 것을 비롯해 해담치익, 용성진종 스님 등이 다시와 다화, 다론 등을 지음으로써 일제시대에도 우리의 다맥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허휴정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 응송 스님을 거쳐 면면히 이어져 온 해남 대흥사의 다맥을 짚어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다.

▲앞으로 연구 분야는?

-일반인들의 문집과 시집을 정리해 다시와 차 관련 문헌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차 문화 연구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한다.

보성녹차 미국에 첫 수출

'보성녹차'가 미국에 처음 수출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4월 14일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보성농협 녹차 가공공장에서 미국 뉴욕 수출 출정식을 가졌다. 첫 수출물량은 현미녹차, 녹차 티백, 엽차(葉茶) 등 3종류 60상자로 가격은 500만원 어치다. 지난해 중국 현지에 보성녹차 직판장을 개설한데 이어 교민이 많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인 수출길을 연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농협측은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수출 물량을 늘리는 한편 유럽과 남미국가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보성농협은 또 미주 공략에 이어 유럽과 남미국가 등에도 수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3년 문을 연 보성농협 가공공장은 연간 생엽(生葉) 300톤을 가공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지역은 750여 농가에서 646ha의 녹차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42%인 99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녹차관련 연간 소득은 2천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문화협, 청소년 차문화전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5월 1일 경기도 광주시 조선관요 박물관에서 '제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차 만들기 체험과 무료 차 시음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2)701-0475

우주항공축제기간 제다체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고흥지부는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고흥공설운동장 축제행사장에서 '전통 차문화 체험 및 고흥특산차 시음회' 상설체험장을 운영한다.

우주항공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 차문화와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차와 연잎차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차 무료 시음회와 제다체험 등이 마련된다. (061)830-5303

중국공예대사 강연 29일로

지유명차와 도서출판 바나리가 4월 12일 개최하기로 했던 '중국공예미술대사 초청 강연 및 시연회'가 주최측의 사정으로 4월 29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장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으로 변경됐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도서출판 바나리로 문의. (031)912-5634

조선시대 ①



조선의 건국은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문화에까지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상대 교역국이 주로 명나라기 때문에 차도 고려의 연고차 형태에서 차츰 산차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나 다풍을 거의 이어받아 사헌부에서 다시(茶時)를 행하는 제도도 있었고, 다모(茶母)라는 직책이 생겼다. 한편 방만했던 사찰과 승려들에 대한 정비와 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진다. 궁내의 제례는 물론 사가(私家)에서도 제사 때 차를 올렸고 왕의 묘당(廟堂)에는 술도 함께 쓰도록 했다. 12, 13세기를 정점으로 극에 달했던 청자의 기법이 고려 말의 혼란기를 겪으며 퇴보하여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기(茶器)들이 생산된다.

중국은 명(明)초여서 원의 제도를 그대로 두었고, 특기할 일은 태조가 용봉차 제조를 금지한 후 다엽(茶葉)을 산차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일본도 이때부터 거리에 찻집이 생길 정도로 저변이 확산되고 상류층에선 차의 유파(流波)가 생기기 시작한다.

① 태종 원년 2년 계묘일에 사신을 맞아 다례를 행했다.

② 정극인(1401~1481): 조선의 문신으로 호는 불우헌(不憂軒), 다각(茶角), 다헌(茶軒)이라 했다. 〈불우헌집〉에서 사헌부의 다시(茶時)이야기를 썼고 상춘곡을 지었다.

③ 5월 20일 명나라 사신에게 석등잔과 작설차를 줬다.

④ 혜민국(惠民局)의 의녀(醫女) 중에 다모의 일을 보게 했다.

⑤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제사에 차 대신 술을 쓰는 것을 금했다.

⑥ 12월 1일 이지(李漬)는 간원(諫院)의 탄핵을 당해서 그에 대한 판결을 다시(茶時)에서 결정했다.

⑦ 태조대왕과 왕후의 제사에만 술을 쓰고 나머지 제례에는 차만 쓰던 것을 모든 왕과 비의 제례에 술을 쓰도록 했다.

⑧ 중국 사신 해수가 암화분색(暗花紛色) 다종(茶鐘)과 다병을 바쳤다.

⑨ 조정의 중론에 의해 정·부사(正·副使)에게 차와 인삼만 내리게 했다.

⑩ 장흥고 직장 이사문이 다모와 간통하였는데 그 장모가 원해서 보방했다.

⑪ 명나라 사신에게 전다구(煎茶具)와 차, 다시(茶匙) 등을 하사했다.

⑫ 예겸(1415~1479): 명대 문인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예문희집(倪文僖集)〉에 '다방(茶榜)'이라는 글에서 차에 대한 생각을 썼다.

⑬ 실전시대(室町時代): 동사(東寺)의 남문 앞에 한 잔에 한 돈 하는 다점(茶店)이 있었다고 했으니 서민들의 찻집으로 보인다.

⑭ 5월 14일 하인들이 복견궁(伏見宮)의 부엌에서 운각다회(雲脚茶會)를 베풀었다고 〈간문어기(看聞御記)〉에 전하고 그림도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명과 교역하며 '연고차'에서 '신차'로 변화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401 명나라 사신에게 다례를 행함 ① 정극인(丁克仁)의 출생 ② 1402 명나라 사신에게 작설차를 내림 ③ 대신들이 민무의 집에서 다례를 지냄 1405 사헌부에서 다시(茶時)를 행함 1406 혜민국의 다모(茶母) ④ 1407 제사에 술대신 차를 쓰도록 함 ⑤ 1411 다시(茶時)를 행함 ⑥ 1416 궁중제사에 차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⑦ 1417 명나라 사신이 다종(茶鐘)을 가져옴 ⑧ 사신의 정 · 부사에게 차를 주다 ⑨ 1418 다모(茶母) 간통사건 ⑩ 1419 명나라 사신에게 차와 다구 하사 ⑪	명대	1407 안남정복 후 교지포정사(交趾布政司)를 둠 1409 다금(茶禁)을 신계(申戒) 함 1415 예겸(倪謙)의 출생 ⑫	남북조	1401 족리의만이 명과 교역하다 1403 동사(東寺) 남문 밖에 서민 다점이 생기다 ⑬ 1406 희야(嬉野)에 초차가 있었음 @ 동산류(東山流)의 다도가 생김 1417 운각다회(雲脚茶會)를 열다 ⑭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입 꼭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씽긋이 웃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 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답을 미리 알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서 서너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철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많은 불자들이나 그 밖의 사부대중들이 모두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알고 그래서 불국정토가 빨리 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번에는 큰 법난이 종단에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또 우리 불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수습국면에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이 빨리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려면 우리 불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곱게, 파도를 이루지 않고 잔잔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물속에 깊숙하게 있는 그 고기들이 살 수 있으며 위에서 다니는 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뒤집어놔야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서 먹고 위에 있는 양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태양열도 밑으로 내려보내고 온기를 찬기와 서로 섞어서 다 공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도 할 수가 있죠. 모든 게 교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건 바로 공생 공심으로서 공용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환이라고 그럽까요?

▲질문자1: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스님: 정맥 동맥이 서로 돌아가서 순환이 돼서 몸뚱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질문자1: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러니깐 입 꼭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싱그레 웃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질문자1: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상당히 의증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마음공부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의증이 생기면 경에도 의지하지 말고 타의에도 묻지 말고 사량으로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의증을 좀 더 손쉽게라고 그럴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스님: 이게 하지 말라 하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대로입니다. 경을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을 보되 보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보되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질문자1: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스님: 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시라 이런 거죠. 그냥 보고 모든 걸 참작하고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이 그럽 일이지, 관습에 이끌려도 안되고 거기에 의존을 해도 안되고, 집착을 해도 안되고, 모든 거는 그저 공해서 촐나촐나 돌아갈 뿐이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고(苦)가 오히려 생기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길이 바로 첩첩 그냥 쌓입니다.

▲질문자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번 세상에 나기가 그렇게 참 기막힌 인연으로 해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 때 가지고 온 업이 또는 습이 살아가는 데 많은 괴로움을 줄 때 그 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나왔으면,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계시죠? 그런데 나온 자체를 형성시킬 때 자기 과거에 살던 영혼 자체가, 바로 뿌리가 자기를 어느 남녀를 빌려서 자기를 형성시킨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놈이 다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생각을 해야죠. 그놈이 하는 거니까. 지금 껍데기가 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자1: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 습이 빨리 없어져야만 마음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스님: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용광로라고도 하고 주인공 뿌리라고도 하는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몰락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그놈이 들이고 내는구나.' 이렇게 놓으면 그냥 몰락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굴려서, '아,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뿐이다.' 구녘은 한 구녘밖엔 없으니까. 우리가 나오는 구녘이 어딥니까? 남녀를 막론해 놓고 자궁이죠? 자궁 한군데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안으로 도로 넣어야, 자기가 살고 있는 전체를 자궁 안으로 도로 집어넣어야 다시 정신계에 태어난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놈으로서 모든 게 들이고 내고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몰락, 요거 하나 조거 하나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수효가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효 많은, 들이고 내는, 자기 몸뚱이가 움쭉거리는 그 자체까지 전부 몰락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력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그 앞서의 입력한 거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질문자1: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라고 해서 이것이 분별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세계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그전에도 많은 고통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한 오십 년 동안 남북으로 갈려서 지금 한 쪽은 핵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면서 상당히 세계가 어수선한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

몰락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다 놓고 굴려라!

☞29면에서 계속

로 그것을, 누진은 직결이 돼 있어요. 그 주는 대로의, 자기가 그걸 받아서 '아, 이거는 이럭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건너뛰어서 되지 않는 거로구나.' 하는 걸 다스리면서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질문자2: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잘나촐나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근본은 무엇이며 왜 그러는지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지금 왜 그러시는지, 그 말을 왜 묻는지 물어보시오. 그 말을 왜 묻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면 될게 아뇨?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마음은 지금 이 안에도 천차만별이요, 바깥에도 천차만별이야. 그 의식들이 수없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원자 속에 그냥 잔뜩 차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보이지 않게 시시각각 그 마음이 나오게끔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어디서? 자기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뭐가 있겠소? 그러니까 원인은 자기라!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물어야지 나한테 물으면 되겠소?

그러니까 자기 현재 자(子)가, 즉 말하자면 과거의 부(父)한테 물어봐야지. 역시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뿌리가, 영혼의 뿌리가, 근본이, 즉 말하자면 어느 남녀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시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물어야지 누구한테 묻겠소.

꼭 그거는 공부하려는 사람은 알면서도 묻고 몰라서도 묻고 물어야, 이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지, 묻는 여러분을 아주 몰라서 묻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깐 방편으로써 여러분하고 동참하고 서로 도반으로서 배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질문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더라도 질문은 하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되, 지금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그놈한테다 물어보세요.

▲질문자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높으신 가르침 가슴 깊이 간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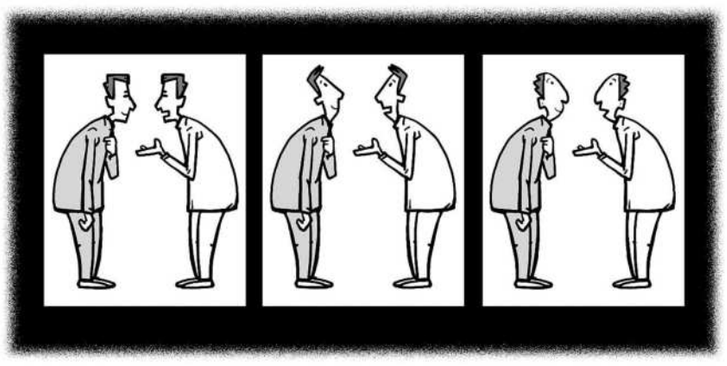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죽는 걸 겁내지 않는 마음자세가 있다면 아마 빙그레 웃을 겁니다

▲질문자3: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는 질문을 하고자 나온 게 아니고 스님의 큰 법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스님: 편안히 앉아서 그걸 들고 하세요.

▲질문자3: 저는 안산에서 조그만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의학인이고 장남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갖은 병원에를 왔다갔다 주선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선원에 같이 나가보자 하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가 어째 선원에 나가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밀쳐야 본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머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참! 큰스님 법력이 놀랍구나'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병원에 갔더니 자궁 외 임신이 됐다 그래서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의사가 말하길래 더욱더 놀랐어요. 임신이 됐는데 잘못하면 사람까지 죽을 수 있다 하니까 뭐, 애는 들째고 제발 사람만 좀 살려달라고 인제 의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뭐 사람 목숨은 다행히 살리겠지만 자궁 외 임신 하면 다음부터는 아마 임신이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완전히 인제 임신하고는 담 쌓았구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스님을 친견하고 날마다 다녔죠. 그리고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저는 뭐 가끔가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매일 여기에 오다시피 왔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이 또 됐습니다. 아, 저도 놀라고 온 집안이 다 놀랐어요.

▲스님: 패도 좋으시겠소.

▲질문자3: 자궁 외 임신 하고 다시 임신한 사람은 유산이 될 확률이 많다 이래서 또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무사히 10개월을 넘겨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체험담을 여러 번 말해야지 했는데 영 이런 기회가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해라 그래서 질문보다는 이렇게 좋은 스님의 법력을 제가 체험한 걸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해서만이, 내가 귀한 원력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자 줄과 내 전자 줄이 맞닿지 않았더라면 그게 어떻게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원력이요, 내 원력이 둘이 아니니 그것이 바로 둘 아닌 한마음이기 때문에 불이 밝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만 낳는다고 해서 또 어린애 낳았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혼백 뿌리 자체가 아주 차원이 높아야, 높은 영령이 내 애기로 맞이가 돼야 이거는 정말이지 빛나는 그런 생애입니다. 속도 썩지 않을 거고, 효도도 받을 거고 빛도 날거고, 나라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 어머니가 칠 년을 기다려서 어린애 낳아서 공자를 낳았듯이 말입니다. 나한테 잠종이 들어온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선종이 들어와서 애기가 돼야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셔야죠. 이왕지사 낳은 분들은 또 마음을 서로 썰물 밀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관하는 공부를 자꾸 거기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하면 그냥 넓어지죠, 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자기한테 자기가 물어야 합니다

▲질문자4: 울산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스님 법문 선법가 중에서 「선종관문 알아보세」라는 그 중에서 마지막 귀절에 보면요, '향운공을 양식하여' 라는 귀절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항상 마음속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모든 올라오는 번뇌망상이나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다 되돌려 맡기는 것이 향운공을 양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핀트가 조금 틀렸어요. 허허! 향을 올리는 거나 다기를 모시는 거나 이게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그래서 마음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저 그 공양을 올리되 공양이죠, 공향이고! 공향이니까 한 어떤 개별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다 하면 여래의 집단이죠. 여래, 여래, 여래라는 건 어떠한 생명이든지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나 보이는 생명이나 또 말이 없는 생명이나 말이 있는 생명이나 모두 한데 합쳐서 향을 한 꼬비를 피우더라도 공향을 드려 올려야죠? 공향! 그러니까 '공향' 이 일체제불의 마음이든지 전체가 그냥 하나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향이에요.

▲질문자4: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통신 아닌 통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 도반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말해드린 뜻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이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몸 안에서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관습이나 그 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한데 모아서,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들이고 내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대 내 자생중생들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우리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생활공부 말입니다.

(광주지원 합창단 노래공양이 있은 후)

▲스님: 그렇게 새 마음으로써 내는 그 마음이 바로 과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리요, 그것이 지혜고, 우리가 아주 묵은 나무에서 꽃을 피게 하고 그 꽃이 피게 하면 열매는 물론 열리겠고 그 열린 열매는 물론 익을 거고, 참! 맛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나무가 아주 푸르르군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행사 안내

2005 한마음 합창제 및 안치환 초청 축하공연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05 한마음 합창제 및 안치환 초청 축하공연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 특별출연 : 정틀스님, 도일스님



● 일 시 : 2005년 5월 3일 화요일 (합창제 오후 4시, 만찬 6시 20분, 축하공연 7시)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 문 의 : 삼영불교서점 · 음반 053)425-4097
대구 BBS 총무부 053)427-5114 www.dgbbs.co.kr
● 합창제 및 안치환 축하공연 입장권 예약 접수 중

글짓기 · 그리기 · 디카촬영 대회 2005 꿈이있는 문예마당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 으로 초대합니다. 팔공산과 동화사를 배경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밝은 꿈과 천진한 동심을 전해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개최일시 :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10:00 ~ 15:00
※ 당일 오전 10시 동화사 경내에서 개회식이 열립니다 ※ 우천시 5. 7(토) 오후 2시 개최
● 개최장소 : 동화사 및 팔공산 일원
● 행사내용 : 글짓기(산문, 운문) · 그리기 · 디카 사진촬영 / 어린이 날 축하공연, 레크레이션
● 참가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참가 기념품 지급)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참가준비물 : ① 공통 : 참가신청서(www.dgbbs.co.kr에서 다운로드, 단체는 1부로 가능), 점심도시락, 돗자리
② 그리기 참가자 : 그림도구 ③ 글짓기 참가자 : 필기도구, 책받침
④ 사진촬영 참가자 : 디지털카메라 ※ 원고지와 도화지는 지급합니다
● 발 표 : 5월 12일 목요일 대구 BBS 홈페이지(www.dgbbs.co.kr)에 게시

그 밖 의 주요행사

부용스님 초청 연꽃사진전 「사계절의 연꽃 감상」
• 일시 : 5. 2(월)-5. 8(금)
• 장소 : 봉산문화회관

광복 60주년 기념 - 국토사랑순례
「독도 · 울릉도 탐방」
• 일시 : 6. 4(토) 07:30 - 6. 6(월)
• 장소 : 울릉도,독도
「금강산 신계사 대법회 봉행」
• 일시 : 8. 13(토) 07:00 - 8. 15(월)
• 장소 : 금강산, 신계사
※ 국토사랑순례 선착순 예약접수중

■ 행사문의 : BBS 대구불교방송 대구 중구 대봉동 156-1 ☎ 053)427-5114 / Fax 053)427-4433 (대구 94.5MHz, 안동 97.7MHz, 포항 105.5MHz) www.dgbbs.co.kr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o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제20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참신한 젊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 실천 2개 분야에 걸쳐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 철학 · 문학 · 예술 · 비교사상, 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 또는 불교단체
②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별첨)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 · 대학원장, 기타 기관및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5년 6월 10일까지

5.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6.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148호
전화 02)762-5624~6 / 전송 02)762-5627

不 二 會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길벗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핸드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본 가방 1개 외 작은 가방 1개 추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단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051)507-7555, 503-7722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소원성취



영 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납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저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새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바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달마도 한점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P : 011-9458-6616
FAX : 031- 316-9114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장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수행건강학과

학 인 모 집 안 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무량의경(한문)
• 묘법연화경(한문)
• 관.보현보살행법경(한문)
• 황제내경(소문.영추)
• 건강증진 = 운동요법
• 자연치유 = 식이요법
• 대체의학 = 경락요법


학장 최광영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평일반)
토요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주말반)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자 자격증 취득(검정후)
• 전문경락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평생무료학습)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韓國平生大學

지장전통불교대학 2기생 학인모집

영남 범음범패 통도소리 보존회 총 본사인 불광사에서는 양산 통도사 노전스님을 지낸 청봉큰스님을 모시고 불교전통의식을 배우고저 하는 사부대중을 모집 합니다.

■ 의 식 : 도량석 · 조석예불 · 헌공 · 시련 · 대령 · 관욕 · 천도(49)재 · 점안식 · 수륙재 · 영산재(기초부터~ 전문가과정까지)
■ 사 물 : 목탁 · 요령 · 강쇠 · 태징 · 북. 바라춤 · 나비춤까지
■ 교 육 : 불교기초교리 · 행자과 · 사미과 · 경전과정교육
■ 구 분 : 일반부 · 초급반 · 중급반 · 고등반 · 연구반
■ 입학식 : 6월 3일 오후 2시
■ 위 치 :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웅상읍-덕계 중간.미타암아래)

우담바라 꽃핀 지장성지 **천성산 불광사**
종무소 : (055)364-4747
통도소리보존회 : (055)389-2226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탈종공고

• 사찰명 : **월 명 사**
• 주 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산 28**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건물 등기인 : 김지호

2005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제46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4월 30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2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5년 5월 4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모아에너지산업 [주]

신비의 파동에너지 별똥별 보석염주

별똥별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전속모델 남일우, 김용림 부부

파동에너지 별똥별 보석염주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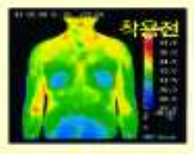
별똥별에 인체와 동일한 양파동을 전사 입력하면 체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발생합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암세포 활동정지, 혈압, 관절염, 두통, 신경통 등 각종 만성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별똥별에서 강력한 회전전자파가, 경락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인체의 면역활동 및 생체활동의 개선효과,
특히 천연운석 자체에서 발생하는 생육광선과 원적외선 효능에 파동에너지 입력에 따른 음이온 발생합니다.

석가탄신일 맞이
20%특별할인 판매
~~₩360,000원~~
₩288,000원
기간 : 석가탄신일까지

특허 받은 파동에너지,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 수능, 취직시험을 앞둔 자녀
- 승진시험을 준비중인 이빠
- 생체리듬 활성화 증진
- 면역력 증가
- 어르신의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
- 심신의 안정과 기력회복이 필요한 분

※ 에너지 발생키드 : 특허 제 34164호



과학으로 입증된 효과, 별똥별의 놀라운 효과

- 양성에너지 발생 측정결과 +16 증가
- 원적외선 방사율 91%
- 파동 음이온 발생
- 수맥전자 유래파 제거사방 90cm
- 소화장애 제거(음의 식품을 양이온으로 변환)
- 피로회복, 기력 증강, 노화방지 치매예방
- 어깨결림, 세포조직 활성화, 요통 등의 통증 완화
- 혈액순환 촉진 및 혈압 장애 해소

문의 : 1588-6288
www.moaenergy.com

전국 대리점 및 영업부 직원 모집
대리점은 각 지역 선착순 마감하며 계약상담은 미리 예약하십시오.

별똥별(천연운석)이란? 별똥별이란 유성, 혜성, 소행성, 태양계를 떠돌던 우주의 부스러기가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별똥별은 우주생성의 비밀을 캐는 중요한 연구재료로 쓰이며 낙하한 운석들을 실험해 본 결과 주위의 탁한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우리가족 웰빙 필수품

별똥별 보석염주